



6

1991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1. 6호

(루게 524)



◆◆◆◆◆◆◆◆◆◆ 차 례 ◆◆◆◆◆◆◆◆◆◆

| | |
|----------------------------|----|
| 사랑의 자욱을 밟으며 (외 1 편)..... | 4 |
| 사랑의 실패 | 4 |
| 언제면 쉬시렵니까..... | 5 |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드리는 송시 | 6 |
| 보천보의 총탄자리앞에서 | 6 |
| 수령관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시며 | 7 |
| 오늘만은, 이 아침만은 | 8 |
| 위대한 스승의 품속에서 | 9 |
| 시가는 우리 시대의 영예 | 10 |
| 특색있는 구성조직과 작가의 기교 | 11 |
| 온 마을, 온 나라가..... | 13 |
| 사 랑 | 14 |
| 통일거리 출근길 | 15 |
| 섬에서 만난 청년 | 16 |
| 꿈과 미래와 조국..... | 25 |
| 네가 노래하는 때는 (외 1 편)..... | 28 |
| 먼 출장지에서 | 28 |
| 혁명가요에서의 혁명적랑만성 | 29 |
| 내 그림던 땅에서 | 31 |

| | |
|-------------------------------|----|
| 친 구 | 32 |
| 비소리, 바람소리 (외 2 편)..... | 37 |
| 아름다운 녀인들 | 37 |
| 아버지에 대한 추억 | 38 |
| 스 승 | 39 |
| 어제와 오늘 | 40 |
| 한그루의 잣나무 | 47 |
| 우리 젊은이들 (외 1 편)..... | 48 |
| 눈 오는 날 | 48 |
| 소설의 흥미와 형상의 새로운 뜻..... | 49 |
| 천리마동상에 부치는 노래 | 52 |
| 장암산처녀 | 53 |
| 출진이다 (외 2 편)..... | 61 |
| 모닥불 | 61 |
| 편지에 대한 이야기 | 62 |
| 우리 집 식탁..... | 63 |
| 모습, 차림새와 관련된 속담..... | 64 |
| 조국통일주제 단편소설의 풍격과 형상성문제 | 65 |
| 창작적열정 드높다..... | 71 |
| 광주의 5 월 | 74 |
| 《자네야말로 인간이 아니라 예술의 신일세》 | 75 |
| 여기는 아직도 겨울이다 | 78 |

사랑의 자옥을 밟으며 외 1 편

안고령

철늦은 진달래
봄을 안고 망울터치는
여기는 두만강기슭
북변의 령길

이 길로 가시였으리
아버이수령님 비바람 헤치시며
우리 지도자동지 진눈까비 맞으시며
굽이굽이 넘어가신 우암령

우암령 령길에 서니
아버이수령님
빠진 차를 밀고 가시던 그 자옥이 뵈혀와
우리 지도자동지
진눈까비 맞으시며 이어가시던 그 영상 안겨와
후더운 눈시울 젖어들어라

어디쯤이나
그날에 찍으신 자옥자옥은
어디에 스며들었느냐
그날에 맞으신 진눈까비는

아, 우암령
오늘은 드넓게 길이 트이고
그날의 그 자옥우에
들꽃들도 향기 풍기며 다투어 피는곳

새모습이로다
살진 초원을 누벼가는
털고운 양떼 젖소떼 한가로이 풀을 뜯고

방목공의 구성진 풀피리소리에
못새들 깃을 치며 날아오르누나

사랑의 자옥을 밟으며
은정의 자옥을 밟으며
아 그날에 미쳐 못올린
감사의 노래 걸음걸음 터치며
행복에 젖어 기쁨에 겨워 내 걸음 옮기노니

발목이 시도록 진펄길을 걷고싶어도
지금은 진펄길이 아니구나
내 작은 발자국 따라 옮겨도
보이지 않는구나 그날의 숫눈길

그래서 내 마음 더욱 뜨겁고
그래서 내 가슴 깊은곳에
자꾸만 어려오는것은
그날의 그 자옥자옥뿐이여라

우리 수령님 앞서가신 길
우리 지도자동지 이어가신 길
인민을 위해 걷고걸으신
이 길의 끝은 어디인가

밝은 해빛만을 안고
열매 주렁지는 이 땅
노래속에 웃음속에
오늘과 래일의 행복이
이 길에 이어져 아, 끝이 없구나

사랑의 실패

청진거리 해방동
추억깊은 숙소
검소한 어제날의 방안에
인두와 함께 놓여있는 작은 실패
잊지 못할 사연

가슴에 걸려

오리오리 실오리처럼 잠겨있어라

해방의 그해
거리에서 만난 너인
밥동냥 헤매던 그 정상

김정숙어머님

숙소에 데려오셨던 그밤

한뼘한뼘 바느질하시며

너인의 옷 지으시며

실오리는 얼마나 풀리었더냐

별이 지던 새벽에야

어머님 실오리 끊으셨더라

난생 처음 새옷을 입고

고마움에 흐느끼는 너인

옷매무시 잡아주신 어머님

너인을 한품에 꼭 껴안아주실 때

받아안은 어머님의 그 사랑

어이 그 너인뿐이었으랴

유격구의 그밤

아동단 새옷을 지으시며

밀영의 그 새벽

유격대의 군복을 지으시며

반질반질 닳고 닳은 저 실패에서

얼마나 많은 실 이렇게 감기고 풀리었던가

한뼘한뼘 누벼가신 어머님사랑

실오리처럼 끊임없이

그 사랑 세월에 이어져

오늘은 온 겨레의 마음속에 흐르거니

아, 혈벗은 인민을 한품에 안으신

어머님의 뜨거운 그날의 그 사랑

이내 몸을 감싸주며

실실이 이 가슴에 젖어드네

행복한 오늘에도 사랑의 오리오리

인민의 가슴속에 새겨지네

언제면 쉬시렵니까

아브둘레이 디알로

피어린 투쟁으로 나라를 찾아주시고

조국에 개선하신 수령님께

인민들은 다함없는 감사의 정 안고

말씀드리였어라

다문 며칠만이라도 쉬시여달라고

허나

인민을 위한 위업에 몸바쳐오신 수령님

순간의 휴식도 쉬임도 모르시였어라

수령님 강선의 로동계급을 먼저 찾아가시였어라

소중한 추억들을 불러주는 만경대

한발이면 가달을듯 만경봉이 눈앞에 다가서고

어머님의 부드러운 자장가소리 들려오면 고향집을

지척에 두시고

수령님 현지지도의 길 떠나가시였어라

사랑하는 인민에게 복된 삶 안겨주시려 마음쓰시며

수령님 걸으신 길 몇만리더냐

수령님 지새우신 밤 그 얼마이더냐

민족의 태양의 빛발

조국땅 그 어디에나 파사로이 비쳐

산촌과 어촌에도

그이께서 심어주신 사랑 꽃으로 피어났어라

위대한 태양의 열과 힘 인민에게 안겨주시니

로동자와 농민도 지식인과 군인도

그이를 우러러따르고

그이께 충성다하여라

아 언제면 쉬시렵니까

인민을 위한 길에서 다함을 모르시는 수령님

(필자는 기네작가동맹 주체문학사상

연구회성원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드리는 송시

로꼬 꼬쌔

김정일

그이는 정력적인 지도자
뜨거운 주체의 심장을 지니시고
인민의 행복 꽃피우시는 위대한 령도자

3대혁명 승리에로 이끄시는 그이께 영광을
노래하자 그이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적복무를
그이의 비상한 창조적열정을

주체의 태양아래
자연도 사람도 활짝 피어나거니
그이의 업적 노래하며
숲이 설레이고 행복에 겨워 대지도 넘실거린다

사람들 그이를 우러르며 환희에 넘치고
그이께 영광드리네
만수축원의 인사 드리네

(필자는 베닌사람임)

보천보의 총탄자리앞에서

전계승

유서깊은 보천보의 한복판에
《경찰관주재소》
유격대의 불벼락에 벌동지된 벽에
오늘도 생생한 총탄자리여

백두의 답사길 개척하신 그날부터
그 몇몇해...
그리워 먼길 찾아오실적마다
이곳을 돌아보신
친애하는 그이

주재소앞에 서시여
싸움터에서 백여메터되는곳에
지휘처를 정한 전쟁사는 없다시며...
벽에 뚫린 총탄자리는
구경이 기관총탄알자리라고
가르쳐주시더니

그날밤의 전투로 보아
탄알자리가 적다고
더 있을것이니 더 찾아보라고
일깨워주시여...
기어이 다 찾아주신
주재소벽의 총탄자리여

아 수령님 이룩하신
항일의 위대한 혁명전통

100프로 계승하고
100프로 실현해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의 높은 뜻, 비범한 예지
크나큰 업적 깃들어있어...

오늘의 보천보는
탄알자리 하나, 나무 한그루, 옛건물
한채도
화광이 충천하고 총소리 가슴을 흔들던
그밤의 보천보! 그 모습 그대로
만민이 따라배우는
로천혁명박물관으로 솟아있나니

력사의 증견자
주재소의 벽에 뚫린
유격대의 총탄자리, 기관총탄자리

총탄자리는 긍지높이 전하는구나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온 세상에 선포한 보천보의 화불을
주체의 화불로 높이 추켜드신
친애하는 그이
시대의 진두에 서계시기에
오, 보천보 보천보는
영원히 빛나고있다고

수령관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느 한 영화를 보시고 항일혁명투사 김책동지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김책동무는 해방직후 지식인들과 사업하는 과정에 재간 있는 기술인재들을 많이 찾아내어 그들이 다 건국사업에 떨쳐나서게 하였는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예술영화를 하나 잘 만들어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해방직후 산업건설을 위하여 애쓴 김책동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면서 김책동지에 대한 잊을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창작에 참고하라고 하시며 몸소 그의 고귀한 인간적품모를 보여주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였다.

김책동지는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하여 일관단심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것은 그의 변함없는 신념이였고 삶의 전부였다. 그의 사업과 생활, 모든 활동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이 뜨겁게 흘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김책동지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면서 그의 송고한 정신세계와 고결한 인품을 깊이있게 그리는데 형상의 초점을 두어야 하겠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영화는 사실상 성공이 이미 약속된것이나 다름없었다. 바로 그러한 흥분속에서 창작가들은 영화를 창조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올렸다.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하루 앞둔 1980년 2월 15일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영화의 작업필름을 보아주시고 예술영화 《초행길》은 만들기 힘든 작품인데 깊이있게 잘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몇대목, 특히 영화의 마지막장면에 설화를 주어 수령님에 대한 주인공의 충실성을 더 두드러지게 강조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계속하시며 수령님께서 일군들에게 전화로 말씀하시는 장면들의 대사형상을 다시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영화의 자막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그이의 구체적인 가르치심에 의하여 영화는 손색없이 훌륭하게 완성되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예술영화 《초행길》을 여러차례 보아주시고 영화가 좋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후 수령님께서서는 예술영화 《초행길》을 다시 보시고 이런 식의 영화를 한두편 더 만들데 대한 강력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다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드시고 예술영화 《초행길》의 속편으로 《전선길》을 창작할데 대한 현명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몸소 이 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영화를 위대한 수령님탄생일에 드리는 기념작품의 하나로 창작하도록 정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거듭되는 신임과 배려에 창작가들은 기쁨과 감격을 금치 못해하면서 예술영화 《전선길》창작을 다그쳤다. 그런데 영화촬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니 전투장면들을 찍는데 필요한 많은 군사인원과 기자재문제가 제기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사실을 보고받으시고 즉시 해당 부문 책임일군에게 전화를 거시어 촬영에 필요한 군사인원들과 무기, 탄약 등을 보장하도록 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창작가들은 아무런 불편없이 영화를 찍어 첫 작업필름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올리였다. 그때가 1982년 2월말경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신의 피로도 아랑곳 않으시고 새벽 3시에 예술영화 《전선길》작업필름을 보아주시기 위하여 영화시사실로 나오시였다.

첫 화면부터 영화를 주의깊이 보시던 그이께서는 못내 서운하싯듯 영화를 잘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술영화 《초행길》에서는 주인공이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그의 수령관을 깊이있게 형상하였는데 《전선길》에는 주인공이 최고사령관동지의 전화를 몇번 받는것뿐이고 최고사령관동지의 작전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애쓰는것을 보여주는것이 없다고 하시였다.

이외에도 영화에는 군단장들을 잘 형상하지 못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결함들이 있었다. 한마디로 영화는 사상적대로부터 생활세부, 분위기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결함이 많은 영화아닌 영화였다. 일군들은 깊은 자책에 잠겨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에서 크나큰 힘을 얻고 창조집단은 다시 20여일동안 영화를 수정하

였다.

1982년 4월 3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영화가 수정완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로부터 4일후 다시 한밤을 지새우시며 영화를 보아주시었다. 영화가 끝난후 그이께서는 예술영화 《전선길》을 고쳐놓으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좋아진김에 더잘 만들고싶은 욕심이 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해방후 병기공장을 책임지고 투쟁한 로동계급출신의 병기부장과 주인공의 아기자기한 관계를 더 설정하여 한 장

면 보충하는것이 좋겠다고 가르치시었다.

이리하여 예술영화 《전선길》은 《초행길》과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혁명적수령관을 잘 그려낸 영화로 훌륭히 완성되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수령관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실로 영화 한편한편의 창작과 완성을 위하여 기울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심혈과 로고는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다.

오늘만은, 이 아침만은

박 철

오늘만은 이 아침만은
남편과 함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꿈같은 이 기쁨
프락토르가 안아다준것만 같아
차체에 조항간에
심장은 자꾸만 속삭입니다
어버이수령님 보내주신 편지의 구절구절

이날따라 낮이 있는 살불이 같습니다
이날따라 발동소리도 유정합니다
얼마나 인연을 잘 맺었습니까
남편과 나
프락토르와 우리 온 가정의

해가 솟고 달이 뜨는 논머리에서
운전대를 넘겨주고 넘겨받으며
세월을 싣고 달려오지 않았다면
생각이나 할수 있습니까
눈물이 솟는 이 기쁨을

동서들도 첫살림의 꿈을 싣고
대학에 가던 딸도 다시 와 희망을 싣고...
어느덧 한식구처럼 된 프락토르
그것이 꽃피우지 않았습니까
가슴벅찬 이 행복을

아, 잊지 못하는것이 수령님 품이라면
불타는 마음을 실은것은 프락토르입니다
끝없이 안겨주시는 사랑을 따라
위훈을 새겨가는 길에
무쇠철마도 혁명의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오늘에 뛴는 이 심장
먼먼 세월의 저 한끝에 두고
따뜻한 체온으로 더웁혀진 조항간
우리 서로 넘겨받으며

끝없이 달려가겠습니다
남편이 달리다 해가 저물면
내가 달려 뜨는 해를 맞으며
이 땅에 흐르는 날과 날을
기계화의 노래로 가득 채워나가겠습니다

아 해와 해를 따라
오늘의 열네명 우리 가정
래일은 스물네명으로 늘어난대도
프락토르행렬우에
수령님 사랑을 싣고 달리겠습니다
종합적기계화로 꽃겨울 세월을 싣겠습니다

오늘만은 이 아침만은
남편과 함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위대한 스승의 품속에서

김명익

봄이다. 완전한 전야의 봄이다.

먼산에 가까운 산에 진달래꽃, 살구꽃 다투어 피어나고 아지랑이 벌가득 아물아물 떠오르는데 논밭 갈이에 여념이 없는 프락포르의 밭동소리 류달리도 가슴을 흔들며 들려온다.

여기는 룡연땅, 나는 지금 온 나라 인민들이 격동으로 설레이고 마음마음들이 달려오는 룡호분장에서 현지체험의 나날을 보내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편지를 보내주신 박정국, 정연화가정의 14명 프락포르운전수들과 함께 프락포르도 타고 이야기도 나누며...

만나고 만나보아도 수수하고 소박하기만한 그들, 우리 나라 농장별 그 어디에 가도 쉬이 볼수 있고 만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한 가정이다.

그처럼 평범하고 레사로운 가정의 14명 프락포르운전수들속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있고 로력영웅이 있으며 공훈프락포르운전수들과 농기계기사들, 창의고안명수들이 있다.

그들 모두 먼먼 태고적부터 이고장에서 피땀이 들도록 가대기를 끌며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머슴군의 후손들이다.

불타산의 줄기가 몽금포의 장산곶으로 뒸뒸히 뻗었고 뒤로는 신화산의 뒸뒸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아득히 펼쳐진 룡호별, 이고장 농민들의 하많은 원한이 그대로 룡정의 푸른 원소가 되고 눈먼 할아버지를 위하여 처녀의 몸을 팔아 임당수거친 물에 던졌다는 눈물겨운 이야기를 전설로 들으며 자라온 그들, 그들이 바라고 꿈꾸어온것은 무엇이었던가, 선조들의 원한과 소원이 묻힌 이고장에서 처음으로 아버지, 어머니들을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고마운 조국을 위하여 몸과 마음 다 바쳐 고향별을 가꿔가는것이 그들의 희망이었고 꿈이었다.

기억도 새로운 1960년 9월 19일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 룡연군에 몸소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먼길의 피로도 푸실사이 없이 전민소유제의 시범단위로서의 군종합농장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땅도 평평하고 여러모로 기계화하는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있으니 얼마든지 기계화하여 잘살수 있다고, 그러자면 남자들은 물론 녀자들도 프락포르를 몰줄 알아야 한다고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었을 때 그들의 가슴은 얼마나 부풀어올랐던가.

소로 논밭을 갈고 손으로 씨를 뿌리고 김을 매는 것을 농사군의 전문으로만 여겨왔던 그들에게 있어서 수령님의 말씀 구절구절은 그대로 꿈이 되었고 희망과 의지로 되었다.

부끄러움과 어려움과 곤난을 이겨내며 프락포르 구조학을 배우고 운전법을 익혀 제손으로 기계를 몰아 고향별을 갈아번지던 날 박정국, 정연화동무들의 꿈은 얼마나 더 높이 날아올랐던지, 별에서 돌아오는 그날 저녁 밤하늘의 별들도 그들을 축복하듯 무수히 반짝이었다.

《머슴군의 자식들인 우리가 부부프락포르운전수가 되었으니 꿈만 같구려.》

박정국동무가 하는 말이다.

《정말 그래요. 꿈만 같아요. 그런데 어쩐지 마음이 걸리누만요. 시동생들도 동서들도 프락포르를 배워 운전수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가요. 그래서 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룡호별에 프락포르운전수들이 늘어나면 우리 수령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요.》

프락포르를 배우느라 밤을 지새고 눈물도 짓던 지난날을 즐겁게 회상하며 안해 정연화동무는 한껏 행복에 젖어있었다.

《당신이 참 좋은 생각을 했소. 그러면 우리 집안은 프락포르운전수가정이 되겠구만.》

《프락포르운전수가정! 아, 얼마나 좋아요.》

다정히 속삭이며 나눈 이야기가 시동생 부부들과 시누이의 꿈이 되고 그 꿈이 현실로 되어 어느덧 9명이 모두 프락포르운전수가 되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신분은 우리의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룡연군종합농장 룡호분장의 박정국, 정연화가정의 9명 프락포르운전수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런 가정이 농촌의 본보기가정이라고 분에 넘치는 치하를 보내주시고는 그 이듬해인 1978년 1월, 평양에서 열린 전국농업대회에 그들 부부를 불러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박정국동무는 주석단에 앉히고 그의 안해 정연화동무에게는 토론도 시키시며 한가정에서 아홉식구가 프락포르운전수로 일하고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조선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며 바로 이런 영웅들이 있기에 우리 공화국이 왕성하고 강대하다고 그리도 자랑높이 말 씀하여주시였다.

한 가정의 소박한 소행을 《기계화가정》의 선구자가정으로 나라앞에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친히 선물로 프락포르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영웅으로 키워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푸시였다.

먼곳에 자식을 둔 친어버이심정이런듯 10여년 세월이 지난 오늘에는 그들 9명이 일하면서 배워 농기계기사로 되고 그 대렬이 14명의 프락포르운전수대가정으로 자란것이 못내 대견하고 기특하시어

높은 국가수훈과 함께 치하의 편지를 보내주신 어버이수령님.

위대한 력사는 걸출한 령도자에 의하여 창조되고 훌륭한 나라의 인재는 위대한 스승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키워지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어버이사랑과 위대한 스승의 자애로운 가르치심속에서 혁명의 진리를 배우고 인생의 참된 보람을 찾은 우리 인민이기에 이번에 농촌의 기계화, 혁명화, 인테리화 가정의 전형이며 농업근로자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로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뜻깊은 편지를 자신이 받아안은 믿음과 영광으로 가슴뜨겁게 접하였으며 새로운 희망과 결의에 충만되어있는것

이다.

어버이사랑과 위대한 스승의 그 품속에서 이제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는 얼마나 몰라보게 완성되어갈것인가.

하기에 나는 서부해안의 한끝에 자리잡고있는 여기 룡호벌에서 14명의 프락뜨로운전수들이 힘차게 울리는 기계화의 발동소리를 들으며 백배, 천배로 늘어날 당에 충실한 농촌핵심들의 대군단을 보며 사회주의농촌건설이 빛나게 실현된 조국의 래일을 확신성있게 그려보게 되는것이다.

농촌기술혁명수행의 이 영예로운 선도자들속에서 나의 현지체험도 풍만한 결실을 가져오게 되리라 믿어마지 않는바이다.

시가는 우리 시대의 영예

방금속

시가여!
우리 시대의 영예
네 한몸에 지냈거니
이제 노래하라 네가 안은 그 영광을

내 너와 함께
너와 함께 한생 걸어왔어도
미치 몰랐구나 시가여, 너로 하여
그처럼 내 그이 가까이 있음을

가슴 울렁이며 울먹이며
편지 구절구절 격동으로 새겨안은 시각
사랑의 뜨거운 분류가 온몸에 굽이쳐
진정할길 없는 이 시각

그이의 예지의 찬란한 빛발이
한줄기 내 뒤통에 비쳐드는듯
눈은 더 밝아지고
귀는 더 밝게 열리며

조국의 먼길도 혁명의 전도도 나는
당의 눈으로 아름답게 바라보아라
우주공간에 혼탁된 수천억 말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이 목소리만
나는 똑똑히 가려들어라

오, 포화속에 움터난
처녀병사의 소박한 꿈
귀중한 재능으로 꽃피주시려
이 손에 당의 붓을 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생의 끝까지 당의 기수로 삶을 빛내도록
세월에 묻혀있던
반백의 너전사를 다시 불러
영광의 대오에 세워주시고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로 믿으시는
크나큰 이 사랑

오, 시가여 운은 운마다 시구는 시구마다
장점으로 번뜩이라
당중앙프락의 정문보초 그만이 친위병이더냐
그 프락에 서있지 않아도 나는 사상의 정문보초
사상의 큰 대문 지키는 친위병 아니더냐

그리하여 시가여, 너는
친애하는 그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
영원히 나를 서게 해다오
후날에도 댜댜 후날에도
충실한 방조자로
그이곁에 나를 남아있게 해다오

특색있는 구성조직과 작가의 기교

백영철

작품에 심어놓은 종자를 형상적으로 꽃피워 의의 깊은 사상을 강조하려는 작가의 사상미학적의도는 구성을 합리적으로 특색있게 조직할줄 아는 세련된 기교가 없이는 원만히 실현될수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가 의의있는 종자를 골라잡았다고 하여도 그에 알맞는 구성을 세우지 못하면 작품의 사상을 명백하게 드러낼수 없다.》

작품에 설정되는 인물과 갈등, 사건과 같은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종자를 뚜렷하게 살리는데로 조화롭게 묶어세우는 기본형식으로서의 구성이 짝이지 못하고 유형적이며 도식적일 때에는 종자를 제대로 살려낼수 없으며 형상이 자기의 독특한 맛과 체취를 풍길수 없다. 더우기 하나의 사건과 짝막한 이야기를 통하여 성격을 창조하고 사상을 밝혀야 할 단편소설의 경우 특색있는 형상창조의 비결은 구성의 기교에 있다고도 말할수 있다.

작품의 구성은 작가의 개성적특성이 구현되는 예술적공간이다. 다시말하여 구성은 한 작품을 다른 작품과 구별짓게 하는 형식일뿐아니라 작가의 창작적개성이 구현되는 기본수단의 하나이다.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작가에 따라 그 구성형식이 달라질수 있다.

작가들이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의 요구와 시대의 미감에 맞는 구성형식들을 특색있게 살려쓰면서 자기들의 개성을 주장하고 빛내어나가는데 남다른 관심을 돌리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색있는 구성형식, 구성수법과 창작적개성의 밀접한 련관을 우리는 단편소설 《의리》(《조선문학》 1990년 4호)에서 보게 된다.

단편소설 《의리》는 현재와 과거의 생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문학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회상식구성법으로 하여 이채를 띠고있다.

이 소설은 구성조직에서 비약과 함축의 수법에 의거하고있다.

이것은 작가가 단편소설의 구성조직에서 독창성의 원칙을 구현한 동시에 자기의 체취에 어울리는 수법을 적용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단편소설 《의리》에서 비약과 함축의 수법이 어떻게 쓰이고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이 소설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군대가 발휘한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은 위대한 수령님과 전사들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가장 숭고하고 공

고한 혁명적의리에 있다는 의의깊은 문제를 형상적으로 밝히려 하였다.

혁명가들사이에 맺어지는 혁명적의리는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나선 사람들이 동일한 사상과 리념에 기초하여 참다운 동지적관계를 맺고 사상의지적으로,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그러므로 혁명적의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그 인간의 가치를 좌우하는 근본요인의 하나로서 주체의 인간학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된다. 혁명적의리가 있는 인간은 공산주의적혁명가로서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일수 있고 인간적존엄을 지켜나갈수 있지만 의리가 없는 인간은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참다운 삶을 옳게 누려나갈수 없다.

혁명적의리는 로동계급의 수령과 전사들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발현된다.

조선의 모든 혁명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받아안았으며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속에서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모두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정치적생명의 어버이이시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모두의 충실성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것이며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것이다.

그런데 우리 문학이 혁명적의리를 인간문제로 옳게 제기하자면 등장인물들의 호상관계와 그 생활을 혁명투쟁과정속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단편소설 《의리》는 바로 해방후 민주건설시기 정규무력건설과 조국해방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 인간의 의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우리시대 인간들의 인생관을 바로잡아주는데서 의의가 큰 작품의 하나이다.

단편소설 《의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71사사단장 박청덕사이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진 혁명적의리야말로 가장 숭고하고 공고한 의리로 된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밝히는데 적절한 구성수법이 탐구리용된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회상수법이 노리는 형상적효과를 옳게 리용하여 락동강에서 적들의 완전포위속에 든 이후로는 아직껏 생사여부를 알길 없는 71사단을 두고 크나큰 슬픔속에 계시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내면세계를 극적으로 깊이있게 펼쳐보이며 심각하고 격동적인 이야기의 흐름과 정서를 조성하였을뿐아니라 문화적이야기를 집약화하고 함축함으로써 구성의 간결성과 치밀성이 담보되도록 하였다.

이 소설에서 적용된 구성수법, 사건이 전개되고 발전하는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나는 생활을 회상하시는 형식은 무엇보다도 이야기줄거리를 놓고 수령님과 박청덕사이의 혁명적의리관계의 형성과 그 공고화과정을 밝히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고있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작품에서는 회상장면이 두번 펼쳐지는데 첫번째 대목에는 평화적민주건설시기 제1중앙군관학교를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학교 재직반에서 공부하는 박청덕에게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감격적인 이야기와 장군님의 그 믿음, 그 사랑속에서 련대장을 거쳐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사단장으로 임명된 청덕이가 장군님의 기대에 보답할 굳은 결의를 다지고 락동강전선에 진출할 때까지의 사실이 실려있다.

그런가 하면 두번째 대목에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적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하여 인민군사단들의 공격이 더 이상은 곤란하다는것을 헤아리시고 인민군사단들이 락동강에서 철수할것을 명령하시는 한편 71사단장 박청덕에게는 152.2고지에 그대로 남아있어 현재 붙잡고있는 적들을 끝까지 묶어두어 락동강에서 아군주력부대들의 퇴각을 엄호할데 대한 다른 명령을 하달하신 사실 그리고 71사가 적들의 완전포위속에 들어 원형방어로 이전한 다음에는 영영 소식이 없다는 사연이 담겨져있다.

작가는 이와 같이 회상수법을 통하여 해방후 민주건설시기부터 조국해방전쟁 제2계단이 시작될 때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장군님과 박청덕사이의 혁명적의리관계를 간절하게 보여주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생동한 생활화쪽으로 보여주고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청덕의 투쟁과정은 그가 장군님께 올린 5통의 편지와 전선에서 최고사령부로 날린 무전문으로 문학적여야기를 함축하고 비약하였다.

이것은 작가가 단편소설의 구성조직에서 작품의 주제와 생활소재의 특성과 단편의 특성에 맞게 비약과 함축의 수법을 옹계 적용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만일 작가가 이 소설에서 비약과 함축의 수법에 의거하지 않았더라면 어려해동안 위대한 수령님과 박청덕사이에 있었던 혁명적의리관계를 단편이라는 작은 그릇속에 다 담지 못했을것이다.

정창운은 이 소설에서 사건이 절정에 이르렀다가 해결로 넘어가는 과정도 비약의 수법에 의거하고있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작품의 절정부분은 조국해방전쟁을 지켜보고있는 많은 나라 군사통신들이 71사단이 영영 소멸된것으로 보고있기때문에 71사단이 살아서 싸우고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시위하기 위하여서는 새로 조직되는 사단에 71사의 명칭을 주는것이 좋겠다는 총참모장의 제의를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부정하시는 대목이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새로 조직되는 사단은 작전에비대로 돌리고 사단명칭은 조선인민군에 없었던 새 이름을 달자고 하시며 멀지 않아 제2전선에 파견된 사단들로부터 박청덕과 만났다는 소식이 올 것이며 71사단은 지금 적후에서 싸우고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박청덕동무를 나자신처럼 알고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152.2고지에 남기지부터 앉았을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기대에 충실히 보답하였습니다. 71사단의 덕분에 락동강전선에서 조선인민군 주력사단들이 안전통로를 얻어 무사히 철수할수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존심의 시위보다는 의리를 중히 여길줄 알아야 하는것이 우리들이라고 하시며 박청덕과 그의 사단의 영웅전사들이 우리에게 대한 의리에 충실하였던것처럼 우리들 역시 그들에 대한 의리를 잠시나마 잊어서는 안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락동강전선에서 조선인민군 주력사단들이 무사히 철수하는 동안 152.2고지를 튼튼히 지킬데 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끝까지 집행한 박청덕과 71사단의 병사들의 생사여부를 아직은 모른다 해도 그들에 대한 의리를 잠시나마 잊어서는 안되며 그들이 남긴 위훈을 후손들도 알도록 해야 한다고 하신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은 독자들의 심장을 얼마나 뜨겁게 울려주는가.

독자들은 여기서 군관학교시절에 《우리 군관학교 학생들은… 장군님의 아들이 되어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목숨이 다할 때까지 보답할 각오속에 살고있습니다.》 라고 한 박청덕의 말을 고맙게 여기시고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자신께서는 아버지가 되고 학생들은 아들이 되어 서로 믿고 의지하자고 하신 말씀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한 의리를 귀중히 여기시는 그이의 고매한 품모를 감득하게 된다. 우리는또한여기서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하는것을 숭고한 의무로 여기고 영웅적인 투쟁을 벌리는 인간만이 삶의 참된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것을 체득하게 된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이처럼 박청덕과 그의 사단 영웅전사들에 대한 믿음을 또다시 주신 바로 그때로부터 3일후에 제2전선의 최현장령으로부터 보내온 무전보고문과 그에 대한 반향은 작품의 해결부분으로 된다.

《3일후에 제2전선의 최현장령으로부터 보내온 무전보고문엔 이런 구절이 있었다.

〈71사단은 건재함. 그동안 적후에서 잘 싸웠음. 사단장 박청덕은 부상당하여 담가우에 실려다니면서 전투를 지휘하였음. 나의 이 전문을 지체없이 최

고사령관동지께 올릴것.)

최고사령부의 모든 군관, 하사관, 병사들이 명절처럼 흥성거렸다. 어데서나 71사단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이런 시각에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부관을 부르시였다.

〈이제부터 나도 한시간쯤 눈을 붙이겠소. 지금이 3시요. 그러니 4시까지요.〉

그러시고는 작전대에서 물러나시였다.》

이처럼 작가는 비약의 수법으로 구성조직, 해결부에 대한 예술적처리를 함축성있게, 간결하게 하

고있다.

작가는 이러한 구성수법을 자기의 작가적체질에 맞게 적용하면서 작품에서 제기한 문제해명으로 형상을 집중시키고 인물들의 운명선도 진실하고 간결하게 보여주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단편소설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구성수법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문제점을 명백히 하면서도 구성의 간결성과 치밀성을 보장함으로써 자기의 개성적면모를 뚜렷이 해야 할것이다.

온 마을, 온 나라가

인 훈

새벽안개 흐르는
지평선 저 멀리
발동소리 고르로이 울릴 때면
그것이 만형인줄 다 알고

한밤의 고요를
흔들어 깨우며
발동소리 기운차게 울릴 때면
그것이 막내인줄 다 알더라

한어머니 슬하에서
한가마밥을 먹으며 자라난 형제들
그 목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줄 아는것처럼

다 알더라 온 가정이
발동소리 듣기만해도
그것이 셋째인지
넷째인지

한두해만이 아닌
한생을 이렇게 벌에 살며
곳은 날 곳은 비 가림없이
울러오고 울려가는 발동소리

이제는 온 마을이 다 알더라
집집에 귀익은
제 식솔의 발자국소리처럼
그것이 딸인지
사위인지

포전의 귀잡이까지
말끔히 갈아엎은것을 볼 때면
사람들은 말하더라
말머느리의 착실한 그 마음이라고

꽤기발들을 폭폭 갈아엎으며
넓혀간 포전에 들어설 때도
사람들은 말하더라
만사위의 그 벌찬 일숨씨라고

그러하더라
멀리 가까이 발동소리 울릴 때면
온 벌이 받아의우고
온 하늘이 따라외우더라

열네식구가 울리는
프락또르의 그 발동소리는
우리 당을 받드는 한길에서
기계화대가정이 부르는
충성의 노래가 아니더냐

그 소리를
우리 수령님 제일 사랑하신다
그 소리를
우리 수령님 제일 듣기 좋아하신다
벌을 흔드는 발동소리
종합적기계화의 발동소리
사회주의를 꽃피우는 발동소리

한가정만이 아니였구나
한마을만이 아니였구나
우리 수령님 수십년세월 들어주시고
치하의 편지를 보내주시였으니

봄이 부풀은
이해의 이 봄날
하늘땅을 흔들며
룡호벌에 울리는 그 프락또르의 대합창에
온 나라가 따라섰구나
온 나라가 심장을 합치는구나

사 랑

류인옥

새삼스럽게...

아직 이렇다할 생활체험도 없는 처녀인 내가...

제목을 써놓고보니 이런 생각이 든다.

전설로, 시와 노래로, 소설과 영화로...

이 땅에 아직 언어가 없던 원시사회로부터 만리창공에도 인공위성이 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력사에 비례하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그 얼마나 많았던가.

하지만 한가슴에 묻고서는 도저히 새기지 못할 사랑의 이야기가 나에게도 있는데야...

나는 당보를 통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회답서한을 받아안았다. 눈으로 읽기전에 십장으로 새긴 글발!

핑- 눈시울이 젖어든다. 가슴속에 흐르는 뜨거운 피의 전류...

축원의 인사를 아직 드리지 못한 이 나라의 작가들에게 그이께서 보내주신 축하의 설인사!

읽고 또 읽어도 더 읽고만싶어 구절구절 뇌리에 새기고 심장에 간직한 그이의 회답편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아직은 문학의 초학도인 나에게도 은혜로운 사랑을 안겨주셨다고 생각하니 이 가슴에 부푸는 걱정을 잠재울길 없다.

낮에는 아이들속에 파묻혔다가도 밤이면 탁상등을 벗삼아 글을 쓰노라고 모대기는 나를 보고 누구인가 물은적 있다. 시키지도 않는 일을 어찌면 그리도 아글타글 하는가고.

내가 빙그레 웃자 그는 덧불였다.

취미와 열정이 있어야 글을 쓴다고.

그렇가?

어쩐지 부족한 대답같았다.

파란 책가방을 어깨에 달랑이며 자모표를 외우던 인민학교시절의 어느 국어시간, 나는 짧은글을 잘지었다고 선생님께서 가슴이 빠근하도록 칭찬을 받은적 있다. 그 칭찬에 떠받들려서인지 나는 어려서부터 무엇인가 써보고싶었다.

철이 들어가면서 나에게도 주위를 둘러보는 눈이 생겼다.

행복하게도 나의 학창시절은 아버지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사랑의 발자취가 스민 학교에서 흘러갔다.

전후복구건설시기 강재 1만톤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말씀하시며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아버지원수님께

서는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과 함께 평양시 교외의 우리 학교건설장을 찾아주시였다.

준공날은 눈앞에 다가왔으나 벽체는 설계도의 아래계선에 머물고있었다.

벽돌 한장, 세멘트 한줌이 귀하던 때였다.

건설장을 구석구석 돌아보고나신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내 생각에는 지금 형편으로 보아 그때까지 될것 같지 않은데 동무들이 그때까지 준공된다고 하면 어린 학생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씀하시였다.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던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아이들에게는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고 하시며 처음에 정한 날까까지 해보는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학교를 떠나시였다.

머칠후 우리 학교건설장으로는 세멘트며 벽돌, 목재 그리고 책걸상을 가득 실은 자동차들이 줄지어 달려왔다. 아버지원수님의 사랑을 싣고...

배움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날은 바로 아버지원수님께서 지켜주신 약속날자였다. 그날부터 내 마음속에는 생각이 깊어갔다.

어느날 나는 선생님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 학교에 대한 작품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학생이 어서 커서 꼭 써요.》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던 선생님의 다정한 목소리, 녀원이 어렸던 그 눈빛은 나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재미로 펜을 달리던 나에게도 의무감이 저도 모르게 자라고있었던것이다.

필봉으로 은혜로운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시대의 가수가 되고싶은 나였다.

깊은 밤 나를 창작의 세계에로 떠밀어준것은 누구나 다 글을 쓰도록 이끌어주는 당의 은정이였다. 그 사랑아래 나는 미숙한 작품이나마 한편 두편 가꾸어나가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회답서한 그것은 나에게도 안겨준 또 하나의 사랑의 세계이다.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

그이께서는 우리 시대의 문필가들을 사랑의 절정에 높이 세워주신것이다.

이 세상 끝이라도 함께 가자고 불러주신 그 이름-동행자! 방조자! 조연자!

아, 이 믿음!

그렇다. 세상의 모든것을 다 주어서 사랑이 아니

다.

믿음을 떠난 사랑이란 주춧돌없는 기와집의 추녀라고 생각한다.

나는 문학의 초학도이다. 푸른 꿈을 실은 나의 배는 대하의 첫 기슭에서 닻을 올리고있다.

하다면 어찌하랴.

세월의 한끝에 가도 영원할 믿음을 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의 품에 안겼으니 그품에 만발하는 우리의 주체문학이 향기그윽한 꽃바구니라면 나는 창작의 푸른 싹을 한잎, 두잎 피우며 피어나는 한떨기 꽃!

나의 배는 가리라. 대하로 대하로...

아, 행복, 이것이 바로 행복이 아닐가?!

사건의 풀이로는 이름할수 없는 우리 시대의 행복!

이 행복의 주인공인 나는 행운아!

어느덧 귀머리 회여졌을 옛담임선생님앞에 다진 붉은 넥타이시절의 그 약속은 아직도 나에게 초고로 남아있다.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화폭으로 묘사하기엔 나의 펜이 너무도 가볍고 필력이 무딘탓이다.

하지만 나는 선생님께 나의 작품을 보낼 그날이 꼭 오리라고 확신한다.

나에게 이미 취미나 기호가 아닌, 순수한 열정이 나 탐구만이 아닌 또 하나의 세계가 있지 않는가.

샘물처럼 마를줄 모르는 창작의 힘을 주고 나래를 달아주는 믿음으로 뜨거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의 품!

나는 다시금 그이의 회답서한을 읽어본다.

그러면 부드러우면서도 활달한 필체속에 자애로운 그이의 영상이 어려온다. 따뜻하신 음성을 나는 듣는다.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가 되라!-

바란다고 해서 받아안을수 없는 이 사랑에 보답의 꽃다발을 엮어드릴 마음을 다지며 나는 말하고 싶다.

사람들이여!

가장 위대하고 정녕 아름답고 진정 순결한 사랑의 세계를 찾으시려거든 주체조선으로 오시라!

이 땅의 문필가들을 찾으시라!

통일거리 출근길

조영식

길에 나서니

태양은 하늘에 웃고

출근길 즐거운 사람들

눈길은 정답게 웃네

어서오라 축하의 노래불러

방송차는 땅우에서 부르고

반기듯 다가올듯

기증기는 하늘에서 긴팔을 젖네

싱싱한 대지의 상쾌함이어

약동하며 일떠서는 평양의 새 거리여

뜸뜸한 지원자들의 물결속에

결음도 가벼운 정겨운 아침이어

어서가자 통일거리 건설장으로

거기엔 건설자가 따로 없네

통일이 그리워

통일이 귀중해

거기선 《통일의 꽃》 수정이와

헤어져 그리운 정 얼얼해

대학생도 예술인도 군인도

후더운 마음속에 일손을 잡고

사랑의 언약도 인륜대사도

통일거리 새집들이 그날에 정하고

출장길 들려가고 휴가길 이어가는

애국의 피, 더운 피 뿜어넘치나니

오, 통일거리 출근길은

온 나라가 가는 길

백두에서 한나로 하나의 길 열고저

우리 당 결심 받들어 나아가는

통일의 대행진이라네

섬에서 만난 청년

김 길

사람이 한생을 살거나면 누구에게나 하고싶은 이야기가 많아지는 법이다.

나역시 그러하다.

나는 지질학에 한생을 바쳐왔다. 이제는 인생의 질은 황혼기, 한생을 살아가는동안 많은 이야기를 해왔다. 주로 지질학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이번만은 지질문제가 아닌 좀 류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하긴 이 이야기도 땅과 관련되니까 결국은 지질학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다.

작년에 나는 예수를 넘긴 나이로 압록강하구의 비단섬에서부터 웅진반도의 돌섬에 이르기까지 서해의 크고작은 모든 섬들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내가 인생의 황혼기에 조련치 않은 이 편답의 길을 떠난것은 이미 세상에 내놓은 몇몇 저서들의 약점을 극복하고 빈구석을 메꿈으로써 조국과 후대들 앞에 진 학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만족을 가지고 싶었기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인생말년에 벗들의 만류와 우려를 뿌리치고 서해안 섬들에 대한 현지조사의 길에 나섰으며 이 길에 외동딸까지 데리고 나섰던것이다. 내가 딸을 데리고 나선것은 물론 조수적으로 데리고 나섰지만 실은 내뒤통을 잇도록 딸자식에게 지질학을 공부시킨 이상 그도 조국을 아는 참된 지질학자로 키우고싶은 욕망에서였다.

내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바로 우리 지질연구소 현지조사단일행이(일행이라야 나와 딸 은혜가 전부였지만) 돌섬에서 겪은 일이다.

×

돌섬은 웅진반도의 옥포앞바다에 홀로 떠있는 작은 무인도다. 넓이는 기껏해서 두평방키로메터 남짓하고 온통 돌바위투성이여서 나무 한대 변변히 자라지 못하는 섬이다. 그래서 보통 지도에는 표시도 되지 않고 세밀한 군용지도래야 바늘끝만한 점으로 표시되는 정도다. 것처럼 너무도 작고 쓸모없는 섬이여서 나는 이전에 서해지구를 편답할 때 가보지도 않았고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지질도에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길에는 중요한 조사대상의 하나였다.

우리가 양식장으로 나가는 배편으로 돌섬에 도착한것은 해가 퍼그나 떠오른 늦은 아침이었다.

그때까지도 섬은 뽀얀 젓빛안개속에 포근히 파묻힌채 세상모르고 꿈속을 헤매는듯 했다. 고요한 바다는 다심한 어머니의 손길마냥 잔잔한 물결로 잠든 섬기슭을 다정히 쓰다듬어주고있었다.

무인도는 우리를 너무나도 무정하게 맞아주는듯 했다. 파도소리, 물새들의 울음뿐... 크게 소리라도 쳐서 깨치고싶은 적막이었다.

이 돌섬에 인간은 우리 둘뿐이라고 생각하니 어쩔수 없는 고독이 가슴속을 짝 채웠다. 무인도마다에서 느껴지는 고독감이지만, 어쩐지 이 돌섬에서 느껴지는 고독감은 더한듯했다.

우리는 기슭에서 좀 올라가 덩실한 마당바위옆 모래밭에 천막칠 자리를 잡았다.

8월의 폭양을 피해 북쪽기슭에 자리를 잡고싶었으나 그래도 물의 인가가 마주 바라보이는 동쪽기슭이 고적하기가 한결 나을것 같아 여기에 자리를 잡고말았다.

나는 뽀뽀 뭉었던 휴대용천막을 풀었다. 은혜는 보병삽으로 자리를 손질했다.

한창 천막치는 일을 다그치고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자갈 무너져내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의 잔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나와 은혜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웬 사람이 돌사태에 미끄러지며 허겁지겁 우리쪽으로 달려내려오고있었다.

《?!...》

의혹과 놀라움이 순간적으로 뇌리를 쳤다.

《우리한테로 와요. 이 무인도에 무슨 사람일까요?》

은혜는 몹시 놀라운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글쎄말이다. 아마 이고장 수산협동사람이겠지.》

이 무인도에 우리 말고 또 한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의혹과 놀라움을 밀어내고 반가움을 자아냈다.

그는 우리곁으로 다가왔다. 청년이었다. 땀이 번지르르한 그의 얼굴에는 노상 환한 웃음이 넘실거렸다. 그는 반가움에 찬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며 먼저 입을 열었다.

《야 이거, 어디서들 오셨습니까?》

《평양에서 왔습니다.》

《평양에서요?! 정말 반갑습니다. 전 이 섬에 삽니다. 함농석이라고 합니다.》

《알게 되어 반갑소. 난 지학민이라구 하오. 이엔 내 딸이구.》

결에 서있던 은혜가 얼굴에 홍조를 띠우며 청년을 향해 머리를 숙여보였다.

비록 수수한 작업복차림에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지만 은근하면서도 세련된 은혜의 인품앞에서 청년은 몸둘바를 몰라하는 눈치였다.

《그런데 무슨 일로 이렇게...》

《우리는 지질연구사들이요. 이 섬을 좀 조사해보자구 하오.》

《아 그렇습니까? 아무렴 조사해야지요. 이 섬이야말로 꼭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은 선망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돌섬에 사람이 살다니?... 정말 뜻밖이다.

여기서 뭘하는 청년일까?... 생각할수록 수수께끼같은 청년이었다. 나는 새삼스러운 눈으로 청년을 바라보았다. 첫인상에도 매우 푸짐종교 활달하다는 인상은 제외하고라도 후리후리한 키에 짙 버그러진 어깨, 어글어글한 눈과 우뚝한 코가 사내싸게 생겼다. 모표자리가 뚜렷한 여름 군모채양말로 굵실한 머리칼이 한오름이나 빠져져나와 흰칠한 이마를 절반쯤 덮고있는 모양이 인상적이었다.

제대군인이라는것이 직감적으로 알렸다.

청년은 호기심이 어린 눈길로 은혜를 슬쩍 훑쳐보았다. 그리고는 인차 나에게로 눈길을 돌리며 입을 열었다.

《저... 이러지들 마시구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요 코숭이를 돌아 남향반이에 있습니다.》

청년은 손을 들어 앞 절벽쪽을 가리켰다.

《고맙네. 우린 하루밤쯤 묵으면 되네. 괜히 폐를 끼칠게 있나.》

나는 청년의 친절을 굳이 사양했다. 좀 피백한 성미인 나는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라면 아예 질색이었다.

《원 페라니요? 별 말씀을... 아 우리 섬에 오신 귀한 손님들인데 그러시면 이 주인이 웅색하지 않습니다까. 자 어서...》

그래도 종시 웅하지 않자 청년은 섭섭해하는 표정이더니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우리 일을 도와나섰다.

《동문 여기서 무슨 일을 하세요?》

조립식으로 된 천막기둥을 붙잡은 은혜가 삼질을 하는 청년에게 조심히 물었다.

《농사군이 뭐 다른 일할게 있습니까. 농살 짓지요.》

청년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농살요?... 무슨 농사를?...》

나는 한쪽에서 뒤집힌 천막을 바로잡으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감농사를요.》

《감농사요?! 아니 땅이 없어서 이런 바위투성이 섬에 감나무를 심습니까?》

《땅이야 있지요. 그러나 여기도 우리 고향땅입니다. 내버려둬서야 안되지요.》

청년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공공 삼질을 했다.

《호호...》

은혜는 뭐가 그리 우스운지 입을 싸쥐고 호들갑스럽게 웃었다.

《왜 웃습니까? 괜한짓같아보입니까?》

청년은 놀란 기색으로 나와 은혜를 번갈아 찍어보았다. 눈길이 끊지 않은결로 보아 은혜의 웃음에 모욕감을 느낀것 같았다.

은혜는 그 눈길에 기가 질린듯 잦아드는 목소리로 말끝을 얼버무렸다.

《아 아니, 그저...》

나도 이자리에서 청년의 일을 긍정해야 할지 아니면 부정해야 할지 아직은 뭐라고 말할수 없는 심정이었다. 흙이라곤 애써 찾아봐야 조금씩 있는 이 번번한 돌섬에서 감농사를 한다? 믿자고 해도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았고 허망하게만 생각되었다. 어떻게 보면 청년이 꿈속에서 동화세계를 헤매는 랑만적인 공상가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달리 생각되는 점도 있었다. 저런 피끓는 청년이 이 외진 무인도에 와서 일판을 벌렸을 때는 다 타산이 있고 토론이 돼서 하는 일이었는데 괜히 남의 제상에 감나라 배나라 할것이 없지 않은가?

청년이 말했다.

《그러니 선생님들도 역시... 안되겠구만요.》

그리고는 손뭍 풀리는듯 삽자루를 놓고 저쪽에 가서 바위우에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쉼쉴 내쉬었다.

청년이 그렇게까지 나오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한 나와 은혜는 그만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은혜는 미안해서 얼굴까지 다 빨개졌다.

《아니, <안되다니?...> . 그건 무슨 소리나?》

나의 물음에 청년은 심사가 뒤틀린 대답을 했다.

《그래두 전 지질학자선생님들이라면 누구보다 우리 조국땅을 잘 아시는분들이거니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쨌다는거예요?》

은혜가 낮으나 날이 선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청년은 집어던지듯 툭 내쏘았다.

《아니 뭐라고요?!...》

은혜는 억이 막힌듯 더 말을 못하고 가슴만 높이

오르내렸다.

생각하니 나도 어이가 없었다. 불쾌한 감정이 은근히 가슴속을 휘저어놓았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다. 젊은 혈기니 그럴수 있다고 자신을 먼저 납득시켰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색한 침묵이었다. 무인도에서 사람을 만난 반가움으로 해서 화기에 넘치던 분위기는 순간에 불꺼진 화독처럼 썩늘해지고 말았다.

더는 그대로 앉아있을수가 없었던지 자리에서 슬며시 일어난 청년은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이거 초면에 안됐는데…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청년은 자리를 떴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머리를 지수곳이 숙이고 모래판에 발자국을 푹푹 찍으며 기슭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청년이 도래굽이를 돌아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며 생각했다. 그 참 별난 젊은이로군.

천막을 치고나니 어느덧 중낮이 되었다.

나는 하루이틀 묵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것저것 잔손질을 더 하고나서 천막을 나섰다. 섬을 돌아보아야 했다.

철썩이던 바다물은 어느새 다 나갔다. 시꺼멓게 드러난 개바닥에서는 물안개가 물물 피어올랐다. 오구구 기여나온 계들은 해빛조임에 여념이 없더니 인기척이 나자 기겁해서 바그르 기여 제구멍에 몸을 숨겼다.

불비가 쏟아져내리는 무더운 날씨가 섬은 선선했다.

나는 지질망치를 지팡이삼아 짚고 파도가 다져놓은 탄탄한 모래판으로 천천히 걸었다.

어쩐지 가슴이 뻘뻘해지고 흥분이 저절로 부풀어 오른다. 그것은 아마 고생 끝에 락이 온다고 어려운 이 편답의 길이 이제 종착점을 가까이 하고있기때문인것 같다. 이제 며칠 안있어 석달째 계속해온 서해안 섬들에 대한 우리의 현지조사사업은 끝난다. 그러면 한생을 지질학에 바쳐오는 나로서는 이미 내놓은 저서들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던것을 다 메꿔놓는 셈이다. 그리고 조국의 경제는 과학성이 보다 담보된 새로운 광물자원을 보충받게 될것이다.

마음이 흐뭇해진다. 나는 이따금 지질망치로 도래굽이 바위너설을 깨보며 천천히 섬등성으로 올랐다. 돌 하나 풀 한포기라도 놓칠세라 직업적인 눈길로 잔잔히 살폈다.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진달래며 개암나무, 속새풀, 엉겅퀴, 바다쭈 따위들이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그것들은 석비레땅과 바위짜에 용케도 뿌리를 박고 그 소박한 모습으로 돌섬의 풍치를 돋구어보려

고 무진 애를 쓰는듯했다.

막바지를 뚫아오르자니 숨이 차올랐다. 심장은 젊지 않음을 일깨워주는듯 가슴벽을 마구 두들겨댔다. 간신히 섬등성이에 올라 잠시 숨을 태우고 사방을 빙 둘러보았다.

돌섬은 호수가운데 외롭게 떠있는 하나의 작은 나무잎 같았다.

사방을 둘러보던 나는 돌섬을 지켜선 두 보조병 마냥 우뚝 서있는 쌍바위에 눈길을 박았다. 거기서 난데없는 연기가 모록모록 피어올랐던것이다. 모닥불을 가운데 놓고 앉아있는 두사람이 보였다.

은혜와 아까 만났던 그 청년이었다.

그제야 나는 이 무인도에 우리 말고 또 한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청년한테서 모욕을 당한 일이 상기되었다.

(뭘, 우리가 조국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다. 한생을 조국의 재부를 늘리기 위해 성실하게 일해왔다고 나는 자부한다. 그 길에 지식도, 재능도, 열정도, 탐도 깡그리 바쳐왔다. 그런데 내가 조국땅을 잘 모른다는 소리를 이 돌투성이의 작은 섬, 사람들의 관심밖에 버림을 받아온 섬에서 그것도 생면부지의 젊은이한테서 듣게 되리라고는 차마 상상 못했다.

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젊은이가 생각 없이 한마디 던진걸 가지고… 늙으면 노여움이 많아진 다더니…

나는 잡생각을 밀어버리고 은혜와 청년이 있는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니, 이거 무슨 구멍이려?)

눈앞에는 줄을 맞춰 파놓은 큼직한 구멍이들이 나타났다. 직경이 서너미터가 잘되고 깊이가 거진 한길이나 되여보였다. 많지는 않았다. 세여보니 열한개였다. 파놓은 구멍이들에 어어서 7~8미터간격으로 하얀 형질을 매단 막대기들이 나란히 서있었다. 그것은 이제 구멍이를 팔 자리인듯싶었다.

절반쯤 파다가만 구멍이안에는 곡괭이와 삽, 정대, 쇠메 등이 있었다. 아마 청년이 방금전까지 여기서 일한 모양이다.

파던 땅을 살펴보니 푸석돌층과 석비레로 된 굳은 땅이었다.

(여기다 감나무를 심는단말이지… 뭘가?… 혼자서 이렇게 파가지고 어느 세월에?)

고생을 사서 하는것만 같았다.

나는 청년에 대한 생각을 굴리며 남향반이 골짜기로 내려갔다. 삼치안처럼 움푹한 기슭에 한채의 집이 있었다. 작으나 알뜰하게 꾸린 집이었다. 청년의 집이 분명했다. 마당에는 철봉대도 있었다.

놀라운것은 집옆에 선 푸르싱싱한 한그루의 감나무였는데 신기하게도 몇알의 감이 달려있었다. 밑등에는 하얗게 회칠을 하고 조약돌과 조개껍질로 장식까지 알뜰하게 해놓았다. 모든것이 집주인의 간진 솜씨를 그대로 말해주는듯했다.

집주위를 돌아본 나는 다시 감나무곁으로 다가갔다. 이 돌섬에 감나무가 자란다는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청년이 여기에 감나무동산을 꾸리겠다고 결심한 것도 필경 이 감나무가 동기로 되었으리라...

나는 발길을 돌려 집앞으로 내려갔다. 바다기슭과 잇닿은 약간 넓을사한 모래판공지가 있었다. 거기에는 세더미의 부식토가 덩실하게 무쳐있었다. 두더미는 개바닥흙으로 매끈하게 매질까지 해놓았다.

이 돌섬에서 부식토란 약에 쓰자고 해도 구하기 힘든데 이걸 다 어데서 장만했을까?...

청년의 수고가 헤아려졌다. 보통 결심으로 접어든 청년이 아님이 느껴졌다.

나는 다시금 집이며 감나무며, 부식토더미들을 의미심장한 눈길로 둘러보고 발걸음을 옮겼다. 은혜와 청년이 있는곳으로 다가갔다.

둘은 이따금 불무지에 얼굴을 대고 후후 분다. 연기는 갈피를 못잡고 오락가락한다. 은혜쪽으로 더 많이 쏠린다. 한손으로는 눈을 비비고 다른 한손으로는 연기를 쫓으며 꺾꺾거리는 은혜가 더 우습다. 더는 못견디겠는지 은혜는 앉은 걸음으로 연기를 피해 자리를 옮긴다. 그러는 은혜를 슬그머니 훑쳐보는 청년의 얼굴에는 웃음이 한껏 넘실거린다. 그는 모닥불속에서 짝 버그러진것을 집어내어 은혜앞에 내민다.

《자, 잡쉴보십시오.》

《동무도 드세요.》

둘은 오손도손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불속에서 잘 익은 조개를 꺼내어 주거나 받거나 맛있게 먹는다. 얼굴들에는 장난꾸러기 아이들처럼 검댕이 투성이다. 서로 보고는 웃는다. 그리고는 집어먹는다. 바라보고는 또 웃는다.

(히, 판이 괜찮은걸...)

그들은 내가 다가서는것도 모르고 조개청대에만 정신이 팔려있었다.

《에헴!》

나는 헛기침을 했다.

둘은 흠칫했다. 나를 바라보며 어쭙게 웃는 두 얼굴에는 미안해하는 기색과 부끄러워하는듯한 얇은 미소가 한데 엉켜 가볍게 물결쳤다.

《어서 오십시오.》

청년이 인상 좋게 웃으며 나를 청했다.

나는 그들이 무안해하는것 같아 스스럼없이 다가앉으며 제일 큰 대합하나를 골라들었다. 처음먹어보는것은 아니였지만 조개청대는 역시 별맛이었다. 손들이 연방 조개를 집어갔다. 두서없는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나의 출현으로 다소 어색해졌던 분위기는 다시 자연스러워졌다.

청년은 화제를 자기 문제로 이끌어갔다.

《선생님, 제가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객관적으로 평가해주시지요.》

《객관의 평가가 무슨 필요있다. 이 섬의 주인인 젊은이가 기본이지.》

《하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적련대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제적련대성이라... 허허... 그러니 반대파가 많은 모양이군.》

《많기야 뭐. 있긴 있었지요. 하지만 고집불통인 우리 관리위원장아바이까지두 이젠 말려들었는걸요. 해볼바엔 여기다 뭐 농민휴양소까지 생각해보라나요. 나는 그러마고 약속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한다구말입니다.》

《정말 농식동무의 구상이 대단해요!》

은혜가 불쑥 말참네를 했다.

나는 아무 말도 안했다. 선뜻 속을 내비치고싶지 않았다.

청년은 제흥에 겨워 성수가 나서 말을 엮어나갔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감나무숲속에 농민휴양소... 정말 리상적이지요? 그땐 아마 이 돌섬의 이름도 달라져야 할겁니다. 감섬이나 보배섬이라구 말입니다. 그럴바치군 지금 선생님들이 준비하시는 새 저서에 아예 그렇게 쓰는게 어떻습니까? 제 장담하구 해놓겠습니다.》

허구쁜 웃음이 나왔지만 나는 참았다. 뜻밖에 돌섬에 대한 기록문제가 화제에 오르는통에 나는 그만 심중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내가 젊은 시절에 쓴 어느 한 론문에 이 섬에 대한 기록을 바로 그렇게 했던것이다. 경제적가치가 없는 섬이라고...

나는 아까처럼 불쾌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극력 조심하면서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나의 침묵은 결국 청년의 마음을 자극했음이 틀림없었다.

청년은 놀란듯 입을 열었다.

《아차! 내 정신 봐라.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더니...》

청년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더러 실컷 조개청대를 하라 하고는 구멍이 파던데로 갔다.

나와 은혜는 불무지를 마주하고 앉아 조개를 구

왔다.

《아버진 저 청년의 일에 믿음이 안가요?》

은혜가 떠보듯 조심하 물었다.

《너는 가느냐?》

《전 어쩐지 믿고싶군요.》

《허허허...》

나는 어처구니없어 크게 웃었다. 나의 웃음소리를 무시하듯 바위를 때리는 청년의 함마질소리가 쩍쩍 울려왔다.

오후에 암석시료를 채취했다. 표층의 바위들을 뜯어다가 분석작업을 하는중에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졌다. 바다물은 다시 돌섬을 둘러싸고 해는 푸른 바다속에 잠자리를 마련하려는듯 석양에 금빛잉어의 비늘처럼 반짝거리는 바다를 이윽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리는 일손을 다그쳤다. 암석채취를 끝내고는 토양시료뜨기에 달라붙었다. 섬에 흙이라고는 우리가 자리잡은 맞은편 기슭 흙타구니에 조금 붙어있는것이 전부였다. 파도가 살아내여 움푹하니 패인 데서 우리는 흙을 파냈다. 은혜는 흙태기안에서 땀을 흘리며 삽질을 했다. 흙태기앞에는 흙이 무드기 쌓였다.

처음엔 갈색사질토가 나오더니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누런 점토가 나왔다. 그것은 나를 저속 놀라게 하였다.

《애 이게 어찌된 일이나?》

《뭘 말이에요?》

은혜가 좁은 구덩이속에서 허리를 펴며 울려다보았다.

《여기 토층이 옥포진등하고 다르니 말이다.》

은혜는 눈을 찌먹거리며 기억을 더듬더니 손등으로 이마우에 드리운 머리카락을 쓸어올렸다.

《하긴 그렇군요. 거긴 이만한 깊이에서 화강편마암이 나왔어요.》

《그러기 말이다.》

나의 견해에 의하면 이 섬의 토양구조가 화강편마암우에서 발달한 모래땅이어야 했다. 그것은 섬이 태고적인 옥포진등과 한지맥으로 연결되어있다가 시생대 지각운동으로 내려앉으며 바다에 잠기었으므로 토양구조가 갈을것이라고 보았기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조사결과는 옥포진등의 토양자름면과는 전혀 다른, 석회암의 부식으로 생겨난 붉은 찰흙이 나온것이다. 그렇다면 이 돌섬지역은 시생대자각운동으로 내려앉은 옥포진등의 지맥이 아니었던 말인가? 나는 내심 당황하기까지 했다. 그럴수밖에 없는것은 이전에 내가 발표한 몇몇 논문의 착오가 부정할수 없는 현실로 증명된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애써 랭정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며 딸

에게 물었다.

《그래 너는 여기 토양구조가 옥포진등하고 다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느냐?》

은혜는 흙을 한웅큼 쥐여 비벼도 보고 주변의 바위며 멀리 바다건너 물의 산세들을 살펴보기도 하며 오래동안 생각에 잠겨있더니 마침내 말했다.

《제생각엔 이 섬지구가 신생대 3기 하니까 태평양운동시기에 내려앉았다가 습곡운동으로 다시 솟아오른 마지막 <배사> 구역이 아닌가 해요. 아마 그때 엮은 화강편마암층을 그밑에 있던 석회암층이 떠밀고 올라오다가 여기 지표면에 거의 이르러 운동이 끝난것 같아요.》

은혜의 말을 들으며 나는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추리인즉 내 추측과 신통히도 같았던것이다.

《네 생각이 옳은것 같다. 좌우간 팔수 있는것 좀더 파보자.》

거의 두메터가량 파본 결과 석회암층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으로 은혜의 추리가 완전히 옳다는것이 증명되었다. 결국 이 섬은 옥포진등과 한지맥으로 연결되어있으면서도 지질구조에서는 전혀 같지 않은, 쇄불이에 은도금을 한것처럼 표층은 화강편마암이나 그 속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특이한 지질구조를 가지고있었다.

《사실은 이런데 나는 그저 옥포진등하구 갈을것이라고 단정해버렸으니 ...》

부끄럽다고 하기에는 착오의 성격이 너무도 심해서 나는 그 이상 뭐라고 자책할 말이 없었다.

그러한 내 심정을 느낀듯 은혜가 조용히 말하였다.

《아버지가 이번 길에 이 섬을 조사대상에 넣은것은 정말 잘한 일같아요.》

사리발때라 물은 점점 더 들어와 발부리에서 철썩거렸다. 잔파도는 장난하듯 찰싹거리며 파내버린 흙무지를 야금야금 물어갔다. 흙무지앞의 바다물은 누런 물감을 푼듯 진한 흙탕물로 흐려졌다.

이때였다.

《아 선생님들!》 하고 다급히 웨치는 청년의 목소리가 벼락치듯 날아왔다. 뒤따라 헐떡거리며 뛰어온 청년이 바다물에 침범거리며 들어서더니 물에 절반이나 잠긴 흙무지를 삽으로 걸싸게 퍼올렸다.

그제야 사태를 알아차리고 흙타기안에서 튀어나온 은혜가 청년의 곁에 가더니 급한 마음이 시키는대로 손으로 흙을 퍼올렸다.

은혜가 오히려 방해되는듯 청년이 말했다.

《됐습니다. 저리 좀 비키시오.》

그리거나말거나 은혜는 미안한 빛을 감추지 못하고 얼마쯤 물러서서 손으로 흙을 퍼올렸다.

《정말 안됐어요. 우리 일만 생각하구...》

청년은 여전히 삽질을 하면서 말했다.

《량해해주시시오. 제가 선생님들의 연구사업을 몰라서 이러는게 아닙니다. 보시다싶이 우리 돌섬엔 흙이 아주 귀합니다. 이제 물에서 흙을 날라와야 하는걸요.》

《그걸 우리가 생각 못했어요. 미안해요.》

은혜는 거듭 량해를 빌었다.

나는 아무 소리도 못했다. 그저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듯 얼며름하기만 했다...

저녁밥을 먹고난 우리는 천막안으로 들어가 초불을 마주하고 앉았다. 별로 할 일은 없었다. 그렇다고 그냥 잠자리에 들기는 아쉬운 밤이었다. 돌섬에서의 첫날밤이자 마지막밤이 되어서 그런지...

이때 은혜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가 할 일은 없어요?》

《힘드네 자려무나.》

《저 그럼 그 동무의 일손을 좀 도와주고 오겠어요.》

《그 동무라니?》

《아니 그 있지 않아요. 감농사를 한다는...》

《좋도록 하려무나.》

나는 별생각 없이 딸의 청을 승낙했다.

은혜는 사뿐히 일어나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나는 가물거리는 초불앞에 다가앉아 조사자료들을 정리했다. 기쁜것은 섬에 석회암이 묻혀있는것을 발견한것이였다. 지금까지 옥포지구에는 석회암이 없는것으로 인정되어왔다. 그래 군에서는 산성화된 땅을 개량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소석회를 이백리가 넘는 이웃군에서 실어왔다. 이제는 제고장에 있는 석회석으로 세멘트까지도 생산해 쓸수 있게 되었으니 그만큼 나라의 재부가 늘어난셈이다.

궁지가 부풀어오른다. 이번 편답의 길에서 이렇게 찾거나 확보한 조국의 재부가 그 얼마인가.

그렇수록 자책 또한 크다. 나는 지난기간 학계의 허용오차라고 하면서 이 돌섬과 같이 작은 경우 그런 섬들은 셈에도 넣지 않았고 그 면적을 무시해온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을수 없다. 그것은 내 저서들의 빈구석이였고 내 량심의 흑점이였다.

이제는 그 빈구석을 메꿀수 있게 되었고 그 량심의 흑점을 지워버릴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듯했다.

나는 카트지에 돌섬의 지형을 그리고 그옆에 (CaCO₃)이라는 화학기호를 쏘아박듯 새겨넣었다.

이제는 돌섬에서 할 일은 다한셈이다.

피곤이 엄습해왔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천막안은 피피했다.

그제야 은혜생각이 났다. 애가 청년의 일손을 도

와주겠다고 밖으로 나간지도 이속했다.

(이 애가 왜 여직 안들어올가?)

나는 밖으로 나갔다. 달밝은 밤이었다. 섬의 달밤을 무척 아늑했다. 은은한 달빛은 졸리는듯한 미소로 바다며 돌섬을 고즈넉히 비치고있었다.

나는 마음 짊이는데로 기슭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청년의 집앞에 다달았다.

이때 앞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나는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귀를 강구었다. 주고받는 말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왔다.

《으-응?!...》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바다기슭 너럭바위우에 나란히 앉아있는 은혜와 청년의 모습이 뿌옇한 달빛속에 뚜렷한 룡광을 드러내며 환영처럼 안겨왔다. 행복에 한껏 취해 황홀한 꿈의 세계를 날으며 무엇인가 다정히 속삭이는듯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기에 밤이 깊어가는줄도 모른담.

나는 어둑컴컴한 절벽밑으로 해서 그들에게로 몇걸음 더 다가갔다.

청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 밤도 깊었는데 이젠 들어가 쉬십시오.》

청년의 은근한 목소리였다.

《이제 물이 들어오겠는데 좀더 하세요.》

은혜의 살뜰한 목소리였다.

그들은 물이 써나간 개바닥으로 들어갔다.

청년은 은혜의 머리에 비닐버치를 이워주었다. 그리고 자기도 버티여놓았던 지계를 지고 일어섰다. 둘은 나란히 걸었다. 다정히 속삭였다. 기슭으로 올라가 지고이고온것을 부식토더미에 쏟았다. 개바닥흙이였다.

둘은 부지런히 개흙을 날랐다.

나는 한동안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런 젊은 나이, 저런 혈기에 들끓는 일터를 마다하고 이런 한적한 외진 무인도에서 저렇듯 홀로 애쓰는 청년이 आम 해도 리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은혜는 청년을 리해하고있다. 지지하고있다. 저렇게 극성스레 돕고있다.

생각하니 이 돌섬에서 나만이 따돌림을 받고 밀려난것 같았다. 야릇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다. 서운한 감정을 어쩔수 없었다. 그렇다고 저들속에 무작정 뛰어들수도 없었다.

생각끝에 나는 그대로 발길을 돌려 천막으로 돌아오고말았다.

잠자리에 누웠으나 좀체로 잠이 오지 않았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뒤치락거리고있는데 은혜가 들어왔다.

나는 자는척했다.

은혜는 가만히 잠자리에 누웠다.

밤은 깊어갔다.
 은혜도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뒤척이기만 했다.
 《너 왜 아직 자지 않느냐?》
 은혜는 잠시 아무 대꾸 없더니 불쑥 되물었다.
 어리광이 섞인 음성으로 반문했다.
 《저,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말이나?》
 《그 청년말이에요.》
 《청년?!...》
 나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나쁘게 생각진 않는다.》
 《그런데 왜 청년이 하는 일을 믿지 않으세요?》
 《또 그 질문이나? 솔직히 말해서 난 그 청년이 하는 일을 모르겠다. 기적을 창조하는 일인지? 공상에 봉 떠서 그저 한번 해보자는 일인지?...》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들었어요. 그가 하는 얘기를...》
 ...그때가 함농석이 인민학교 4학년때였다.
 그해 가을 어느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감고장인 옥포땅을 몸소 찾으시었다.
 빨간 감이 가지가 휘도록 주렁진것을 대견스럽게 바라보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못내 기뻐하시며 감은 밥대신 먹을수 있는 아주 좋은 과일이라고 하시면서 이고장에서는 다른데서 할수 없는 감농사를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비재산쪽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다가 저렇게 높고있는 땅들에도 감나무를 많이 심고 잘 가꾸어보라고 간곡하게 가르쳐주시었다.
 이듬해 봄 옥포사람들은 떨쳐나서 비재산기슭에 참나무를 심었다.
 어느 봄날 감나무 심기에 동원된 사로청원형님들을 따라 비재산기슭에 갔던 농석은 제포래들과 함께 형님들의 일손을 돕다가 론쟁이 붙었다. 론쟁은 돌섬에 감나무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였다.
 농석이네는 있다고 했고 다른편은 없다고 했다.
 《있어!》
 《없어!》
 《있다는데!》
 《없다는데!》
 《우리고장에 이렇게 감나무가 많은데 왜 돌섬이라구 없겠니.》
 《말 그대로 돌섬인데 돌바탕에 어떻게 감나무가 자라겠니.》
 누구도 직접 돌섬에 가본 소리를 하는 아이는 없었다. 제나름의 추측과 귀동냥해 들은 소리를 가지고 저마끔 옳다고 우겼다.
 론쟁에서는 결국 농석이네가 지고말았다. 돌섬에

여러번 가보았다는 고등중학교 6학년 학생이 거긴 감나무커녕 소나무 한대 없다고 결론해주었던것이다.

그래도 농석은 믿지 않았다.

거기라구 왜 나무가 없겠는가?... 정말 돌뿐인가?... 없다면 왜 사람들은 거기엔 감나무를 심지 않았을가? 다른데는 다 심으면서... 거긴 뭐 옥포땅이 아니나?...

함농석은 직접 가서 제눈으로 확인해보기전에는 절대로 믿을수가 없었다.

고등중학교 1학년에 진급한 농석은 그해 여름방학에 몇몇 동무들을 휘동해가지고 수산분조의 매생이를 몰래 끌어내다가 타고 돌섬을 탐험했다. 가보니 정말 돌투성이였다. 하지만 농석은 실망하지 않았다. 섬등성이 여기저기와 작은 골짜기들에 애기다박솔이며 진달래, 속새풀 따위가 더러 자라고있었던것이다.

《이건 여기도 큰나무들이 자랄수 있다는거다.》

《정말이야.》

《우리 여기다 나무를 심자.》

《무슨 나무?》

《버드나무랑 방울나무랑 심지 뭐.》

《심을바엔 감나무 심자. 비재산에서처럼말이야. 그럼 이다음에 여기 와서 감을 따먹으며 놀수 있지 않니.》

《정말 그게 좋겠다. 감나무 심자.》

농석은 동무들과 함께 과수반에서 어린 감나무모를 몇대 얻어가지고 며칠후 다시 돌섬으로 건너갔다. 그들은 감나무를 심었다. 새움이 트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감나무는 한그루도 살지 못했다.

그는 조국보위 초소로 떠나면서 세번째로 돌섬에 감나무를 심었다. 구멍이를 큼직하게 파고 매생이에 싯고간 부식토도 듬뿍이 주고 세그루의 감나무를 심었다....

군사복무의 나날은 흘렀다.

그는 훈련의 휴식참이나 오락시간에 고향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에 오르면 의례히 옥포땅의 특산인 감자랑을 했고 감자랑을 하느라하면 돌섬에 심은 감나무를 생각했다. 때로는 꿈속에서 열매주렁진 세그루의 그 감나무를 보기도 하였다.

《...그런데 지난해 제대되어 와보니 글썽 두그루는 죽고 한그루만 살아있었다는군요. 그래도 그 동문 너무 기뻐서 그 감나무를 불안고 그냥 어린애처럼 영영 울었다질 않아요.》

(낮에 본 집옆에 서있는 그 외로운 감나무에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돌섬을 못버리는 청년의 그 마음이 찌르르하고 전류처럼 심장으로 흘러드는듯했다. 어쩐지 자꾸만

그에게로 마음이 끌렸다. 이밤으로 달려가 청년을 만나보고싶었다.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고싶었다.

물안개가 걷힌 돌섬처럼 청년의 모습이 뚜렷이 눈앞에 그려졌다.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

엷은 잠속에 어지러운 꿈을 꾸다가 갑자기 번쩍!

《우르릉 쾅!...》하는 천둥소리에 와들 놀라 깨나는 후닥닥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은혜도 놀라 깨어났다.

폭우가 사정없이 천막을 때렸다. 울부짖는 파도 소리가 온 바다를 짹 채웠다. 스산했다.

《철썩, 좌르르...》

누가 천막지붕에 물을 바غه뜨로 들붓는듯했다.

나는 손더듬을 하여 비끄러웠던 천막문을 들썩하고 밖을 내다보았다.

성난 파도가 천막을 금시 삼켜버릴듯 코앞에서 광란을 부렸다. 문득 은혜의 놀란 목소리가 울렸다.

《어마나, 물녘의 부식토더미를 다 못올렸는데.》

《그래? 그럼 나가봐야지 않겠니?》

은혜와 나는 더 생각할 여지없이 부랴부랴 배낭 속에서 비옷을 꺼내입고 밖으로 나왔다. 조국땅의 한부분인 이 돌섬에 감나무를 키우려는 함농석의 눈물겨운 노력이 우리 부녀를 더 앓아있을수 없게 한것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수 없다.

번쩍! 뱀의 허바닥같은 번개불이 하늘을 헤가르며 뒤설레는 바다속으로 곧두박혔다. 뒤이어 뱀성이 천지를 들었다놓았다.

나는 은혜에게 이끌려 허둥지둥 걸었다. 우리는 섬등성으로 해서 겨우 청년의 집앞에 다달았다.

청년은 파도와 싸우며 부식토를 나르고있었다. 지계를 지고 랑손에는 바غه뜨를 들고 뛰어다녔다.

《안됐어요.》

《이거 우리가 늦었네.》

은혜와 나는 청년을 도와 부식토를 파도가 미치지 않는 안침진곳으로 날라올렸다.

《선생님들까지 이렇게... 정말 고맙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울먹울먹했다.

청년은 얼마나 모대졌는지 자주 비칠거렸다. 파도가 덮칠 때마다 두발을 버티고 서서 안간힘을 쓰곤했다.

파도는 악착한 맹수마냥 덮지 못한 부식토더미를 사정없이 덮치고는 뭉청뭉청 물고달아났다.

《야, 이거...》

청년은 제살점이 뜯기우는듯 아프게 신음소리를 내더니 옷등을 벗어 흠더미에 덮었다.

그를 따라 나도 은혜도 그때까지 입고있던 비옷을 벗어 남은 부식토더미에 덮었다. 그러나 절반도 가리우지 못했다. 안타까웠다.

《애야, 천막, 천막을!...》

나는 다급히 뒤했다.

은혜는 달려갔다.

이윽고 천막을 걸어왔다. 그것으로 부식토더미를 덮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은 내손을 덥석 잡았다. 그 손을 거쳐 청년의 뜨거운 피가 그대로 내 심장으로 흘러드는듯했다.

썰물이 시작되었다. 비도 바람도 뜸해졌다. 번개도 우뢰도 저 멀리로 밀려갔다. 이윽고 별들이 하나 둘 얼굴을 내밀었다. 두터운 구름장속에서 숨가쁘게 자맥질을 하던 둥근 달이 세사람을 기웃이 내려다보고있었다.

먼동이 떠오르고있었다.

은혜는 청년의 집에 들어가 물을 끓여왔다. 더운 물을 마시니 가슴들이 훈훈해졌다.

우리는 바위우에 나란히 앉았다.

나는 측은한 눈길로 청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린 둘이지요. 같은 제대 군인인데 어제 아침 수리반으로 정대 버리러 들어갔습니다.》

《그런가? 하지만 돌도 많다군 할수 없지.》

《둘이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땐 물의 친구들이 지원포를 싸주지요.》 청년은 자기 일에 대한 자량과 신심에 차있었다.

나는 청년의 그 자량과 신심이 리해되었으으며 이들이 반드시 자기의 랑만적인 리상을 실현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여튼 젊은이가 고생이네, 저 많은 부식토더미를 장만하자니 오죽했겠나?》

나의 말에 청년의 눈에는 감회가 어리었다.

《하기야 고생도 좀 했지요. 한번은 부식토를 싣고오던 매생이가 파도에 뒤집혀서 아예 세상구경을 다할번한 일까지 있었답니다.》

《어마나?!》

은혜가 놀라 가볍게 부르짖고 나도 가슴이 섬쩍하였다.

청년도 은혜도 나도 얼굴에 웃음을 피웠다. 즐거웠다.

나는 정색해서 말했다.

《이 돌섬을 쫓피우겠다고 것처럼 모대기는 젊은이의 그 마음을 나는 몰랐거든. 알려구도 하지 않았구...》

청년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푸름푸름 밝아오는 동녘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선생님, 리해하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왜 그런지 이 돌섬을 무심히 대하게 되질 않더구만요. 아

무리 작고 돌투성이의 쓸모없는 섬이지만 어쨌든 이 섬두 우리 땅이 아닙니까. 가꿔서 빛이 날 때 더 아름답고 더 귀중해지지 않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쓸모가 없다구 내버려두면 이 섬은 영영 쓸모없는 땅으로 대를 두고 버림을 받을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역시 이 돌섬을 하찮게 여길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제 제가 초면인 선생님들에게 무리하게 군것도 실은 그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 섬을 하찮게 여기누나 하고 생각했겠지요.

저는 아이들때부터 지도를 볼 때면 늘 이 돌섬부터 찾아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도에도 우리 돌섬은 없더군요. 커서야 그 몇만분의 일이라는 지리학적인 자줄임으로 이 섬을 지도상에 표시하지 못하는지 알았지요. 그러나 섭섭했습니다. 너무 작아 지도에는 표시 못한다 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까지 사라져가는것 같았습니다.》

청년의 말은 조용하나 절절하게 울렸다. 실로 많은것을 생각해 하는 이야기였다.

(그것이 중요하지. 마음속에 간직되어있는 그것이…)

청년은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대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저는 쓸모없는 이섬에 감나무동산을 꾸려보리라 마음먹었지요. 감나무 심을 땅이 없어서 여길 택한건 아닙니다. 여기두 내 땅이구 조국땅이라구 생각하니 버릴수 없더군요. 제가 군대에 입대하면서 심은 감나무들중에서 한그루가 살았더군요. 그걸 보니 신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것이 화분식입니다. 가정들에서 화분에 좋은 부식토를 넣고 굴나무를 심어서 주먹같은 굴을 따지 않습니다. 리치야 같지요. 지금 제가 파놓은 구덩이가 하나의 화분이지요. 이 섬이 큰 화분이구… 한번 해보자는겁니다.》

청년의 결심은 확고했다.

(화분식 감나무동산!… 되구말구! 저런 신념, 저런 정열을 가졌는데 왜 안되겠는가… 그런 청년이 있구나!)

이처럼 뜨거운 심장으로 조국을 안고 사는 청년을 순간이나마 잘못 생각하다니… 허황한 공상가라

고… 나는 청년의 열정앞에서 부끄러운대로 자신을 반성했다.

지질학자로서 이 청년처럼 뜨거운 심장으로 조국을 대했던가?… 무엇을 바쳤던가?…

그래도 내땀에는 조국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었지. 그래도 조국을 위해 성실하게 랑심껏 일해왔다고 긍지를 가지고 보람을 느꼈지… 한생을 바쳐온 지질학,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자! 이 청년처럼 뜨거운 심장으로 조국을 안고 다시 건자!…

보석도 닦아야 더 빛이 나고 조국땅도 가꿔야 더 아름다워지고 소중해진다. 그렇다. 조국땅을 뜨거운 심장으로 안으라! 그럴 때만이 조국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욱 빛나리라…

이것은 청년의 웨침이었다. 심장의 웨침이었다....

동녘하늘에 아침노을이 붉게 타올랐다. 잔잔한 바다는 금빛으로 반짝이었다.

배가 우리를 실으러 왔다.

청년과 작별인사를 나는 나는 서둘러 행장을 챙겨가지고 배에 올랐다.

기슭에는 은혜와 청년이 서있었다. 서로 잡은 손을 놓을줄 몰랐다. 마주보는 두 눈길에서는 방전과도 같은 불꽃이 강렬히 튀기였다. 정답게 웃고있었다. 다정히 속삭였다. 끝이 없을상싶다.

사공은 어서 떠나자고 재촉했다.

아쉬운듯 은혜와 청년은 잡고있던 손을 놓았다. 은혜는 돌아섰다. 불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방울이 아침해빛에 유난히 반짝였다.

은혜는 배에 올랐다. 마음은 두고 몸만 오르는듯했다.

야속하게도 배는 인정없이 미끄러졌다.

손들을 흔들었다. 오래오래 흔들었다. 보이지 않을 때까지 ...

아침노을은 더욱 붉게 타올랐다. 노을속에 아로 새겨진 청년의 모습이 하나의 숭엄한 화폭으로 진하게 안겨왔다.

노을처럼 아름다운 청년의 그 마음속에 돌섬은 꽃피리라! 조국은 더욱 빛나리라!...

눈앞에는 그날이 그려졌다.

시 초

꿈과 미래와 조국

-김광철영웅의 고향에서-

김휘조

어머니의 나이

청춘시절이 두고간 흔적이나이까
이마엔 알릴듯말듯
가는 주름살
바쳐온 어머니사랑이 남긴
세월도 못지을 흔적이더이다

쉽게는 쉽게는 외울수 없나이다
마흔여섯살 그 나이
영웅을 안아키운
어머니의 나이

지금도 내앞에 앉아 창가에 걸린
아들의 사진을 올려다보며
추억에 잠긴 그 목소리엔
들리어울듯, 처음 엄마되어 부르던
그밤의 다심한 자장가소리

귀여운 아들을 품에 안으면
늘 걷던 탄전길도 더 정겹더라고
이른새벽 빨래터에, 이른아침 탁아소에...
일이 많아도 즐겁더라고

한해 두해 아들이 크는건 알면서도
이마에, 눈가에 잔주름 늘어나는줄은 몰라
유치원잔디밭에 첫 걸음 댈 때엔
온갖 시름 다 잊고 이끌어주었다고...

그 걸음이 아쉽니까
허리치는 강물에 길아닌 산정길에
한치도 헛디딤없던 아들의 그 걸음은

어깨에 별단 아들이
집에 들렸을 땐
너무도 기뻐서 처음 울었다고
-잘 가져라 아들이, 부디 잘 싸우거라
떠날 땐 할 말이 너무 많아
한마디밖에 못하였다고

얼마나 깨끗한 어머니 눈물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어머니의 말입니까
우리 사는 땅처럼 무겁고
우리 빛내야 할 한생처럼 귀중하고 귀중한

전우들을 위해 이 땅을 위해
무궁한 조국의 앞날을 위해
한몸 수류탄을 덮고간
아들의 뒤에는 이 어머니 서있었으니

쉽게는 쉽게는 외울수 없나이다
사랑으로 한해 두해
이어지고 이어진 어머니의 나이
그 나이가 이 땅의 밝은 앞날에 잇닿은
백년인듯 천년인듯 생각되어서

이 봄엔 더 일찍 꽃이 폈어요

-너동생의 마음-

이 봄엔 더 일찍 꽃이 폈어요
아침이면 오빠가 내 손을 잡고
선생님 말씀대로 물을 주려 나오던
우리 학교 운동장 울담아래에
앵두꽃 나리꽃 고운 꽃송이

두고 간 오빠의 마음인가요
봄바람에 그윽히 풍기는 향기
다시다시 들려와요 오빠의 말이
어제도 밤늦도록 우릴 가르치시던
선생님 말씀대로 공부를 잘하자고...

아, 뛰놀던 운동장에 배움의 창가에
선생님 다심한 마음을 닮아
그 마음 꽃처럼 아름답던 오빠
그 마음 앵두처럼 붉게 타던 오빠

그래서 잠복의 밤 눈보라속에서도
오빠의 마음 언제나 뜨거웠겠지요
동지들을 위해 한몸 던지면서도
흘린 피는 꽃처럼 아름다웠겠지요

이 봄엔 더 일찍 꽃이 폈어요
오빠의 그 마음 안고

내 오늘은 교단에 선 몸
아이들이 뛰노는 운동장
아이들의 참된 발걸음이 시작되고
참된 한생이 시작되는 운동장

다시금 들려와요 오빠의 말이

화단앞에서 바라보니
-나의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크고 영예로운 일이 너에게 있다고...
아, 오빠의 그 목소리 들려오는 운동장이
나에겐 나에겐 온 조국인듯 넓어요

그 밤

오래오래 함께 있고픈
작별을 아껴서
동무들은 하루만 더 있다 가라고
룡문산기슭에 산놀이도 마련해놓고
하루만 더 있다 가라고

그래도 영웅은 밤길을 떠났어라
옆집의 굴진공의 집에선
달덩이같은 새 생명이 태어난 그밤
아래마을 옥이네 집에선
채탄공의 아들이 또 대하엘 간다고
온 마을이 떠들썩 명절같은 그밤

영웅은 고향을 떠났어라
그 고향이 소중한 고향을 떠났어라
저 멀리 운탄선에선
전차들의 푸른 불빛 날리던 그밤
분계선 남쪽에선 원수들이
화약내를 몰아온다고 땅크를 굴러온다고

아, 영웅이 앓아도 못보고 떠나간
룡문산기슭 봄푸른 잔디밭아

오늘은 네우에 떠들썩하구나
아이들의 웃음소리
맑은 하늘 푸른 숲에 와와 소리치며
튀굴며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옥구슬이 구으는듯 룡문천 맑은 물아
네우에 어리인 황금이삭물결은
그밤 이 땅을 가슴에 안고 떠나간
영웅의 누런 군복자락이 아니냐

아침해가 밝으니
더더욱 어려오는 영웅의 모습
풍요한 이 땅 저 맑은 물을 위해
배낭을 지고 묵묵히 산비탈길을 내려
초소로 떠나던 영웅의 모습

룡문땅아, 집집의 창문들아
밝게 웃는 땅아
영웅이 떠나간 그날 그밤이
오늘도 눈부신 너의 아침으로 밝았구나...
영웅은 떠났어라 그밤 네가 소중한
너를 떠났어라

영웅의 집

이웃들을 향해 언제나
창문 활짝 열어놓은 집
울바자가엔 하얀 빨래돌
그옆엔 활짝 핀 채송화, 봉선화

이 집에서 영웅이 자랐네
그 이름 시처럼 외워지는 영웅
이제 금시
최우등성적증 주고 붉은넥타이 날리며
환히 웃는 어린 시절 그가 들어설듯
이 집에선 추억도 꽃처럼 아름답네

안전등 걸어놓은 저 창가에 다가서면
백두산견학을 간다고
밤새 잠못들던 그 아들이 보일듯
함께 배낭을 준비해주던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도 보일듯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학교에 써붙인 그 글발 집에서도 외우며
밤새 한장한장 책장을 번지던
꿈에 부푼 그 소리 아직 들릴듯

아침에도 저녁에도 해빛밝은 집이어
작은 가슴에 온 조국을 안은
소년의 희망 하늘가에 나래치던 집이어
그 이름 오늘은 기발처럼 불길처럼
온 나라가 외우는 영웅의 집이어

집은 평범해도 신뜻 들어설수 없네
《영웅의 집》이란 그 말이
우리 언제나 즐겨 찾아가는
《학교》란 말처럼 《대학》이란 말처럼
그렇게 소중한 안겨와서

그대 이 땅의 아들이라면

그대가 누구이든 그 누구이든
저 맑은 하늘을 눈에 담고 자란
이 땅의 아들이라면

잊지말라
한뼉 묵묵히 석탄을 캐내는
영웅의 아버지가 쓴 편지가 있다
돌격의 고지면 제일 선참 오르라고
행군길이면 늘 앞장에 서라고...

그날도 막장에 발과소리 높던 날
초소의 아들에게 쓴 그 편지
오늘도 아버지의 책상우에 있다
이제는 그것을 받을 아들이 없거니

오, 정녕 없더냐, 받아야 할 아들이
영웅이 오르던 눈덮인 고지는
아직도 우리앞에 높는데
영웅이 걷던 행군길은
젊은 가슴들을 불려 아직도 멀고먼데
그가 메였던 위장물꽂힌 장구류는
우리 어깨를 믿어 우리앞에 있는데

오, 그렇더라, 그 장구류를 메고
그 행군길을 이어가야 할 우리
네가 아니더냐 내가 아니더냐
편지를 받아야 할 사람은
우리모두 아니더냐

그대가 누구이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태를 묻은 이 땅을 어머니라 부르는
이 땅의 아들이라면
편지를 가슴에 안으라 그리고 회답을 쓰라
이삭을 가꾸어가는 푸르른 벌에
아침노을로 펼치는 쇠물의 노을에
아기를 잠재우는 탁아소요람가에

첫 사랑을 고백하는 유원지 버드나무아래에
착암기소리 지동치는 막장 깊은곳에
비단과 강철과 세멘트와...
아이들이 쓸 학습장을 만드는 기대우에
회답을 쓰라, 해와 별빛아래 흐르는
이 땅의 시간이 영원히
아름다운 노래속에 흘러가게 하기 위해
회답을 쓰라, 그대 정녕 이 땅의 아들이라면

꿈, 미래, 조국...

꿈, 미래, 조국
그리고 행복...
소중한 그 글자들을 적던 나의 수첩에
나는 쓴다, 김광철 너의 이름을

네 이름 부르면 눈앞엔 어려오는
나와 나란히
한책상에 앉던 너의 얼굴
아름다운 노래의 구절과도 같은
다정한 나의 동창생들의 이름

어려와라
대수문제를 풀고 교실을 나서
함께 걷던 탄광마을 그 밤길에
고기잡이로 긴 하루해를 지우던
고향의 강가 뜨거운 그 모래불이

쉽게 지워질수 있는
연필로 쓴 이름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고
위훈을 떨치고 만나자고
굳게 손을 잡던 졸업식날 교문앞이

그래서 동창생이란 그 말은
추억이란 말이 아니더냐
열매맺는 풍요한 파원처럼-

그래서 그 말은 맹세란 말이 아니더냐
믿음이란 말이 아니더냐 약속이란 말이 아니더냐
동창생이란 그 말은

그 약속을 너는 피로써 지켰구나
전우들을 위해 심장을 바쳐 쓰러지면서도
가슴에 영원한 삶을 끌어안았거니
아침마다 선생이 부르던
우리 학급의 출석부 1번 너의 이름을
이제는 온 조국이 부르누나

아, 누구보다 꿈이 많던 너
저녁이면 저탄장 저너머
밝은 별 시줄에 담아
조용히 훑어보던 너
산에 들에 열매맺는 파원에
희망을 엿어보던 너
다만 이 땅과 청춘의 꿈을
따로 생각해본적없는 너

그렇더라, 우리의 꿈은 이 땅을 위한 꿈
그 꿈으로 이 땅은 아름답거니
네 시줄에 담던 별처럼

너는 오늘도 교문을 나서던 그날같이
나에게 조용히 속삭이누나
우리 위혼을 떨치고 만나자고

아, 나의 동창아

나는 쓴다 나의 수첩에
아름다운 꿈과 미래와 조국
그리고 행복...
소중한 그 글자들처럼 너의 이름을 쓴다
빛내야 할 나의 이름도 함께

네가 노래하는 때는 외 1 편

김승남

네 노래를 따라
가득 실린 탄차들이 오르는듯
네 노래를 안고
권양기도 흥에 겨워 신바람난듯
운전공처너는 노래를 하네

아, 네가 노래하는 때는
막장에 검은금이 폭포치는 때
네가 노래하는 때는
저탄장에 석탄산이 키돋움하는 때

탄이 좋아 석탄에 정을 두고
노래가 좋아 노래에 마음을 얹고
집채같은 기대도 한손에 길들여가며
탄전을 떠나지 못하느냐

네 노래를 따라

저탄장엔 렬차가 기적높이 떠난다
네 노래를 안고
발전소엔 화력타빈이 만부하로 돌고
용해장엔 쇠물이 사뭇쳐끓으리

아, 탄은 너의 기쁨이며 희망!
석탄은 너의 사랑이며 행복!
그래서 홀로 산중에 있어도
조국땅 한복판에 석탄산과 함께
내세우고싶거니

쇠바줄도 혼출혼출 틀동에 겨워서나
탄전에 꽃피는 네 청춘
네 노래가 아름다와
내 땅속깊이에서 끝없이 이어주련다
네 아름다운 노래를 샘처럼 샘처럼...

먼 출장지에서

나도 미처 몰랐던 생일이라고
내 상에 정성을 함뻍 곁여놓는
려관식당의 접대원처너
목이 메여 선뜻 들지 못하겠구나

생일이란 자기 집에서
어머니가 차려주는것인데
처녀야, 너는 누구기에
집을 떠난 이 먼곳에서도
나그네의 느낌을 모르게 하느냐

원썬들의 폭격속에
부모형제 집마저 다 빼앗긴 그날부터
내 언제 고향집의 어머니손탁에서
생일을 맞은적 있었던가

오, 고맙다 접대원처녀야
나를 키우느라 수고도 많던

그 사람들을 이어
오늘은 네가
이 출장의 짧은 나날에조차
그윽한 사랑의 향기를 풍겨주누나

날마다 하많은 손님들에게
어머니로 누나로 손녀로 섬겨가는
너와 같은 그 살뜰한 마음들로 하여
이 땅은 어디 가나 나의 집
이 땅에선 누구나가 나의 친형제

아, 피줄을 타고나야 혈육인가
제 살림이 있어야 제 집인가
조국의 푸른 하늘 그 하나의 지붕밑에
수령님과 당을 아버지,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이
땅은
모두가 그 한뫼에 꽃피는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 아닌가

혁명가요에서의 혁명적량만성

로옥희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든 전투장마다에는 새로운 《90년대속도》창조의 세찬 열풍과 함께 혁명가요의 힘있는 노래소리가 드높다.

혁명가요는 그 전투성과 혁명적기백으로 하여 혁명적대고조어로 나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발걸음을 한없이 떠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인 노래는 인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의 중요한 수단인 하나입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데서 혁명가요가 매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가요를 부르면서 일제놈들을 무찌르는 돌격전으로 용감하게 달려나갔으며 간고한 행군의 나날에도 혁명가요를 부르면서 곤난을 이겨내었다.

오늘 우리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며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과 혁명전통교양,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천대받고 압박받던 지난날의 처지와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의 억압 밑에서 신음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혁명가요를 더 많이 부르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창조된 혁명가요의 사상에 예술적풍부성은 그에 체현된 혁명적량만성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복무하는 문학은 자체내에 혁명적량만성을 체현하지 않고서는 현실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립장에서 반영할수 없다. 따라서 사람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으며 혁명승리의 위업에로 고무하는 역할도 훌륭히 수행할수 없다.

사회주의적리상은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으로 부르는 커다란 힘으로 된다.

혁명투쟁에 결기한 인민대중은 투쟁의 오늘날만 아니라 그 투쟁의 목적과 쟁취할 미래를 내다볼것을 희망한다.

투쟁의 미래, 쟁취할 래일을 확연히 내다볼 때 인민대중은 무궁무진한 혁명적열정을 발휘할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으로 인민대중을 부르는 문학예술에서 혁명적량만성을 풍부히 체현하는것은 필수적요

구조건으로 제기된다.

혁명가요에서의 혁명적량만성의 특징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항일혁명투쟁의 현실이다.

《혁명투쟁은 일제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선인민의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며 진정한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이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리상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이러한 투쟁위업은 혁명가요에서의 혁명적량만성의 사회적기초이며 원천으로 되었다.

혁명가요에서의 혁명적량만성은 이 노래의 창조자들인 항일혁명투사들의 세계관의 높이, 정신적특징과 밀접히 련결되어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간고한 투쟁의 역경속에서도 혁명투쟁의 승리를 확신하였으며 조국광복의 미래를 심장깊이 간직하였다.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라고 웨치면서 혁명의 붉은기를 들고 싸워온 그들에게는 이러한 열정과 피끓는 기백이 샘솟듯 쏟아져올랐던것이다.

이러한 사상정서의 소유자-항일혁명투사들이 바로 혁명가요의 창조자들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은 도래할 현실을 이미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 체험하였으며 사회주의적리상을 민감하게 감수하였고 그것을 예술화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사회주의적리상을 쟁취하기 위하여 싸운 혁명가들이었으며 시대의 전형적인 사상감정을 예술화한 혁명적인 작가, 예술가이기도 하였다.

혁명가요에서의 혁명적량만성은 항일혁명투쟁의 목적과 과업으로부터 흘러나오며 이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열렬한 지향으로부터 흘러나왔다.

이것은 혁명가요가 인민대중을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으로 부르는 과업에 완전히 복종되었다는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와 같은것은 혁명가요에 체현된 혁명적량만성의 특징을 규정짓는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혁명가요에 체현된 혁명적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하여 창조적으로 예견되고 설계된 조선혁명의 래일이였다.

혁명가요 《유격대행진곡》, 《나오라 혁명전에》는 혁명주권에 대한 문제가 명백히 밝혀져있으며 조선인민이 쟁취하여야 할 리상이 쟁쟁히 울리고있다면 혁명가요 《의회주권가》와 같은데서는 노동자, 농민의 피값에 의한 붉은 주권하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우람찬 소리가 힘차게 울

리고있다.

이것은 혁명가요에서의 혁명적량만성이 항일혁명투쟁의 목적과 밀접히 관련되어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항일혁명투쟁의 목적과 과업은 혁명가요의 서정적주인공의 리상으로 노래되었다. 노동자, 농민의 정권을 건설하여 붉은기를 휘날리며 나아갈 미래가 바로 그것이였다.

이 미래는 조선의 현실에 대한 주체적분석에 기초하여 밝혀진 미래이며 인민대중에게 접수되고 그들을 투쟁과 승리에로 부르는 미래이다. 투쟁의 현실에 대한 정당한 분석에 기초하였고 과학적으로 예견된 혁명적미래가 힘차게 울려나옴으로써 혁명가요의 량만성의 특징은 두드러지게 표현되고있다.

이와 같이 혁명가요에서의 혁명적량만성은 조선현실이 내포하고있는 새것, 사회주의적인것의 정서적표현이며 항일혁명투사들의 공산주의적 리상의 높이에 의하여 평가된 현실의 지향이며 리상이다.

이것은 항일혁명투사들의 주관적리상도 아니며 객관적표사대상 그자체도 아니다. 그것은 객관적대상과 항일혁명투사들의 미학적리상과의 통일의 결과에 의하여 혁명가요에 표현된것이다.

사회주의적리상은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투쟁에 의하여 쟁취하여야 한다.

혁명가요는 사회주의적리상을 제시하였을뿐만아니라 이 리상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반일혁명투쟁으로 인민대중을 끌기시키는 강렬한 호소성으로 특징적이다.

혁명가요 《불평등가》, 《결사전가》 등 많은 혁명가요들에서 노래하고있는것처럼 더는 살지 못할 계급사회에 대한 반항과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이 인민의 참다운 새 생활, 새 사회의 건설을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어있다. 이 혁명가요들에서 강

하게 노래되고있는 낡은것, 반동적인것을 반대하는 투쟁에로의 호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적리상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직접 잇닿아있다.

그러므로 모든 반동적인것, 계급적원썹들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투쟁속에서 확인하고 옹호한 리상, 사회주의적리상을 쟁취하기 위하여 그와 대치되는 온갖 낡은것을 반대하는 투쟁의 걱정은 혁명가요에서 혁명적량만성의 중요한 표현분야로 된다.

혁명가요 《결사전가》의 경우에는 조국광복, 사회주의적리상과 그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조선인민혁명군의 강렬한 혁명적투지, 전투적기백이 약동하고있다.

실로 이 노래는 《우리 땀과 우리 피로 배를 채우고, 탐욕과 향락으로 진탕》거리는 제국주의 부르조아들에게 멸망을 주고야말리라는 필승의 신념이 힘차게 흘러나와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

여기에는 적에 대한 비타협적인 증오와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치면서 항상 승리하는 혁명가들의 정신적미가 깃들어있다.

바로 이것은 혁명가요의 전투적격정과 량만성의 특징을 규정짓고있다.

혁명가요는 일제강점하의 조선현실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를 제기하고 조국의 해방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적리상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생활과 투쟁에서 참된 정신적 고무자의 역할을 다하였다.

혁명적량만성의 풍부한 체현으로 하여 혁명가요는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는 커다란 힘을 지니고있으며 오늘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는 승리의 노래로 불리우고있다.

시 초

내 그림던 땅에서

리상각(중국)

옥녀봉

구룡폭포에 미역을 감았네
새파란 솔저고리 입고 나섰네
황금의 단풍치마 곱게 돌렸네
보얹게 분세수하고 나와

이 나라 녀인들 모두 선녀라며
저도 금강산선녀라 자랑하네

-상팔담에서-

염분리 바다가에서

드넓은 조선의 바다
와-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서
바위를 들부시며 열길 솟구친다
7천만
통일념원이 폭풍으로 터져서
바다가 되게다!

노도가 되게다!

산악같은 파도-조선의 마음
언제면 바다여
분단의 뼈아픈 설움을 다 씻을것이나

-염분리에서-

인민대학습당

웅위로운 평양 인민대학습당
층층이 열람실마다 강의실마다
과학대군이 빼곡이 들어앉아
학문을 닦는 배움의 전당 여기서
조선의 미래를 나는 보았습니다

파도에 파도에 밀고나가는
조선의 큰 힘을 나는 보았습니다

밤이나 낮이다 과학의 대군을 싣고
희망의 푸른 언덕으로 달리거니
인민대학습당은 크나큰 함선
새 하늘을 열며 나아가는
찬란한 조선의 아침을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평양에서-

분 계 선

여보시오
저 분계선을 돌돌
동해바다에 처넣읍시다
아니면 저놈을 토막쳐서
7천만 집집의 부엌아궁이에

집어넣어 불사롭시다
만약 양키들이 아쉬워하면
그놈들의 등에 처매서
제나라로 지고 가게 합시다

-관문점에서-

온포온천

푸른 산이 서로 어깨를 비비며
등그렇게 둘러선 한가운데
퐁퐁 솟는 온포온천
푸딩실 온수에 뛰여드니
한입으로 즐거움 형용키 어렵구나
아, 7천만동포가 다같이

이 락을 끌고루 나눠가지면
얼마나 좋으랴!
백병을 떼준다는 온포온천
따사로운 품이여, 이 한생각에
나는 오히려 가슴 아프다

-온포에서-

친 구

오창수

역전공원은 공기 좋고 풍치가 좋았다. 서늘한 그늘을 드리우는 키 높은 나무들과 여러가지 꽃나무, 폭신평신했던 잔디밭, 그리고 사람이 일부러 가져다 놓은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생겨먹은것인지 알 수 없는 크고작은 바위돌들이 있고 여기저기 적당한 자리에 안장과 등받이가 편안하고 보기 좋게 꼭 선진 긴의자들이 놓여있었다.

여기에는 주로 뺨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조바심이 많고 서두르기 잘하는 녀인들은 뺨스가 도착할 때를 예견하여 정류소표식판 가까이의 의자를 차지했고 그들이 좋거나 아늑하거나 꽃이 화려하거나 각이한 특성과 우점이 있는 자리들을 취미대로, 발길이 미치는데로 늙은이, 젊은이, 아이들이 앉았다.

뺨스가 서는 자리에서 그중 먼거리에 있는 버드나무밑의 긴의자에는 먼저 네사람-두 남자손님과 중년의 녀인, 그가 데린 소년이 앉았고 뒤늦게 배낭과 크고 묵직한 여행가방을 들고 제깬옷에 색깔이 밋밋는 넥타이를 맨 남자손님이 와 앉았다.

이 다섯사람중에서 맨 뒤늦게 온 남자가 특별히 못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보기 좋게 몸이 나고 인상이 좋고 옷차림도 번듯했다. 조금씩 드러났음으로써 가운데로 빈자리를 내여주는 사람들에게 그는 약간 머리를 숙이며 웃음짓는것으로 수인사를 하고 앉으면서 천천히 손수건을 꺼내어 이마의 땀을 씻었고 넥타이도 약간 풀어놓았다. 그리고는 두 남자손님에게 담배를 권하며 어디서 어디를 가는가고 말을 건넸고 또 녀인과 아이쪽에도 머리를 돌리며 그렇게 했다.

녀인이 박천에서 오며 여기 광산 언니네 집에 간다는 말을 꺼내자 그는 자기도 거기 간다면서 반가와했다. 녀인이 그의 배낭과 커다란 여행가방을 보며 광산에 발은 친척이라도 있는가부다고 하자 제깬옷손님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요. 그저 친구가 하나 있어서요.》

녀인과 두 남자손님은 친구를 찾아가는 손님의 행장으로서는 결코 간단치 않은데 내심 놀라와했다.

박천녀인이 친구지간의 정이 보통 아닌것 같다고 하자 제깬옷손님은 그저 《뭘요.》 하고 사람좋은 웃음을 지었다. 이 짧은 말마디와 함께 지은 그 웃음은 자기가 광산의 친구에게 제일 뜨겁게 정을 기울이고있노라는, 그 어떤 긴 말을 늘어놓는다해도 그만은 못할 정도로 강한 인상을 주었다.

광산쪽에서 와서 다시 그리로 가는 뺨스는 와닿

을만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았다.

손님들옆으로 여라문메터 떨어진곳의 긴의자앞에서 서성거리는 회색평상복차림의 손님은 손목시계를 자주 들여다보며 무척 초조해하였다. 그는 뺨스가 올 저편 길쪽으로 얼굴을 아예 돌리고있었다.

평상복손님은 그러다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무척 바쁜 길손같은데 차를 기다리지 않구 어딜 가노?...》 하고 제깬옷손님이 웃으며 한마디 했다.

얼마후에 평상복손님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손님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전화를 걸어봤는데 뺨스는 얼마전에 떠났다는것이였다.

《사람은 저러면 인차 늙어요, 늙어.》

제깬옷손님은 옆의 사람들이나 들을수 있게 조용히 말했다.

《전화를 걸어보면 어드렸나. 그러다구 안올 차가 오겠나, 전화 안건다구 올차가 안오겠나. 안그래?》

《그래두 사람의 심정이란 속씨원히 알고싶으니까.》 하고 다른 한 손님이 말을 받았다.

기차여행에 이어 유쾌한 한담으로 웃고며들다나니 시장기가 왔다. 제깬옷손님은 참으로 여럿의 생각과 기분의 대변자였다. 그는 팔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벌써 점심때가 됐는데 갑자기 차가 와두 그렇구 우리 저레 여기서 간단히 요기를 하는게 어떤가고 제기했으며 그것은 대변에 모두의 찬동을 얻었다.

도중식사들을 꺼냈다. 박천녀인은 넉넉한 밥박에 뚜껑이 닫기지 않을 정도로 높이 쌓아 올려놓은 송편을 내놓았고 두 남자손님은 집에서 가지고 떠난 자기식의 음식과 열차에서 사넣은 밥박을 꺼냈다. 제깬옷손님은 자기의 큰 여행가방을 열고 김밥을 내놓아 여럿의 환대를 받았다.

박천녀인이 《친구손님이 다르긴 다르구만요.》

라고 선망어린 어조로 말하자 그다음부터는 자연 제깬옷손님을 친구손님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서로 저마다 특색있는 음식을 꺼내놓으니 연회상 비슷하였다.

친구손님이 회색평상복손님에게 소리쳤다.

《오시구레.》

전화걸러 갔던 회색평상복손님은 저쪽 의자에서 움직이지 않은채 손을 흔들며 사양했다. 집에서 든든히 먹고 떠나와서 생각이 없다는것이였다.

그러자 친구손님은 조용히 뇌였다.

《저 손님 말두 참... 집에서 든든히 먹고 떠난거야 어디 자기뿐인가.》

또 한번 웃음이 일었다.

모두가 사양을 모르고 이것저것 음식을 집는 가운데 친구손님은 자기 가방을 들여다보며 무엇을 좀더 꺼내려 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이 여기 내놓은 것도 많은데 그만두라고 하면서 광산친구네 집에도 뭘 좀 내놓을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말했다.

친구손님은 가서 내놓을것은 여기 따로 있다고 하며 묵직한 배낭을 들었다놓았다.

《그 친구도 나도 이제 나이와 함께 이렇게 흰머리칼이 많아지고 차차 기력도 줄기 시작하는데 이 좋은 세월에 아쉬운건 뭘겠소. 늙는것이랄가.》

이렇게 말을 댔 친구손님은 중년기와 로년기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피할수 없는 자연법칙으로서의 육체적인 로쇠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건강과 장수에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아지고있다는데 대하여 그리고 그와 관련한 수자자료에 대한 상당히 풍부한 상식을 내놓았다.

박천녀인은 자기도 이제 겨우 원에 가까와오는데 한해한해 달라진다는 말을 하여 친구손님의 말이 더욱 성수가 나게 했다.

《우리고장에 아주 능한 동의사가 하나 있는데》 하고 친구손님은 말을 이었다. 《단너삼이요, 구기자요, 열두가진가 열세가진가 되는 약재를 가지고 효능이 아주 높은 보약을 조제하는데, 우리 나이에 아주 좋다는단. 그래 그걸 좀 가져가는데.》

친구손님의 이 성의에 모두가 감탄했다.

《역시 뜨거운 친구입니다.》

《거 정말!》

친구손님의 그 보약에 관심이 쏠려지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이때 이야기는 일시 중단되었다. 저쪽의 자에 있는 회색평상복손님에게 한 녀인이 다가와 이야기하는것에 주의가 돌리졌던것이다.

그 녀자는 몸이 싹하고 머리거둡색과 옷차림이 세련되었었다. 그래서 그앞에 앉은 남자는 껍 초췌해보였다. 멀리서 보기에는 항상 지시를 주고채근하는 녀지배인과 그밑에서 늘 바빠 돌아치는 지도원파도 같았다.

녀인은 남자의 옷자락에서 무슨 실오리나 먼지같은것을 털어주며 입을 열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세요? 아침까지도 아무 소리 없더니 왜 이리 갑자기 거길 간다는거예요. 빈손으로...》

몸가짐과 행동, 말 내용과 어투에서 부처간이라는것이 알렸다. 그렇게 놓고보면 짝이 기울다는것, 어떻게 저런 불공평한 결함이 이루어졌을가하는 의혹이 생겼다.

《빈손은 왜 빈손?》

《빈손 아니문요. 책하구 욕을 내놓자구요?》

《그게 기본이야 그 사람에게겐》

《아들 잔치한다는 댄 안가시더니.》

《안갔나? 못갔지. 그때 내 공장에서 얼마나 바빴소.》

《지금은 안그래요?》

《더하지. 그러나 오늘은 가야 돼.》

《글쎄 안돼요. 웃으면서 가두 모르겠는데 쓴 얼굴로요?》 녀인은 갑자기 울먹거렸다.

남자는 억이 막힌듯 더는 대꾸를 못하고 주위를 둘러보고 먼구스러워 어쩔줄 몰라하며 《이거 안됐습니다.》 하고 량해를 구하고 안해의 팔소매를 톡치고는 키높은 꽃나무들이 있는 화단 저쪽으로 돌아갔다. 조금 동안을 두어 안해가 따라갔다.

《여보!》 하고 남편은 목소리를 낮추었는데 그 내용은 그대로 들렸다.

《아무리 가까워두 아무때나 웃을수는 없소! 병났을 땐 쓴 약두 먹이구 아프겠지만 칼로 수술을 해서 병을 떼줘야 돼.》

《아-참》 하고 안해는 그 싹한 몸을 어린애처럼 좌우로 흔들며 푸념했다.

《우리 립장이 어떻게 되나, 그렇게 가까운 사이에...》

《아직두!》 남편은 어성을 높였다. 소리는 높지만 애정이 넘쳤다. 《몇번을 말해야겠나!》

이상한 일이었다. 그들이 주고받는 몇마디의 말이 있은후 첫인상과는 달리 틀이 있어보이던 녀인은 세상물정에 어둡고 체신머리없는 보통의 천박한 녀인으로 여겨지고 수수한 차림의 남자는 사리에 밝고 전개력있는 그 어떤 책임적인 일군으로 돌보여졌다.

차츰 안해의 태도는 수그러졌다. 그는 이렇게 갑자기 떠나니 보내는것도 변변치 못하게 되었다는 푸념과 가서는 제발 가슴아프게 말하지 말고 듣기 좋게 타이르시라는 부탁을 거듭 뇌였다. 남편은 그런 걱정은 말라고 했으며 일이 바쁘면 어서 가라고 그를 떠밀어보냈다.

평상복손님은 안해를 돌려보내고나서 사람들 보기가 먼구스러운듯 긴의자의 자기 자리에 가서 들가방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손잡이를 만지작거리기도 하며 군동작, 군손질을 하다가 두무릎우에 량팔꿈치를 고이고 이마를 싸쥐었다.

그 의자에서는 물론이고 제끼옷손님네 의자에서도 어찌선지 말수가 적어지고 제각기 자기 생각에 잠겼다.

박천녀인은 가방을 열어 이미전에 내놓았던 음식을 꺼내려다가 생각을 달리하고 급히 배낭을 헤치더니 머리통만한 보꾸레미를 꺼냈다. 그리고는 사내아이더러 손칼을 달라고 했다.

이때 저쪽 의자 평상복손님이 들가방을 들고 일

어섰다.

손칼을 받아든 박천녀인은 주춤 일어서며 《아니, 시장하시겠는데.》 하고 그쪽을 보며 입을 열었으나 이미 자리를 뜬 평상복손님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채 저쪽으로 갔다.

얼마후에 뺨스가 왔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차장이 하는 말이 뺨스는 두대가 다 떠났는데 도중에 한대가 고장나서 이제 인차 다른 차가 따라설것이라는것이였다. 그러니만큼 정 급하지 않은 손님은 첫차를 양보하고 다음차에 타도록 하자고 차장은 권고했다.

친구손님네 건의자 사람들도 질서를 지켜서 줄에 들어섰는데 과연 첫차에 탈수 있겠는지 미타한 위치였다.

한참후에 들가방을 든 평상복차림의 그 사람이 숨이 차게 뛰어왔다.

《어딜 갔었수?》

친구손님이 이렇게 말을 건네며 웃자 평상복손님은 입을 하 벌리며 무릎을 쳤다.

《허참, 아무래두 뭘 좀 들고갈게 더 있어야겠드란 말입니다. 아 그래 상점엘 가냈는데 차가 막오질 않겠습니까. 즉시 돌아서서 뛰어왔는데 어느새 이렇게들...》

《어딜 가시게?》

친구손님은 동정을 담아 넌지시 물었다.

《광산에요.》

《그렇소? 나두 거기 가는데, 거기 누가 있소?》

《동무를 좀 만나보자구요.》

《그렇소?! 나하구 같수다래.》

친구손님은 반가운김에 어성을 높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 두사람의 대화에 주의가 끌려 눈길을 돌렸다.

친구손님은 평상복손님에게 동무가 광산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고 물었다.

《2깡에 있다가 최근에 기술파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누군데?! 정남국이 아니요?》

친구손님은 다급하게 물었다.

《아시오?》

《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찾아가는 집까지 갈구만.》

두사람은 손을 맞잡아흔들며 서로의 이름을 소개했다. 제깅웃손님은 평상복손님에게 남국이를 어떻게 아는가고 물었다. 평상복손님은 군대때 사귄 전우라고 했다. 동지는 어떻게 남국동무를 아시는가고 그는 물었다.

《아. 남국이야 내 잘 알지요.》

제깅웃손님은 동무라는 소리를 빼고 그저 남국이라고 함으로써 말그대로 아주 절친한 사이라는것을 느끼게 했다. 그 역시 정남국이 군대때 친구라는것

이였다. 결국 정남국이 군사복무기간 구분대 소속을 한번 바꾼적이 있는데 이 두 친구들은 각각 그 두 시기에 따르는 전우들이였다.

뺨스줄에서 누군가 《친구의 친구들이구만.》 하고 웃었고 누군가는 또 《어디서 그런 소리 나오던가? 친구의 친구는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대꾸했다.

그런데 어떻게 한날에 같이 찾아가게 되였는가? 일요일이기때문에, 일요일도 하 많지 않은가? 그것 역시 신기한 일이어서 두 친구는 서로 마주보았다.

《난 그 친구의 편지를 받구.》

《나두요.》

두사람은 우연처럼 생각되는 일의 필연적인 원인을 알아내고 웃었다.

편지소리가 나오자 평상복의 친구는 두손으로 다시금 제깅웃친구의 손을 잡아흔들며 말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어째선지 이때에 와서 그는 더욱 열정적인 사람이 된듯했다.

《뭘 뭘요, 내가 뭘...》

제깅웃친구는 상대의 지나친 흥분에 저으기 어색해했다.

《역시 편지내용을 보고... 그랬단 말이지요.》 이렇게 되이며 평상복친구는 상대의 손을 흔들었다.

《그래 어떻게 방울 쥐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소린지 알수 없어 제깅웃친구는 상대의 얼굴을 멍히 쳐다만 보았다.

《남국동무말이요. 친구로서 어떤식으로 도와주면 좋겠는지?》

《아, 난 또 무슨 소린가 했구만.》 제깅웃친구는 껄껄 웃었다. 그는 자기의 배낭을 가리키며 말했다.

《난 그래서 뭘 좀 가져가는데.》

《뭘데요?》

《그런게 있지요. 우리 거기 진료소에 아주 능한 동의사가 한사람 있는데 거기서 만드는 보약.》

《보약이요? 그걸루 어떻게? 그 동무의 병을 그걸루야...》

평상복친구는 말꼬리를 얼버무렸다.

제깅웃친구는 눈이 등그래지며 물었다.

《병이라니? 그 친구가 어디 앓게?》

《아니 편지를 보고 떠났다면서요?》

《내 편지엔 그런 소리 없던데, 어디 좀 봅시다. 가지고 왔소?》

평상복친구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주었다. 그것을 받아들고 제깅웃손님은 급히 눈훑음을 했다.

《나한테 온것하구 같구만뭘. 내용을 똑같이 쓴 다음에 이름만 다르게 박아넣은것처럼 신통히두 같은데.》

이렇게 말하고 제깅웃친구는 상대를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평상복친구는 편지를 도로 받아서 이미 밑줄을 그어놓은 대목을 가리켰다. 그것은 이런 구절이었다.

《…광산 기술혁신조에 망라시켜줄가 했는데 기술파에 소환시켜주더구만. 차라리 잘됐지. 기술혁신조에 들어가면 사람이 좀 힘드네, 늘 갯에 들어가 살다싶이 해야 되고…》

제깃웃친구가 이것을 읽고나서 머리를 쳐들자 평상복친구는 먼산을 보며 입을 열었다.

《저렇게 뻘뻘말입니다. 갯에서 굴진공, 착암수로 있을 때는…》 그는 이렇게 말하고 빠스손님들이 자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있음을 느끼고 어성을 낮추었다. 《그때는 로력혁신자로 기술혁신창의고안의 명수로 이름 떨치던 사람이 어떻게 된 노릇인지 근간에 오면서 저래진단말입니다.》

말을 듣고보니 생각이 깊어지는듯 제깃웃친구는 머리를 끄덕거렸다. 평상복친구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이번 편지에 흔적을 감추어버린것이 하나 있는데.》 그는 그것이 무엇인가 묻듯이 상대를 잠시 쳐다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기술혁신에 대한 이야기는 차차 줄어들다가 이번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그렇게도 흥분을 가지고 내밀어나가던 반자동착암대차는 과연 어떻게 됐는지, 성공했는지 말았는지 일언반구 없단말입니다.》

《참 그랬지. 언젠가는 편지가 전부 그 소리였는데.》

《그랬지요, 내 그래서 병사시절 그 정신으로 산다고 보았는데… 사람이 정신적으로 높이 올라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견지하고 어느때나 변하지 않는것이 또한 못잖게 중요하다는걸 최근에 더욱 느끼게 됩니다.》

평상복친구가 이렇게 말할 때 제깃웃손님은 고개를 떨구고 신발끝으로 땅바닥에 박힌 조그만 돌덩이 하나를 뿌쳐내는 무의미한 동작만을 계속했다.

《정동무를 좀 도와줍시다. 건져줘야지 병사시절 그 사람을 우리 전우들만이 알지 않습니다. 어려운 강행군때 줄음이 물려와 걸음발이 떠지는 병사는 누구보다도 그 옆에 서서 가는 전우가 먼저 알아채는게 아닙니다. 그때 등을 탁 쳐서 정신차리게 해주듯이 친구로서 오늘 동무를 깨우쳐줘야지요.》

《난 그 생각은 못하구.》 하고 제깃웃친구는 혼자소리로 뇌였다. 《친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구 기뻐서 축하를 해주는 겸 반갑게 만나보자구 했는데…》

《글쎄 승급이야 뭐 나뻘니까.》 하고 평상복친구가 대꾸했다. 《사람이 승급을 해도 좋고 강직이 될 수도 있지요. 직종이 변하건 직급이 달라지건 어디서 언제나 사상이 변질 안되고 정신이 퇴보하지 말아야지요.》

제깃웃친구는 말없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평상복친구는 자기의 들가방을 열어보이였다. 거기에는 몇권의 책과 잡지가 있었다.

《최근에 나온 광산기계설비에 대한 책과 잡지들인데 더러 옛날것두 있구. 아무리 생각해봐야 그저 말로만 충고를 줘서는 안되겠더란말입니다. 그 동무두 뭘 하느라구 하지만 력량이 딸리던가 그래서 더 힘을 못내고 물러서는것이 아닌지. 하긴 광산에 이런 책이 없겠소만 이게 다 하나의 자극이 되지 않겠나 해서… 아침에 도서관에 나가 머물거려다나니 어느새 차시간이 되는지. 마침 열람실에 온 앞집 학생아이가 있어서 집에 알려달라구 부탁을 하구 부랴부랴 나왔더니, 친구한테 오랜만에 간다는게 너무 빈손이 돼서 뭇하긴 한데…》

차장이 빠스문을 열고 손님들을 태우기 시작했다.

약간 흐트러졌던 빠스줄이 곳곳이 정돈되였다. 제깃웃친구는 곧 자기 자리에 들어섰지만 평상복친구는 줄에 끼일념을 못했다. 제깃웃친구는 줄에 들어서라고 손짓했다. 그러나 평상복친구는 어쭙은 미소를 짓고 다른 손님들의 얼굴을 보았다. 제깃웃친구는 뒤손님들에게 함께 가는 친구인데 좀 끼우자고 양해를 구했다. 이미 그들의 관계를 알아본 손님들은 어서 그러라고 말했다.

평상복친구는 동무의 생활에서 나타난 결함에 대해서는 막역한 친구지간의 정이 상할 우려에 구애되지 않고 가차없이 비판의 수술칼을 들이대고저 먼길도 마다치않고 용약 달려가는 그 용단과 굳센 마음과는 달리 이런 때는 이즈음 돌아가는 말대로 그지없이 쫓나게 놀았다.

《이거 참 미안합니다.》 하고 그는 줄선 사람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더없이 미안해하는 얼굴로 줄에 들어섰는데 손을 잡아끄는대로 친구의 앞으로가 아니라 굳이 그를 앞으로 밀어보내고 그의 뒤자리에 들어섰다.

손님들은 자기 차례가 되여올수록 오르는 사람들이 동작을 좀더 빨리하여 줄이 어서 줄어들었으면 하는 초조감과 내 차례까지 무사히 가 내겠는가 하는 우려가 고조되어 누가 알면 민망할 정도로 심장들이 뛰었다.

빠스안이 거의 차게 되자 차장은 조이라는 소리를 자주 하였고 줄선 사람들도 속으로 그렇게 웅크렸다. 차에 오르기전까지는 누구나 그 강렬한 요구에 차있다가도 일단 빠스문턱을 올라서기만 하면 어느덧 립장이 돌변하여 자리를 편안히 잡으려는 생각에 몰두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뜨거운 친구》 네친지들, 공원의친친구 세사람은 뒤의 두 친구들을 넘려하여 차에 오르면서부터 어서 바싹바싹 조여주자고 말했다 자기들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이때 차장은 문을 닫으려 했다. 순간 넥타이친구는 닫기는 문을 비집고 차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는 차제로 문은 곧 닫히고 말았다.

차에 올라선 제깐웃친구는 차장에게 같이 가는 사람을 한명 더 태우자고 다급히 간청해댔다. 그러나 결국 문은 열리지 않고 차는 푸르릉 발동을 걸었다.

희색평상복친구는 웃으며 버스안의 사람들에게서 가라는 손짓을 했다. 그리고는 움직이려는 버스옆을 지나 급한 걸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여 그의 옆을 지날 때 넥타이친구가 차창유리를 밀어 열고 소리쳤다.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오. 줄을 서야지.》

《걱정마시오. 난 걸어가겠으니 미리 걷는게 안전하지.》

《걸긴 왜 걸겠소?》

《차가 못올수도 있지 않겠소. 그까짓 이제부터 걸으면 오늘중으로 가내겠지 뭐.》

《아니 거길 어디라구 걷는다구 그러오? 정신나갔지.》

버스는 속도를 내어 두사람이 더 무슨 말을 해도 쓸데 없게 멀어져갔다.

얼마쯤 갔을 때 제깐웃친구가 다급히 말했다.

《차장동무, 저 사람은 내 친군데 저 친군 정말 좋은 친구요.》

버스안에서 웃음이 일었다. 웃음이 그치자 저손님이 왜 오늘 저러는가, 친구요 뭐요 그런 소리를 하는가고 차장의 웃음섞인 그러나 야무진 소리가 울렸다.

《차장동무, 운전사동무, 내 웬만해서 그러지 않겠는데 저 사람은...》

제깐웃친구는 자기의 가슴을 탕탕 치기까지 했다. 차안에서 다시 웃음이 일었으나 이내 멎었다.

《웃을게 아닙니다.》 하고 녀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이미 공원의자에 앉았던 박천녀인이었다. 《저 동진 좀 태우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옳수다.》

《태워줍시다.》

역시 그를 잘 알게 된 공원의자친구 두 남자손님들이었다.

매를 놓치지 않고 제깐웃친구가 다시 말했다.

《운전사동무, 날 내리드래두 저 사람은 좀 태웁시다.》

차는 드디어 멎고 문이 열렸다.

《뜨거운 친구》는 급히 내려가 저 멀리 걸어오는 친구에게 손을 흔들었다.

평상복친구는 뛰어왔다. 제깐웃친구는 그를 밀어올리고 자기의 여행가방을 열었다. 그러면서 얼마간 어물거리는데 차장이 빨리 오르라고 재촉했다.

제깐웃친구는 서둘러 가방에서 물고기통줄임과 파일통줄임을 꺼내어 이미 당파류가 들어있는 비닐구렁에다 넣어서 방금 올라선 친구에게 들려주었다. 그리고는 긴박한 정황에 맞지 않게 천천히 말했다.

《거기서 혼자 가시구레. 동지는 정말... 친굽니다!》

평상복친구는 그게 무슨 소린가고 하며 어서 오라라고 손을 잡았다.

제깐웃친구는 손을 뿌리치고 한발 물러서서 웃으며 말했다.

《가서 내 말은 비치지 마시구레. 내야 뭐 그저 웃을줄만 아는 막친구인데...》

차안에서 누군지 그 사람들 말두 꽤나 많다고 투덜거렸다. 그것은 제깐웃친구의 말이 재빨라지게 했다.

《차안에 배낭, 식전 30분 한봉지. 우선 거기서 갖다 써야겠수다. 꼭 그렇게 하시우다. 남국이한테는 후에 내 또 보내지요, 그 사람이야 아직 몸이 펴평한데.》

이렇게 하여 버스는 얼마간 움직이지 않고있었는데 안에서 이 친구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별난 사람들때문에 시간만 지체된다고 불만을 토했다.

차는 드디어 결심을 내린듯 문이 닫히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평상복친구는 다시 문을 열려고 했으나 차장이 그러지 못하게 했다.

버스에서 내린 사람과 새로 오른 사람, 두 친구는 서로 퍼그나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보였다.

새로 오른 사람을 이미 알고있는 사람들, 역전공원의자에서 얼마간 같이 지낸 길동무들은 그더러 어디 앉을것을 권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인사로만 되었다. 빈자리가 없었던것이다. 길동무들은 그와 그의 여행목적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해야 좋을지 몰라 속을 태웠다.

그러나 본인은 그들을 만류하여 웃으며 말했다.

《일없습니다. 전 그저 빨리 가기만 하면 됩니다.》

비소리, 바람소리 외 2 편

홍성두

깊은 밤,
창밖에 소연한 비소리, 바람소리…
총메고 초소를 지켜섰던 몸이라
이런 밤엔 문득 떠오르나니
비내리던 초소의 밤,
그밤의 비소리, 바람소리가

들려오는구나
하늘땅이 뒤집힐듯 우뢰울고 번개쳐도
전사의 자세 흔들림없던
그날의 비소리, 바람소리
스무해도 더 넘는 세월을 넘어
이밤 창문을 두드리느 저 소린…

묻는가, 어제날 병사에게

보초장의 부름에
자리차고 전호로 달려가던 그밤
이제라도 조국 위해
집나설 준비 되였는가
그날의 그 전호를 찾아
언제든 비바람 헤칠 준비 되였는가

창문이 아니라 가슴을,
내 심장을 두드리누나
분계선너머 원쑤의 포성
오늘도 몇지를 앓았거니
비는 멎고 바람은 자도
순간도 안식의 발편잠 들지 말라고
나를 깨우치는 소리, 나를 깨우치는 소리
오오, 깊은 밤 비소리, 바람소리…

아름다운 녀인들

-영예군인의 안해들을 노래함-

그 누가 나에게
아름다운 녀인들이 누군가고 묻는다면
나는 제일먼저 그대들을 말하리라
이 나라의 영예군인들의 안해들이여

아름다움앞에선 흔히 기쁨부터 앞서는 법
허나 그대들의 삶을 두고 생각할제면
웬일인지 목이 메여오고 눈앞이 흐려지누나
마치도 아름다움이란 말뜻이
바뀌이기라도 한듯이

참으로 그랬다고 하자,
아름다움이란 말뜻이 바뀌었다고-
허나 수집읍에 랑볼 타던 그 시절부터
한생을 남편의 밝은 눈이 되어주고
팔다리 되어주며
오늘에로 걸어온 그 걸음걸음을 생각할제

어제는 송림의 처녀가
오늘은 또 안변의 처녀가…

이렇게 나날이 꽃피나는 그 이야기에
누군들 눈시울 젖지 앓았으랴
숫구치는 감격의 이슬에
누군들 달리 말할수 있었으랴
그대들 진정 아름다운 녀인들이라고밖에

소박함과 진실함이 한데 어울린
그 모습 못녀인들과 다름없건만
그대들의 남다른 아름다움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을줄 아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거니

산넘어 들 지나
천리 영예군인보양소를 찾아간 처녀
이름도 고향도 모르는
한 청년에게 사랑을 고백할제
그는 무엇을 보았고
그는 또 무엇을 생각하였던가

조국에 바친 전사의 삶이 있어

산에 들에 피는 꽃이 아름다운줄을 알았더라
한몸 부귀와 공명과는 인연없는 삶
동지를 위해 진정으로 자기를 바치는
오직 그것이 소원이었나니

오오, 영예군인의 안해,
에서 더 큰 헌신이 어데 있으며
영예군인의 안해,
에서 더 큰 아름다움이 어데 있으랴
남편이 조국 위해 한목숨 아끼지 않았듯
그렇게 남편을 도와
투쟁에 한생을 아낌없는 녀인들

그대들 그렇듯 값높은 아름다움 지니엿건만
거리에 나서면
한눈에 알아볼수 없음이 아쉬웁구나
그대들의 앞가슴에
그 어떤 표식이라도 하나 있다면
우리 온 나라가 다 보는 앞장에

내세워주기라도 하련만-

아니,
아름다움에 그 무슨 장식이 필요하랴
나라 위한 싸움에
상처깊은 이 나라의 아들들을
못잊어 한밤에도 감못드는
어머니당의 그 사랑 안고,
그 사랑 남모르게 꽃피워가는
에서 더 큰 행복 그대들은 모르거니

나는 생각하노라, 영예군인의 안해들이여
조국을 사랑해
그토록 영예군인들을 사랑하고
영예군인들을 사랑해
그토록 조국의 파사로움을 더해가는
그대들처럼 아름다운 녀인들 더는 없다고
그대들처럼 값높은 삶 더는 없다고!...

아버지에 대한 추억

나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없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전-
벌에서 논김매다
전선으로 달려나간 아버지
원쑤와의 싸움에서 돌아오지 못했거니...

나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없다
아버지의 모습이라곤
미체를 쳐부시고 기어이 돌아오리라고
웃으며 동구길로 떠나던 그날처럼
마지막 습격의 길 떠나던 날도
웃으며 찍었다는 한장의 사진뿐,
아버지의 성난 목소리도 들어보지 못했고
부드러운 애무도 받아보지 못했다

나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없다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물이라곤
조국앞에 세운 군공으로 빛나는
포연내 스민 훈장과 메달뿐,

허나 이보다 더 귀중한 유산을 나는 모른다

나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없다
다만 나는 믿고싶다
전선에서 돌아온 이웃어른들처럼
나의 아버지도 반드시 돌아오리라 믿으며
때없이 동구길을 바라보던
철부지 그 시절인듯
세 아이의 아버지 된 오늘도 그렇게 믿고싶다
병사였던 나의 아버지
오늘도 병사로 전선에 계신다고...

나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없다
허나 나는 언제나 소중한
가슴속에 안고 산다
결전의 언덕에 목숨바친 나의 아버지
못잊어 렬사로 내세워준 조국의 추억속에
오늘도 살아있는 그 모습을, 영생의 넋을...

스승

김종원

나는 여직껏 스승이라고 하면 대체로 학문을 비롯하여 생활의 진미를 가르쳐주는 《선생》, 다시 말해서 학식도 높고 생활경험도 풍부한 그런 나이 지숙한분들로 생각하여왔다. 그러나 요즈음 나는 스승에 대하여 달리 생각하게 되었다.

얼마전 어느날 나는 김광철영웅이 공부하던 학교를 찾은적이 있었다.

아담하고 산뜻한 학교교사는 분홍빛 봄꽃들속에 묻혀있었다. 해빛이 쏟아지는 넓다란 운동장, 그 변두리에 키높이 자란 백양나무, 크고작은 철봉대며 갖가지 체육기자재들, 우리 조국땅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학교들중의 하나였다. 허나 여기가 우리 당이 내세워주고 우리 전사들이 따라배우는 김광철영웅의 모교였구나 하고 생각하니 나무 한그루, 오르는 계단 하나에도 그의 넋이 어려있는듯싶어 무심히 스쳐지날수 없었다.

교장선생의 안내로 잘 꾸러진 학교를 돌아보다가 한 교원실에 들어서니 여러 교원들이 반갑게 맞아주는것이였다. 교장선생은 여기 있는 선생들이 모두 김광철영웅을 배워주었다고 한명한명 소개를 하였다.

나는 그들과 마주앉아 잊을수 없는 김광철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영웅은 학교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남달리 의협심이 강했으며 인정도 많았다고 이야기하였다. 모두 그에 대해서는 좋은 인상들만 가지고있는듯싶었다.

그때 귀밑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녀교원이 나직한 음성으로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다.

《기자동무들은 우리가 김광철영웅을 키웠다고 이렇게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군요. 우리야 그에게 수학공식이나 학문의 기초지식을 배워주었지만 영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나요. 인간의 삶은 어떻게 빛나야 하는가를 생활의 철리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보면 어제날 우리들의 제자였던 영웅은 오늘 우리의 스승, 아니 온 나라 사람들의 스승으로 떠받들린셈이지요.》

둘러앉았던 교원들 역시 모두 옳다는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스승, 참말로 깊은 뜻이 담긴 말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영웅적으로 살며 영웅이 되는것은 자주적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값있고 보람찬 삶으로, 가장 높은 영예로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를 물론하고 인생에 못잇는 스

승들이 있다.

학창시절 창밖은 교실에서 기초지식을 배워주던 선생님들, 밤깊도록 미지의 과학세계를 점령할 탐구의 눈을 띄워주던 머리 희숙한 박사와 교수들, 또 자기가 전공하는 과학기술분야를 성공시켜주기 위해 때없이 개별지도를 주던 사람들, 이들은 누구에게나 다 귀중한 스승들이다.

하기에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도 스승을 못잊어 추억하며 진정으로 뜨거운 존경을 보내는것이다.

그러나 스승이 제가 키운 제자를 스승이라고 부르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나의 눈앞엔 영웅의 모습이 우렷이 안겨왔다. 뜻밖에 닥쳐온 위험한 순간에 몇걸음만 비켜서면 자기의 육체적생명은 건질수도 있었건만 위험을 맞받아나가는 사랑하는 대원들을 구원하고 조국이 잊지 못하는 전사로 것처럼 빛나는 영생의 언덕에 오른 그 영웅은 참된 인생, 참된 삶에 대하여 교단이 아니라 눈덮인 혼련장에서 조국과 동지들을 위해 바친 불타는 심장으로 온 나라 사람들에게 가르쳐준것이다.

말로는 다 가르칠수 없는 고귀한것을 자기의 깨끗한 넋으로 사람들의 가슴에 안겨준 영웅.

사람들은 그의 숭고한 정신세계에 자신을 비쳐보며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달았다. 흘러가는 내물처럼 조용히 보내는 인생보다 순간이지만 짧은 인생을 조국을 위해 값있게 바친 삶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삶임울!...

그러니 당과 수명을 위해 조국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존경하여 마지 않는 생활의 《스승》들이 아닌가.

생각하면 이런 《스승》은 이 땅에 수없이 많다.

한별을 따르는 혁명의 길에 나섰던 20년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로부터 백두의 눈보라길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 불구름 타래치던 전쟁시기의 영웅들, 오늘의 새 세대 영웅들과 숨은 영웅들이 다 값높은 삶의 《스승》들이 아닌가.

이런 스승들에게서 것처럼 귀중한것을 배우기에 이 땅엔 충신과 효자의 대렬이 날마다 늘어가고있는것이며 값높은 삶을 꽃피운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시대의 전설이 되어 끝없이 전해지고있는것이다.

그렇다. 그들은 이 시각도 때없이 찾아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참된 삶의 강의를 해준다.

나는 영원한 혁명의 《스승》들이 있는 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길에서 또다시 숭한 영웅들, 투사들이 자랄것이며 불패의 우리 대오는 더욱 강대해질것이라는것을 굳게굳게 믿는바이다.

어제와 오늘

윤리대

귀여운 딸을 외진섬, 간석지건설장에 보낸 안해는 늘 걱정이 마를줄 모른다. 딸한테서 편지가 자주 오지 않으면 소식을 몰라 안달이고 또 계절이 바뀔 때면 추위와 더위에 대한 걱정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딸이 처음 간석지건설장에 갔을 때에는 적어도 한주일건너끔씩 편지가 날아왔는데 요즘은 웬일인지 달을 두세번 넘기기가 보통이다. 현장경험도 없는 그가 생소한 간석지에 나가 어려운 일을 꽤 감당할수 있을가 하는 걱정이 앞섰는데 인젠 스물다섯살의 과년한 나이가 되자 또 다른 걱정이 잔아지를 무수히 쳤다.

《여보, 성희가 올해 몇살인지 아세요? 스물다섯이예요.》

안해는 이렇게 묻고는 나를 뵈히 쳐다본다.

《그래 스물다섯이면 어떻다는거요?》

난 신문의 글줄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혹시... 총각들의 피임수에 걸려들지 않겠는지는 걱정이군요.》

《뭐 피임수?! 차라리 똑똑한 젊은이가 그엘 피여 갔으면 더 좋겠소. 아예 간석지땅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말이요. 안그렇소? 난 한일터에서 서로 도와주며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부럽더군.》

《그게 진정으로 하는 말이에요? 참 아버지들이란 왜 그렇게 덜통스러울가. 그앤 대학을 졸업한 당당한 기사란 말이에요. 그리구 또...》

《적어도 2급기업소 지배인의 딸이란 말이겠지...》

《그러니 어찌자는거예요? 아이 기차라...》

이런 다툼질이 있는지 사흘이 되던 날 정말 딸한테서 놀라운 편지가 날아왔다.

《...아버지, 사업소일이 무척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짜내여 여기 술섭에 한번 와주세요. 여기서 지금 대방향발파를 준비하고있는데 걸린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랍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것이 저의 소원이예요. 아니 저보담 우리 중대장동무가 얼마나 아버지께 애타게 기다리는지 몰라요. 군대에서 제대되자 곧바로 건설장으로 달려온 꿈 많고 포부가 큰 동무예요.》

이렇게 시작된 편지는 마감에 와서 방향발파를 성공시키기전에는 집에 갈 틈이 없다고 하면서 어머니더러 옷가지와 신발 그리고 미용에 필요한 좋은 약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대방향발파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가슴에 후두두 뛰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건설공사를 맡아 하면서 다섯번이나 방향발파를 성공적으로 해온 나였다. 그래서 방향발파라면 건설위원회적으로도 제노라고 떳떳하게 자부해오던터였다.

그런데 그것을 딸이 직접... 나는 한시바삐 딸을 만나고싶고 발파때문에 고심하고있을 그 낯모를 중대장을 도와주고싶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딸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안해는 웬일인지 심드렁해서 편지만 곱씹어 읽는다.

《여보, 중대장은 어떤 젊은이가요? 편지내용을 음미해보니 모든게 명백해지는군요. 이 일을 어찌먼 좋을가요?》

안해는 저도 모르게 호- 숨을 내쉬었다.

《아니 뭐가 명백하다는거요?》

《당신은 발파라는 말에 온 정신이 팔렸지만 그 아래를 잘 읽어봐요. 오죽했으면 중대장에 대한 말을 아버지에게 직방으로 했겠어요.》

나는 안해가 내미는 편지를 받아들고 다시 쪽 내리읽었다. 말을 듣고보니 어딘가 모르게 주저하고 부끄러워하는 딸의 숨결이 느껴졌다.

《하긴 명백하면 더 좋은거지... 그래야 성사도 쉽게 되는 법이 아니겠소.》

나는 일부러 태연스레 능청을 부렸으나 어쩐지 마음은 평온치 못했다.

《그애 말대로 똑똑한 젊은이라면 몰라도... 사랑에 깊숙이 빠져들면 흥허물도 좋게만 보인다면데...》

《별 걱정을 다... 우리 성희가 그런걸 다 가려보지 못하겠소. 간석지건설장에 자원해온 제대군인이라는데 어련하지 않을려구...》

《그래두 그앤 아직 철부지가 안예요.》

《뭐 철부지라구... 그애 당신은 몇살때 나와 첫사랑을 했소? 아마 그게 스물셋이었던가 생각하는데... 안그렇소?》

안해는 흘러내린 머리칼에 빈침을 고쳐 꽂으며 이윽도록 말이 없었다.

따져놓고 보면 그때의 안해보다 딸의 나이가 두살이나 우였으나 그래도 딸을 철부지로 보는것이 버릇처럼 굳어진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그래두 그때 사람들은 철이 인차 들었나봐요. 현대 지금 애들은 뭐가 뭔지 통 모른다니까요, 사랑이 얼마나 귀중하고 때로 심각한 문제로 번져지는

지...》

《모를 소릴... 어디 그애들에게 물어보우. 그러면
모름지기 〈어머니가 아버지 사랑하던 때와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하고 대답하질 않나?》

《정말 그럴가요?》

흔히 어머니들은 자기 청춘시절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회억하면서도 딸에게만은 엄격히
경계하고 훈시하는것이다.

《아무튼 이번 출장길엔 만사를 제쳐놓고 애한테
들리세요. 중대장도 만나볼겸...》

《그렇게 하지. 꼭 들려보겠소.》

나는 안해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서도 졸곤 같은
생각을 쫓고있었다.

어쩐지 중대장에 대한 생각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눈앞에는 처음으로 5만산발파를 진행하던 철도공
사장이 못견디게 떠올랐다.

청춘시절이었다. 꿈많은 돌격대 대장의 잇을수
없는 시절이었다. 대발파를 놓고 고심하던 나날들,
초조와 불안, 환희와 기쁨이 동시에 물결쳐 흐르던
순간들... 5만산발파가 성공하던 날 얼마나 기뻐했
던가. 돌격대원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 성공을 진심
으로 축하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 고심, 그 환희,
그 폭발적인 기쁨이 술섬에 묻혀있다니... 거기서
진행한다는 방향발파는 어떤것일까? 하긴 자그마
한 술섬에 무슨 큰 발파를 예견하겠는가, 천, 아니
면 기껏해서 만이겠지... 그런데 발파방향과 거리는
어떠할까? 술섬의 압력은 무엇인가?

대학을 나온지 두해밖에 안되는 딸이 그 거창한
일을 꽤 해낼까?

《어보, 그 중대장이 몇살이나 됐을가요?》

잠든줄 알았던 안해가 슬며시 이불깃을 열며 열
토당토않게 물었다.

《뭘요? 이건 한잠자리에 자면서 탄 꿈을 꾸다더
니. 여태 그걸 생각했소?》

《그게 왜 탄 꿈이겠어요. 당신이 지금껏 생각한
방향발파와 성희의 운명은 벌써 하나로 련결되어있
어요, 우리 청춘시절의 사랑두 그 대발파와 인연이
있는게 아니예요.》

안해의 말은 옳았다. 그때 우린 서로 사랑하면서
도 그것을 애써 숨겨왔었다. 오직 대발파의 성공만
을 바라면서... 5만산이 파헤쳐져 자기 속내를 드러
내는 날, 것처럼 고이 숨겨왔던 우리 사랑의 비밀도
송두리채 파헤쳐지고말았다.

《어쩌면 그애의 운명이 나와 비슷할가요? 꼭 당
신이 서있던 그자리에 알지 못할 중대장이 서있는
것만 같애요, 안그래요?》

정말 그렇다. 철도건설장과 간석지건설장, 흘러
간 시대와 년대는 달라도 청춘의 사랑은 예나 지금

이나 한뼘으로 흐르기마련이다.

그럴수록 딸을 보고싶은 생각이 이밤따라 더더욱
간절해왔다.

어릴적부터 남달리 아버지를 따르던 귀여운 외동
딸이었다. 언젠가 소년단야영소에서 돌아올 때도
다른 애들은 장난감에 미쳤지만 딸만은 맥주한병과
땡강쪽물부리를 아버지앞에 내놓았다. 그때 나는
어린 딸이 부어주는 맥주보다 그 가룩한 심정에 그
만 취해버리고말았다.

옆에서 이 광경을 묵묵히 바라보던 안해가 시샘
비슷이 말했다.

《앤 그저 아버지밖에 모른다니까...》

《아이참, 엄만 또 어떻게요? 아버지가 잠시 집을
떠나도 늘 아버지걱정이면서... 안그래요? 호호
호...》

딸은 엄마의 품에 안기며 깔깔 웃어댔다. 정말 그
에미에 그 딸이라더니 남편을 돕는 안해의 자극한
사랑은 은연중 딸의 마음속에도 조용히 움터올랐
다.

이렇게 성희는 철도건설장의 요란한 발파소리를
들으며 돌격대 대장의 딸로 태여났고 오늘은 큰 건
설사업소 지배인의 딸로, 당당한 녀기사로 자라났
다.

내게 소원이 있다면 끝끝한 아들을 두지 못한것
이랄까, 아니 하나밖에 없는 딸을 곁에 두고 살뜰하
게 도와주지 못하는것이였다.

지금도 이태전 딸을 간석지건설장으로 떠내보내
던 그날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 안해는 딸을 바래주며 이렇게 말했었다.

《넌 꼭 간석지건설장에 가야만 하겠니? 아버지
너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걸 다 했다. 사업소에 그
냥 남아 아버지를 도와주면 오죽이나 좋겠니? 남들
이 부러워하게...》

《어머니, 저두 죄다 알아요. 하지만 전 꼭 그곳에
가야만 해요.》

《너를 보내는 아버지두 속으로는 무척 서운해하
실거다. 끝끝한 아들이라도 있다면 몰라두...》

안해의 눈가에는 그들먹이 이슬이 고였다.

《아이참, 어머니두... 제 꼭 아들구실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힘껏 돕겠어요.》

이것이 내가 본 순진한 딸의 얼굴이였다. 그런데
지금도 그 말이 चे기처럼 가슴에 걸려 내려가지 않
았다.

안해도 잠이 오지 않는지 몸을 뒤척이더니 끝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래도 저두 함께 떠나야 하는가봐요. 어쩐지
맘이 놓이지 않는군요.》

《그만두우. 그곳 사람들이 뭐라구 하겠소?》

안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타까이 가슴만 조였다.

도에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던 나는 예정대로 술섬으로 가는 자그마한 돌배에 올랐다.

3월이라고 하지만 바다의 날씨는 쌀쌀했다.

(성희가 이 번덕스러운 날씨에 단련됐는가?)

딸은 언젠가 편지구절에 서해의 변화무쌍한 날씨가 별방의 미적지근하고 차분한 날씨보다 낫아다와 더 좋다고 했지만 그것은 다 자란 딸들이 부모를 위로하기 위한 너스레에 불과한것이다.

술섬이 점점 가까와올수록 이제 만나게 될 딸과 함께 이름모를 중대장의 환영이 자꾸 눈앞에 비껴왔다. 딸의 나이가 차면서 자주 눈에 떠오르곤하던 림름하고 대바른, 담차고 지혜롭게 생긴 모습이였다.

내가 술섬에 내린것은 저녁 늦추므레해서였다.

섬은 그리 크지 않았으나 화강암들로 기묘한 절벽을 이루었고 그우에 파르스름한 잔솔나무들이 의 좋게 옹기종기 모여앉았다. 황이 든 가독나무숲을 지나 비교적 평평한곳에 이르자 가설건물들의 맨 끝에 나지막한 중대지휘부가 나섰다.

반쯤 열린 나들문을 열고 방에 들어서자 물이 바랜 승마복을 입은 키가 흰칠한 젊은이가 나를 반갑게 맞았다.

《제 윤성희 아버지집니다.》

그러자 청년은 너무 뜻밖이라는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그럼… ㅈ건설사업소 지배인동지가 아니십니까! 제 채석중대장 장학철입니다!》

그는 마치 옛 지휘관을 만난 병사처럼 절도있게 차렷자세를 취했다.

《너무 그러지 마우. 난 단순히 아버지의 자격으로 여길 찾아왔을 따름이요.》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전보라도 쳤더라면 마중나갔을텐데… 이거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군인냄새가 몸에 배고 레질이 밝은 젊은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해빛에 검실검실하게 탄 얼굴은 얼핏 보아 서른이 넘겨다보였다. 키는 크지도 작지도 않으며 탄탄한데다가 가슴이 앞으로 바라져 오돌차보였다.

바로 이 젊은이가 지금껏 내가 그러보던 그 중대장이라고 생각하니 저절로 친근감이 갔다.

《그래 간석지엔 언제 왔소?》

《제대되자 곧바로…》

《고향에도 안들리구…?》

《잠간…》

《술섬에 건너온지는 얼마나 됐소?》

《겨우 다섯달밖에 안됩니다. 우린 여기서 새로운

채석장을 마련할 전투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말하자면 선발대들이군. 그러니 모든게 부족하겠소?》

《그래서 지금 합숙과 편의시설을 한쪽으로 건설하면서 동시에 대방향발파를 당장 준비하고있습니다.》

《그래 얼마짜리요?》

《예, 50만산입니다.》

《뭐 50만산?!》

난 처음에 50만이라는 수자에 놀랐고 그것을 당장 해야 한다는 촉박감에 어리둥절해졌다. 지금까지 궁금했던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나는 중대장을 바라보며 성급하게 말했다.

《가만, 날이 어둡기전에 현장부터 돌아보지 않겠소? 말을 듣고나니 궁금하구만…》

《잠간만 기다려주십시오. 내 인츰 성희기사동물 데려오겠습니다.》

《와두오. 섬에 있는 애가 갈매기라구 어디 날아가겠소. 중대장동무와 함께 돌아보면 되는거지…》

《지배인동지!》

(뭐 또 지배인이라구…?)

난 그가 나를 성희아버지라고 다정히 부를 대신에 지배인이라고 깍듯이 불러주는것이 어딘가 모르게 서운했으나 달리 어찌는수가 없었다.

《어서 가보지요.》

나는 모자를 쓰고 먼저 방문을 나섰다.

채석장꼭대기에 오르자 동그란 섬이 한눈에 안겨왔다. 검푸른 연무처럼 안개가 느슨하게 피여오르는 골짜기에서는 착암기의 동음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중대장은 너럭바위에 몸을 비스듬히 기대인채 술섬의 유래와 위치 그리고 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나서 이렇게 말을 이었다.

《지배인동지, 이 산이 바로 50만산입니다. 우리가 방향발파를 하자는 목적은 이 산을 통채로 고스란히 저 부두가에 옮겨놓자는것입니다. 여기서 저 부두까지의 거리는 300미터, 더 정확히 말하면 302미터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자칫하면 운반이 곤란하게 되고 또 귀중한 돌을 저 날바다에 처넣을가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발파방향과 위치, 암석에 따르는 장약의 세기에 대해서 지금껏…》

나는 중대장의 조리있는 말과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 어찌면 오래전 철도공사장에서 처음으로 진행했던 그 방향발파와 그렇게도 흡사하단말인가. 저 뽕죽산의 위치와 그 기묘한 형태, 발파방향과 거리, 지어 암질에 이

르기까지 어쩌면 꼭 같을수 있을까?

문득 집에 두고온 두툼한 자료수첩이 생각났다.
(내 망녕이지... 방향발파를 돕겠다면서 그 자료수첩을 놓고 오다니...)

나는 아직도 책장의 맨밀창에 깔려 먼지끼고 보풀진 자료수첩을 가지고 오지 못한것이 몹시 후회되었다.

《그래 방향발파에 필요되는 자료들은 있소?》

《있긴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좀 부족한것 같아서...》 중대장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물론 충분한 자료를 얻기란 힘든 일이지... 그것은 실천을 통해서 찾아야 하니까...》

그러는 사이에 사위는 어둠에 잠겼다. 바다는 밝음과 어둠의 계선이 없는듯싶었다. 나는 아쉬운 마음을 애써 누르며 잔돌이 깔린 비탈길을 천천히 내려왔다.

채석장에서 얼마쯤 내려와 한 가설건물앞에 이르자 중대장은 걸음을 멈추더니 저어하듯 한마디했다.
《성희동문 예서 일합니다. 잠깐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 불빛이 환히 비치는 방안을 넘겨다보았다. 좀 알싸하면서도 향긋한 냄새가 창밖으로 확 풍겨나왔다.

《미용원을 립시로 꾸렸습니다.》

《뭘 미용원?!》

내가 엉거주춤 방에 들어서자 언제 알아보았는지 《아버지!》 하고 부르며 딸이 급히 다가왔다.

나는 하얀 위생복을 입고 파르스름한 머리수건을 봉긋하게 쓴 딸을 보자 그만 아연해지고말았다.

《전 아버지가 꼭 오실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미쳐... 참 어머니 잘 있어요? 제 편지를 받고 옷이랑 미용약이랑...》

나는 너무나도 많은 질문에 미쳐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을지 몰라 그저 머리를 끄덕이었다.

《그래그래...》

나는 그동안 몰라보게 숙성한 딸을 바라보며 짐짓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전 얼마전부터 하루일을 끝마친후 미용을 해요. 처녀들이 어찌나 성화를 부리는지 통 빠져나갈수가 없었어요. 어때요?》

딸은 무슨 큰 자랑거리라도 생긴듯 중대장과 나를 번갈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음... 헐치 않겠구나.》

마음씨가 않아하는 기색을 발견한듯 중대장이 두둔하는 목소리로 한마디 풍겨주었다.

《미용솜씨가 정말 대단합니다. 섬세하고 독특하다고 할지... 그래서 처음엔 비밀에 붙였는데 지금은 다른 섬에서 처녀들이 돌배를 타고 밀려옵니다.

그러니...》

《아이 중대장동문 별 말씀을 다...》

말끝을 흐리는 딸의 얼굴에는 한껏 흥조가 피어올랐다.

《아버진 피곤하실텐데 여기 좀 앉아계세요. 제 인츰 하던 일을 끝내고 함께 가자요.》

딸은 내 손목을 이끌어 폭신한 의자에 앉히었다. 나는 의자등받이에 몸을 비스듬히 기대인채 딸이 하는 일을 몰끄러미 바라보았다.

두고 온 안해를 생각하면 먼 옛일같기도 하고 또 딸을 보면 어제런듯 생생한 그날이 못건디게 눈앞에 안겨왔다. 추억은 나래를 펴고 흘러간 지난날로 하염없이 거슬러올랐다.

...이 땅우에 천리마대고조의 열풍이 몰아치던 1960년대초였다. 군대에서 제대된 나는 당의 부름을 받고 곧바로 철도공사장으로 달려갔다.

그래도 모든것이 부족했다. 아니 지금보다 몇급절이나 어렵고 간고했다. 수천명을 헤아리는 건설자들에게는 따끈한 음식도 아늑한 잠자리도 없었으며 게다가 편의봉사당은 형편없이 모자랐다.

당시 돌격대대장이었던 나는 다른것은 다 참고견딜수 있었지만 한창나이 처녀들이 미용을 제때에 하지 못해 안타까와하는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날에 날마다 새로운 전투장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 철도공사장에는 미쳐 미용사가 그들을 따라서지 못했다.

나는 알맞춤한 미용사를 구해보느라고 사방을 수소문해보았지만 끝내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말았다. 이젠 어떻게 할것인가? 나는 하는수 없이 돌격대원명단을 펼쳐놓고 처녀들을 몇몇 불러냈으나 그때마다 쓴 헛김만 들이켰다. 처녀들은 미용사하면 서로 머리에 띄이고 다닐듯이 말하지만 막상 그 일을 배우라면 입을 비쭉거리며 도리머리를 쳤다. 이렇게 한사람두사람 밀려나가던 내 눈길은 명단의 맨 끝에 있는 장경순이란 이름에 와서 못박힌듯 서버렸다.

언젠가 채석장에서 돌을 굴리다가 무릎을 상했던 예쁘장하고 수집음이 많은 처녀다. 그때 마침 내가 달려가 처녀의 종다리를 잡고 사정없이 잡아당기지 않았던들 어떻게 했을지 모른다. 그래도 처녀는 다리의 아픔보다 부끄러움이 앞섰던지 《놓으랴요. 어서 놓아달라니까요.》 하고 연신 같은 말을 되뇌이지 않았던가. 나는 처녀를 어떻게 업고 사나운 벼랑길을 에돌아 병원에까지 단숨에 달려왔는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 다만 잔등을 사정없이 때리며 놓으랴고 애처롭게 부르짖던 처녀의 목소리만이 어렵듯이 들릴뿐이다.

여기까지 생각한 나는 그 처녀를 제압담 불러들였다.

《경순동문 래일부터 군미용원에 가서 미용법을 익혀오도록 하시오. 보름동안에 말이요.》

난 처음부터 유순해보이는 처녀에게 맏잔 오금을 박았다. 그런데 처녀는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창문쪽으로 몸을 휙 돌리더니 《전 못해요. 그런 일을 하자고 여기에 탄원해오지 않았어요!》 하고 딱 잘라버렸다.

나는 울컥 화가 치밀어 가볍게 떨고있는 처녀의 등에 대고 와락 소리를 질렀다.

《그럼 뭇때문에 왔소? 위훈을 세워 훈장이나 타자구?...》

나는 이렇게 말할 작정은 아니었는데 제풀에 야비하고 투박한 말이 입밖으로 새어나왔다.

《아무렇게나 말해도 좋아요. 하지만 전 그것만은... 정말 그 일만은 못하겠어요!》

처녀는 분한듯이 도도룩한 빨간 입술을 감쌀며 한번 힐끔 돌아보더니 인차 머리를 돌렸다.

《그럼 동무대신에 누굴 보냈으면 좋겠소?》

《그건 저두 몰라요. 다른 처녀들을 불러다 물어보세요.》

《글쎄 동무두 좀 생각해보란 말이요. 당의 부름을 받들고 달려온 우리 청년들이 머리단장마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무슨 청춘의 랑만과 희열이 넘쳐난다고 하겠소. 옥희동문 미용을 하는데 세공수를 바쳤다고 하지 않소. 그러니 우리 돌격대가 경쟁에서 뒤떨어질수밖에 지금 미용사 한사람이 열명 스무명을 대신한단 말이요. 그래 경순동문 그게 가슴아프지 않소?》

나는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새에 타협조로 넘어갔다. 입술을 감쳐물고 잘근잘근 씹던 처녀는 무엇을 말할듯 한숨부터 호- 내쉬더니 짜는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 리해할수 없어요. 어째서 그 일을 꼭 제가 해야 하는지?... 제게 뭐 남다른 독특한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까풀진 눈두덩을 재간스레 말아올리며 속눈썹을 사뿐히 쳐드는 품이 어서 대답해보라고 조르는듯싶었다.

나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말았다. 어째서 많은 처녀들가운데서 하필이면 이 처녀를 불렀는지. 이쁘장하고 촉기빠른 그가 앞으로 박사가 되고 이름있는 예술가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런데 그를 한갓 미용사로 만들다니...

난 처녀에게 무슨 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묵묵히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다.

사실 누가 위훈을 생각지 않고 건설장으로 탄원

해온 청년이 있겠는가. 제대배낭을 지고 여기로 찾아올 때 난 무엇을 생각했던가? 만일 나더러 누가 미용사가 되라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것인가?

아마 나도 이 처녀처럼 도리머리를 쳤을것이 아닌가?

《경순동무, 미안하오. 이 일은 응당 돌격대대장인 내자신이 해야 한다구 생각하오. 내가 직접...》

《아이 대장동무가요?! 호호호...》

갑자기 유쾌해진 처녀의 웃음소리를 듣고 나는 창가에서 물러났다.

《왜 웃소? 내가 직접 미용을 하면 안된다는 법이 어디 있소?》

《전 그럼 미용을 그만두겠어요. 정말 못하겠어요. 아이 창피해...》

처녀는 한손으로 입을 싸쥐고 금방 있었던 일을 죄다 잊은듯 또 웃음을 터뜨렸다.

난 문득 언젠가 이 처녀를 둘러업고 병원으로 달려갈 때 무엇때문에 신음소리대신에 내 잔등을 사정없이 때리며 놓으라고 것처럼 애통하게 부르짖었는가를 때늦게나마 느꼈다.

하긴 체중이 75키로나 되고 손이 갈퀴처럼 큰, 한마디로 곰처럼 둔하게 생긴 나에게 누가 고이 자래운 머리채를 맡길수 있겠는가?

맹랑해진 나는 말없이 방안을 무겁게 거닐었다.

문득 처녀가 조용히 다가왔다.

《제 한가지 물어봐도 좋아요?》

《...?!》

《대장동문 언제나 약속에 충실하겠지요? 책임직으로 대답해보세요?》

《물론...》

난 그가 어떤 제기를 할지 모르면서도 그걸 쾌히 승낙할 마음의 준비부터 갖추었다.

《그럼 좋아요. 첫째론 제가 건설장에서 미용을 한다는것을 다른 돌격대에는 절대비밀에 붙이는거예요. 그리구 둘째론 지금하고있는 다리공사만 완공되면 동시에 미용도 끝난다는것, 이걸 제게 약속할수 있겠어요?》

순간 나는 저도 모르게 처녀앞에 다가가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손목을 덥석 잡으며 웨쳤다.

《정말 고맙소! 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꼭 지키겠소! 돌격대대장으로, 제대군인으로 그리구...》

난 모든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 약속만은 지키리라고 다짐했다.

그런데 난 그때의 약속을 지킴껏 지키지 못하고 말았다.

철도공사를 마치고 다시 발전소건설장으로, 조국의 수많은 건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도 지휘관으

로, 그의 남편으로 그 빛을 종시 갚지 못하고말았다.

언젠가 도건설처에서 일할 때 좀 늦은감이 있긴 해도 안해더러 도서실이나 조용한 문서보관실에서 일해보지 않겠는가고 권한적이 있었다.

그때 안해는 얼굴에 추연한 빛을 띠우며 이렇게 대답했다.

《관뉘요. 한창나이엔 억지로 미용사가 되라시더니… 인젠 애어머니가 됐으니 맘대로 날아보라는거겠지요? 늦었어요. 하지만 청춘시절의 그 빛을 갚으라고 굳이 요구하진 않겠어요.》

《그럼 한생을…》

《미용이 어째서요? 젊은시절에 손에 익히고 몸뻔이 직업을 떠나선 못할것 같애요.》

난 안해를 고맙게 여겼다. 직업이란 검질겨서 한 번 그곳에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기 힘들고 또 정을 붙이면 한생을 바치는 그런것이라고 할가… 나는 자기 직업에 대한 무한한 애착과 긍지를 느끼며 성실하게 일하고있는 안해가 고마우면서도 한편 측은하게 여겨졌다.

《아버지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언제 일을 끝냈는지 딸이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응 그저 좀…》

나는 딸과 함께 희미한 달빛이 흐르는 바다가를 천천히 걸었다.

처절석! 파도소리가 이밤따라 유정하게 들렸다.

《낮에 일을 하다가 밤에 미용을 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나는 얼굴에 한껏 피곤이 실린 딸을 바라보며 넋리지시 물었다.

《괜찮아요. 제스스로 택한건데요 뭘.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너두 어머니처럼 미용을…》

《싫어요. 전 아버지처럼 한생을 건설부문에서 일하겠어요. 아버지일을 도우면서… 아버지인 그걸 바라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속속들이 꿰뚫어보는 딸을 보자 나는 그만 대답이 궁해버렸다.

《아버지, 오셨던 길에 방향발파도면을 좀 검토해주세요. 중대장동무가 그것때문에 얼마나 고심했는지 몰라요. 정말…》

딸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내 손목을 꼭 쥐었다.

《그으래, 도와주지 않구, 이밤으로 모든걸 다 걸속짓자꾸나.》

내가 중대지휘부에 찾아간것은 밤이 이슬해서였다. 불빛이 환히 비치는 방에는 중대장혼자만 남아 있었다.

《밤이 깊었는데 왜 주무시지 않고 나오셨습니까?》

도면을 펴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던 중대장이 나를 보자 반색했다.

《왜 그런지 건설장에 와보니 잠이 오지 않는구만… 제대배낭을 메고 철도건설장을 찾아갔던 청춘시절이 떠오르면서… 난 지금도 돌격대지휘부에 내가 서있는것 같소.》

《그럼 우릴 좀 도와주십시오. 50만산방향발파는 중대의 생명선과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보물인 도면과 함께 두툼한 계산자료를 내앞에 밀어놓았다.

나는 색이 바랜 도면을 한장두장 번져나갔다.

도면은 비교적 정확했고 계산수치에는 조금의 오용공차도 없었다.나는 지금 내옆에 중대장이 서있는것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전자수산기만 부지런히 눌러나갔다. 어쩌면 철도공사장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5만산방향발파와 그렇게도 흡사하단말인가. 다만 여기서 다른점이 있다면 5만산대신에 공이 하나 더 붙은 50만산일뿐이다. 5만산발파를 하나의 축도에 비유한다면 이 도면은 확대도와 다를것이 없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철도건설장에서 울리던 그 메아리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히 들려오는 듯싶었다.

그때 신문과 방송이 얼마나 떠들었던가. 사진인들 얼마나 찍었던가.그러나 설계자의 엄격한 눈으로 관찰할 때 그것은 가장 리상적이고 완전무결한 발파로는 되지 못하였다.

큰 바위돌같은 무지들이 제자리로 옮겨가지 못하고 잔돌들이 사방에 쥐여뿌려 술한 로력을 허비했던것이다.

이것은 청춘시절의 위훈이었지만 량심적으로는 돌이킬수 없는 실책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그 미흡한 원인을 찾기 위해 남몰래 고심해왔고 그후 여러번의 방향발파를 통해 그것을 현실적인 자료와 수자로 확증했다. 그런데 이 도면은 그런 약점마저 없는 한마디로 나무랄데 없는 발파도면이 아닌가. 대확도 채 나오지 못한 제대군인의 창조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놀라와 나는 도면밑에 있는 명기란에 눈길을 주었다. 그런데 설계자라고 쓴 네모꼴안에는 빈공간이 있을뿐이었다.

《이 도면을 중대장동무가 그렸소?》

《…》

웅색하게 서있던 그는 머리를 숙이며 어줍게 대답했다.

《그 자료들은 다 성희동무가…》

《허- 그러니 공동의 창조물이란 말이군… 중대장동문 군대에 있을 때 어느 부대에 있었소?》

《공병부대에 복무했습니다.》

그는 왜 그런지 기여드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그랬던군.》

한동안 머뭇거리던 청년은 한쪽 호주머니에서 두툼한 수첩을 꺼내들었다.

《사실 그 자료는 여기서...》

무심결에 그가 내미는 수첩을 받아쥐고 펼쳐보던 나는 그만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1963년에 진행한 5만산방향발파자료.》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운 낫익은 글씨를 보자 난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굳어지고말았다.

(아니 이 자료수첩이 어떻게 되어 그의 손에 와 있을까?)

나는 지금껏 책장의 맨밑에 먼지가 오른채 그대로 있을줄 알았던 그 수첩이, 여기로 오면서 그것을 잊고온것이 그렇게도 서운하던 수첩을 이렇게 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언젠가 보풀이 일고 색이 바랜 그 수첩을 보고 안해가 밤을 새우며 파란 뚜껑을 새로 씌웠는데 오늘은 또 누가 그우에 빨간것을 덧씌워놓았다.

나는 깊은 감회와 회억에 잠겨 책장을 하나 돌번쳐나갔다.

청춘시절의 잊을수 없는 자욱이런듯 해와 년대를 넘으며 달려온 무수한 락도들과 수자들, 때로 잊을수 없는 그날에 대한 감상도 숨김없이 적혀있었다. 이것은 나의 한생의 자랑찬 총화이며 청춘시절에 걸어온 나의 자서전이기도 했다.

처음 5만산발파로 서쪽을 울린 그 메아리는 10만산, 15만산, 20만산으로 퍼져갔고 1980년대에 이르러 잠잠해버렸다. 언제이건 그 빈공간을 메울 기회가 오리라고...

빨간 뚜껑을 새로 씌운 자료수첩에는 딸이 써놓았는지 장학철이란 이름이 빼젓이 써있었고 빈공간에는 깨알같이 박아쓴 수자들이 무수히 박혔다.

나는 말없이 자료수첩을 번쳐나갔다. 잊을수 없는 그날에 대한 짙막한 일기가 눈에 띠었다.

《...착암기, 착암기가 많았으면 얼마나 좋으랴. 돌격대원들의 손바닥에 물집이 생겨 세번이나 터졌다. 이제 몇번이나 터져야 방향발파를 진행하게 될런지? 미용일을 배우라면 그렇게도 싫다고 도리머리를 치던 옥희가 또 헛메에 얻어맞아 팔목이 통통 부어올랐다. 동무들이 병실에 눕혀놓고 보초까지 세웠는데 이번엔 창문을 뛰어넘고 또 현장에 달려나왔다. 아픔을 웃음으로 참아가며 남포구멍을 뚫어나가는 그 정상을 차마 보기가 괴롭다. 열여덟살의 애 어린 딸을 건설장에 떠내보낸 그 어머니가 이 정상을 목격한다면 뭐라고 하겠는가. 아! 난 인정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때 돌격대대장인 나는 어떻게

게 하면 종단말인가?

그러나 당앞에 엄숙히 멍세한 발파의 날은 조금도 어길수 없다. 우린 메와 정대가 아니라 뜨거운 심장으로 남포구멍을 뚫고나가야 한다. 이제 세월이 흘러 애송이 옥희에게도 귀여운 아들딸이 태어난다면, 아니 그들이 자라 기계앞에서 흥겹게 일하게 된다면 자기 부모들이 걸어온 그 험난한 길을 돌이켜보거나 할는지? 아, 착암기, 착암기가 더 있어야 할텐데...》

나는 어깨우에 파스한 손길이 닿는 촉감을 느끼며 조용히 머리를 들었다.

어느새 딸이 곁에 서있었다.

《아버지, 전 이 짙막한 일기를 읽어보면서 울었어요. 그 옥희가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라구...》

폭 젖어든 딸의 목소리를 중대장이 받아넘겼다.

《저두 어려운 일이 제기되면 이 수첩을 들고 착암공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난관앞에 주저앉았던 그들이 아버지들처럼 싸우자고 벌떡벌떡 일어서곤했습니다.》

그 말에 내 가슴도 저절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간고했지... 하지만 우린 5만산발파를 열달만에 성공시키고야말았네.》

《아버지, 우린 도면만 확정되면 두달안에 발파를 끝내자고 결의했어요.》

《뭘 두달안에?!》

난 아무런 타산도 없이 옥옥 내미는 성미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되물었다.

《야야, 이젠 지레대로 바위를 굴리는 일처럼 단순하게 아니다. 50만산대발파가 아니냐. 그래 겁이나지 않니?》

《아버지, 지레대도 지점만 잘 잡으면 지구를 든다고 했는데 방향발파도 그 원리가 아닐가요?》

장난기가 어린 딸의 얼굴을 한참동안 바라보고있는데 중대장이 수첩을 받아쥐며 발을 달았다.

《이 자료수첩을 보니 그땐 모든게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현대적인 착암기와 착정기 그리고 위력한 압축기도 다 갖추어져있습니다.

전 그 천리마의 정신으로 일한다면 못해낼것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 열기던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점점 빠져들어갔다.

이들이 지니고있는 무비의 담력, 굽힐줄 모르는 배심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대학을 졸업한지 이래 밖에 안되는 저 순진한 가슴에 언제부터 드놀지 않는 바위처럼 억센것이 자리잡았을까? 그것은 당이 안겨준 담력, 우리 시대 인간들만이 지닐수 있는 배심이 아니겠는가!

나는 날이 셀무렵에야 발파위치와 각도를 최종적

으로 확정하고 발파과정에 우연히 생길수 있는 경험수치까지 첨가하여 도면을 완성하였다.

나는 날이 밝자 곧장 부두로 나갔다. 고집스럽게 따라서는 중대장을 눌러놓고 나는 딸과 함께 걸었다.

해감내가 풍기는 드넓은 간석지는 아침해빛을 받아 고기비늘처럼 번쩍이었다. 끼룩끼룩, 새벽잠에서 깨어난 갈매기들이 먹이를 찾아 머리우를 맴돌았다.

멀리서 배고동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아버지, 이걸 갖고가세요.》

나는 딸이 내미는 자료수첩을 받아들고 뚜껑에 써있는 이름을 눈여겨보며 말했다.

《이건 벌써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것이 아닐가? 하긴 네가 꼭 주고픈 사람이라면야 나도 아까울것이 없지...》

나는 수집음이 한껏 어린 딸의 가름한 얼굴에서

안해의 처녀시절을 보는것 같았다.

《어머니두 이 일을 아시면 무척 기뻐하실게다. 아버지일을 도와줄 귀중한 아들이 생겼다구...》

《...》

딸은 내 가슴에 조용히 얼굴을 묻었다.

사람들이 바라는 일에서 끝없는 기쁨을 찾고 한생을 고스란히 바쳐온 어머니, 그 어머니의 피와 정신을 이어받아 패기와 담력, 굶힐줄 모르는 배심으로 일을 제껴나가고있는 딸.

그것은 단순한 세대의 바뀔만이 아니라 천리마시대와 벽찬 오늘을 체현하고있는 인간의 두 모습이었다. 래일에 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매혹적인 성격들일가?!...

나는 지금에 와서 여기 섬에 남기고가는것이 무엇이며 심장에 안고가는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달은듯싶었다.

한그루의 잣나무

리정래

비 겉자 해가 웃네
해 병글 웃자 설레는 푸른 잎새
따라웃네 속삭이네 꽃떨기인양
수경이 심고 간 한그루의 잣나무가

어언 심고간지 두해째 되어오니
아지들도 몰라보게 새로 컸구나
년륜은 또 새로 감겼으리
어느덧 몰라보게 키도 컸구나

아 이 나무아래서 다시 만나자
통일을 안고 다시 만나 열싸안자
서로 나눈 순결한 언약을
깨끗한 잎잎에 정히 새긴 나무야

네가 더 크기전에
네가 더 아지 펼치기전에
이 땅에 통일을 안아오자면
그 속삭임 잎새마다 스배였건만

자랐구나 너는 피나는 아픔과 더불어

숫구치는 너의 키 그 예리한 정수리로
못가슴을 사정없이 찌르며
푸른 아지 펼치고 하소하네

아 잎잎에 맺힌 이슬방울을
눈물처럼 피방울처럼 땅에 떨구며
심고 간 주인을 그린 나날이 벌써 얼마나
믿어다오 나무야
너를 이 땅에 심으며
가슴속에 함께 심은 신념의 기둥도
억세게 푸른 아지 펼치었으니

겨울 가고 봄이 오듯이
오리라 통일의 그날은
너를 그리안고 감격에 목메일
통일의 그날은 오고야말리라

아, 그날을 믿어 이 순간 웃고선듯
해빛 안고 잎새들 설레이는 잣나무
통일을 재촉하는 푸른 잣나무
수경이의 모습으로 티없이 웃고선듯하구나

우리 젊은이들 외 1편

리근지

극장에 가도
앉은자리 편하며 웃는
무리등보다 더 고운 마음
우리 젊은이들이더라

하루계획을 300프로 했다는
신문에 찍힌 흠잡이전투장의 젊은이는
농촌으로 진출한다고 우쭐렁이던
열차칸에서 만났던 애송이더라

스물두살에 박사 되었다는
금별혼장 가슴에 빠졌한 젊은이
작업복에 비젖은 배낭 메고
우리 농장벌 흠잡짐 지고 가던 대학생이더라

내 타관길에 길을 물을 때
가던길도 되돌아 동무되어주던
보조개 웃음곱던 농장의 그 처녀
온 나라 자랑된 영예군인의 안해더라

전투에서 전투어로
승리에서 승리로로

어버이수령님 따라 당을 따라
충성의 자욱 짙어가는 우리 젊은이들

불꽃튀는 건설장
속보판의 주먹같은 이름만봐도
어디선가 눈에 익은듯
얼굴조차 분명히 떠오르더라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혼담이라면
내 발벗고 나서더라
우리 젊은이들 앞날이야
조국의 믿음과 영예로 빛나거니

아, 마음 꽃갈고
일욕심 불갈고
내친 걸음 산악도 밀고나가는
하나같이 미더운 우리 젊은이들

조국이여 그 심장들이 떠받들고있어
언제나 부강하고
밝은 행복의 미소로 나날이 젊어
세기의 큰 걸음을 내디디는구나

눈 오는 날

눈이 오네
산에 들에 마을에
평평 내리는 눈

작업반 과학기술보급실에
반원들 한가정처럼 둘러앉아
과학농법 지식을 쌓으며
꽃피는 새해 농사이야기

올해는 덕밭에도 흠잡이를 하고
강냉이도 새 품종을 심자고
생각깊은 얼굴들에 봄을 가득 피우는
눈오는 날은 꿈도 많은 날이라네

내 어린 시절 두엄소바리에 앉아
아버지따라 들에 나가며
쌀이 되어 달라 노래 지어부르던
함박눈, 함박눈

그날의 고운 꿈

끝없이 속삭이며
창가에 농장벌에 내리는 함박눈
눈오는 날은 참 좋은 날

비료를 구색에 맞게 준
시약공 아주머니 구수한 이야기
물관리공 아바이 흐뭇한 경험이야기
올해는 정보당 한톤을 더 낼 마음들

고운 생각 고운 마음 금나락으로 영글라고
두엄을 한껏 깐 논이랑
새흠을 듬뿍 편 밭이랑
햇숨같이 포근히 덮어주며
눈이 오네 봄눈이 내리네

수령님 생각 나라 생각
티없이 깨끗한 마음들
풍년을 쌓아갈 이야기로 끝없는
눈오는 날은 농민의 가슴가슴에
쌀산이 쌓아지는 날이라네

소설의 흥미와 형상의 새로운 뜻

-단편소설집 《모닥불》에 대하여-

리기주

소설이 주는 감동은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큰 사건이나 요란한 생활에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단편소설집 《모닥불》(로정법)은 말하여준다.

이 책에 실린 소설들을 보면 그 대개가 심각하게 맺어진 인간관계나 갈등이 얹히면서 뻗어나가는 큰 사건을 내용으로 하고있지 않다. 그러나 매편의 소설들이 우리에게 주는 흥미와 감동은 크다. 이로부터 소설의 흥미나 감동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예술적흥미는 언제나 일상생활에 체현되어있는 깊은 뜻을 새롭게 알게 되는데서 그리고 고상한 생활세계에 스스로 이끌려들어가게 되는데서 생겨나야 한다.》

소설의 흥미나 감동은 일상생활에 체현되어있는 깊은 뜻을 새롭게 알게 되는데서 생긴다.

단편소설집 《모닥불》에 실린 소설들의 예술적 흥미는 독자들이 일상생활 평범한 생활에 담긴 심오한 사상을 새롭게 알게 하는데 있다.

일상생활은 우리가 늘 체험하는 친숙한 생활이다. 작가는 우리가 흔히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는 생활에 심오한 사상을 심어줌으로써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소설의 형상은 인간과 생활을 사실 그대로 생동하고 의의있게 묘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속에 담겨있는 심오한 사상을 감성적으로 체험하고 파악하게 하는데 그 본질이 있다.

단편소설집에 실린 소설들은 어느것이나 그것이 배경으로 삼고있는 시대와 생활은 실지 체험있는 사람들만이 자기가 겪은 일들을 가지고 소설을 썼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며 또 다르게는 이렇게 흔한 이야기를 가지고 소설을 쓴 작가의 솜씨가 대단하다고 감탄하게 한다. 이것은 결국 작가가 일상생활을 소설의 소재로 취하고 거기에 어떻게 심오한 사상을 담는가, 그 사상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형상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단편소설 《마중가는 길》은 탁아전용 빠스운전사가 애기들을 태우고 들일 나간 어머니들을 마중하여 젖먹이려 다닌다는 이야기를 담고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작가는 우리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이기에 이들을 위해 일하는 보육원이나 운전사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상을 감명

깊게 보여주었다.

단편소설 《모닥불》은 우리가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가지 생활을 가지고 썼다. 담배가 건강에 해로우니 끊어야 한다고 말하는 일꾼들이 실지 끊었는가 끊지 않았는가 하는 이야기, 모내기철이나 김매기철 새벽에 발이 시려 얼어떨어질듯한 찬물에 일꾼들이 먼저 뛰어드는가 뛰어들지 않는가, 비오는 올씨년스러운 날 새 땅을 일구는 작업장에서 농장원들의 몸을 덥혀줄 모닥불을 어떻게 피우는가 하는 생활이 소설 《모닥불》에 펼쳐지고있다.

참으로 범상한 이야기들로 엮였지만 소설은 판로 주의적이고 요령주의적이고 경험주의적으로 일하는 관리일꾼들의 사업 작풍과 방법을 비판하고 군중속에서 우리 일꾼들이 설 자리는 어디이며 어떤 사람이 과연 우리 사회의 참다운 일꾼인가 하는 매우 절실하고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데 이 소설의 사상적내용의 심오성이 있다.

단편소설 《새봄맞이 가자》나 《신념》, 《한 병사의 이야기》같은 작품들에 대해서도 꼭 같은것을 말할수 있다.

《새봄맞이 가자》에 그려진 생활은 과연 소설로 될만한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범상한 생활을 소재로 하고있다. 소설은 해방전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소학교에 다니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싸가지고 갈 점심밥도, 변변한 신발도, 나들이에 걸칠만한 옷도 없는 형편에서 봄들놀이에 가느냐, 마느냐 하는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있다. 그러나 작가는 이러한 생활속에 큰 뜻을 심었다. 발벗은 애들을 불러줄 희망의 봄동산, 점심 굶은 아이들을 안아줄 품, 강도일제에게 모든것을 빼앗긴 불쌍한 조선의 아이들이 갈곳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품이고 그이께서 안아오시는 광복된 조국의 봄동산이라는것이 작품의 사상적알맹이로 되고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고무신장사군로인이 인민유격대에 신발을 보장해준 짙막한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쓴 소설 《신념》은 장사도 제나라가 있어야 한다는 심오한 사상을 천명하였다. 이상 몇편의 작품을 두고 소설을 쓰는 작가는 자기가 체험한 모든 생활을 소재로 취할수 있다는것을 말할수 있으며 결코 소설로 될수 있는 소재란 비범한 생활, 기발한 사건에 있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명백히 주장할수 있다. 물론 기발한 사건, 진기한 사실이 흥미를 끌수 있다. 그러나 그런 생

활은 흔치 않다. 작가가 그런 진기한 생활을 찾아다니는데 몰두할수는 없다. 어차피 작가는 자기가 체험한 평범한 생활에서 소설의 소재를 취하는수밖에 없으며 생활이 통채로 작가에게 소설을 주기는 만무하다.

문제는 평범한 생활을 소재로 취하되 그것이 소설로 되게 하는데 있는것이다.

평범한 생활을 어떻게 소설로 만드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작가가 생활을 어떻게 대하고 평가하며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다.

단편소설집 《모닥불》에 실린 소설들에는 생활의 본질을 추출해내는 작가의 예민한 관찰력과 정치적인 분석, 평가의 립장과 태도가 명백히 나타나고있으며 생활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는 불같은 열정이 스미여있다. 작가는 평범한 생활의 밑바탕에 흐르고있는 시대와 생활의 본질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함으로써 전형적인 생활과 성격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작품에 시대와 생활의 본질이 일반화된 깊은 뜻을 가진 사상을 반영할수 있었던것이다.

시대와 생활의 본질이 체현되지 아니한 생활, 작가에 의하여 사상이 부여되지 않은 생활은 무의미하고 예술적흥미를 일으킬수 없다. 비록 그것이 아주 단순한 일화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람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할만한 생활이 일반화되고 큰 뜻이 심어진다면 커다란 예술적감화력을 가지게 된다는것을 단편소설집 《모닥불》에 실린 소설들이 잘 말해주고있다.

모진 갈증을 이겨가며 행군하던 인민군병사들이 무한한 경모의 정을 안고 《김일성장군님께서 다녀가신 박우물터》에서 온 중대의 물통에 샘물을 채우고 행군을 계속하는 이야기를 소재로 한 단편소설 《거룩한 자옥》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승리의 요인을 뚜렷이 밝혔다. 소설의 사상은 붉은 화살표로 위치를 가리킨 박우물터 표말에 대한 주인공 《나》의 주정토로써 표현되었다. 인민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안으신 조국의 운명을 한 어깨에 걸머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전쟁에서 우리 인민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자그마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술적으로 일반화하여 훌륭히 형상하였다.

단편소설 《한 병사의 이야기》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총을 잡고 원썬놈들을 죽이며 남녘땅을 해방해나가는 인민군대렬에 선 《농민대표》로 불리우는 병사 상신의 생활을 소재로 하였다. 소설은 그의 사고와 행동과 의지를 통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자유와 행복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원썬와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우리 인민 모두의 불같은 신념과 의지를 예술적으로 일반화하

였다.

요컨대 평범한 생활을 가지고 평범한 이야기를 만들지 않고 평범한 생활에 큰 사상을 심어주는 여기에 소설적형상의 참다운 의미가 있으며 독자들로 하여금 누구나 자기가 체험한것으로 여기는 일상 생활에 체현되어있는 시대와 생활의 본질을 새롭게 깨닫고 흥미를 가지게 하는 여기에 생활에 대한 예술적 일반화, 개성화의 힘이 있다.

단편소설집 《모닥불》에 실린 소설들의 예술적 흥미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상한 생활세계에로 스스로 이끌려들어가게 하는데 있다.

소설의 예술적흥미는 높은 사상성이 감정정서적으로 진하게 채색되어 독자들이 작품의 생활세계에로 자연스럽게 끌려들어갈 때 생겨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단편소설집에 실린 여덟편의 소설 거의가 《나》의 이야기이거나 《내》가 본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로 되어있다는것에 관심을 돌리게 된다.

《나》의 시점에서 나의 생활을 그렸거나 제3자의 생활을 묘사한것은 확실히 형상의 감정정서적색채를 더하는데 작용하고있다는것을 부인할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작가는 자기의 주장을 독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것을 자신의 이야기로 전개하기를 즐기고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이렇게 하는것이 보다 유리하고 용이하다고 여기는것이 분명하다.

단편소설집 《모닥불》의 작가는 생활을 극적으로, 서사적으로 파악하기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서정적으로 파악하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소설들을 분석해보면 작가는 흔히 생활을 사건적으로 파악하는 극작가나 또 다른 소설작가들과는 달리 서정적으로 파악하는데서 창작적개성을 드러냈다고 할수 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개개의 소설들에서 공부정인물의 대립관계에 기초한 갈등선이 설정되어있지 않으며 성격발전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격렬한 사건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인물들의 성격은 주로 《나》의 심리정서적체험세계의 개방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말하자면 수필과 비슷하달가. 평범한 생활에서 소재를 취하여 깊은 사상을 담은 소설을 썼다는 의미도 여기에 있고 또한 그러한 사상이 감정정서적으로 진하게 채색되었다는것도 이로써 설명할수 있을것이다.

단편소설 《마중가는 길》에서는 《나》인 오정록이 주인공인 탁아소 보육원 복금이와 함께 일하면서 겪은 체험을 통하여 사회주의농촌체제의 빛바래 번영하고 윤택해지는 우리 나라 농촌의 문화적발전면모를 레찬하고있으며 단편소설 《모닥불》에서는 《나》인 협동농장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윤상이가 리당비서와 함께 일하는 과정에 체험

한 생활을 또 하나의 《나》인 기자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을 빌어 우리 시대 일군의 전형적 성격과 함께 사상적으로 뒤떨어진 일군의 혁명화과정을 생동하게 묘사하였다. 《나》의 시점에서 생활과 성격을 그린 때는 단편소설 《신념》이나 《한 병사의 이야기》 등에서도 들수 있다.

《나》는 작가 자신이 작품속에서 벌어지는 생활에 대한 사상적립장이나 태도를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작용할수 있는 가능성을 줄뿐아니라 그로부터 받는 감정정서적체험도 자연스럽게 드러낼 가능성을 준다. 따라서 독자들은 단편소설집에 실린 소설들을 읽으면서 사건의 전개에 매혹되는것이 아니라 《나》의 사상과 심리정서에 공감하고 심취하면서 작품의 생활세계, 현실세계에 이 끌려간다.

그렇다고 하여 작가는 《나》의 입을 빌어 형상하려는 사상주제적내용을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납득시키려고 설교하지 않았다는데 대하여 우리는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왕왕 소설에서 작가나 주인공의 주정토로가 작품의 주제사상을 천명하는데 리용되고있는것과는 달리 《모닥불》에 실린 소설들에는 생활에서 우리나라 오는 《나》의 심리적체험이 생활과 밀착되어 자연스럽게 펼쳐지면서 소설의 감정정서적색채가 돋구어지고있다.

생활세부의 옳은 선택과 묘사는 시대와 생활의 본질을 일반화하고 그것을 감정정서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는데 크게 작용하며 또한 잘 선택된 세부적인 생활일화들이 보다 깊은 감정정서를 불러일으킨다는것을 단편소설집 《모닥불》에 실린 작품들은 실증해주고있다.

《모닥불》에 실린 소설들이 평범한 생활을 소재로 하고있다는것도 바로 생활에 흔히 있는 일화들을 가지고 쓴데 있다. 작가는 독자들이 누구나 체험했거나 또 체험할수 있는 생활적인 일화들을 소재로 삼으면서 그에 대한 인물들의 평가가 동반된 심리, 내면세계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끈질기게 파고들어 묘사하는 솜씨를 보이였다. 소설의 감정정서적색채는 작가의 선포에 의해서 입혀지지 않는다.

아름답다는 개념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아름다운것을 표상할수 없듯이 소설창작에서도 구체적인 생활세부를 묘사하지 않고서는 생동한 표상을 주는 감성적인 형상을 창조하지 못한다.

인간성격과 생활의 본질을 명료하게 드러낼수 있는 생활단면 세부를 옳게 선택하고 진실하게 묘사하는것을 떠나서 소설의 예술적흥미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날카로운 갈등도 심각한 사건도 없는 소설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단편소설 《새봄맞이 가자》, 《신념》, 《거룩한 자옥》, 《우리는 친형제로 자랐다》나 《마중

가는 길》, 《한 병사의 이야기》 할것없이 단편소설집에 실린 소설들에서는 독자들을 놀래우거나 긴장시키는 그러한 《사건》을 찾아보기 어렵다.

독자들이 강하게 느끼게 되는것은 소설들에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생활이 바로 그것이 진행되는바와 같이 그대로 꾸밈없이 펼쳐지고있다는것이다.

단편소설 《새봄맞이 가자》는 좋은 실례로 된다. 녀선생 한주가 아이들에게 새봄을 맞으니 들놀이 가게 된다고 말하자 그들은 온통 기쁨에 겨워 얼굴들에 꽃같은 웃음을 지었다. 한주는 아이들의 그런 환한 얼굴을 지금껏 본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일순간이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실망, 침울, 걱정의 그늘이 비긴다. 이 순간의 생활을 포착하여 작가는 가난에 조들리는 집 아이들과 부모들 그리고 녀선생의 심리의 움직임과 행동을 구체적인 생활로 깊이있게 전개하고 진실하게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을 공감시킨다.

단편소설 《모닥불》도 마찬가지이다.

소설은 세부적인 생활일화를 련속적으로 전개하는 수법으로 인물들의 성격을 그려내고 사상주제적과제를 해명하고있다.

모내기철, 한여름 내내 내리워볼 사이 없이 걸어올리고 다니는 작업복바지, 허리춤에다 맞얹어 끼운, 언제 신어보았는지 흙 한점 묻지 않은 로동화작이나 꿈무늬에 언제나 차고다니지만 무디여 본적 없는 낫, 이러무한 세부들에 의하여 형상된 운상의 성격은 생활의 복판에 뛰어들지 않고 가덕에서만 맴도는 뒤떨어진 일군의 모습으로 전형화되었으며 작가는 여기에 그자신이 자기의 지난날을 뒤우치고 반성하는 심리를 심오하게 추구하여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을 작품세계에로 자연스롭게 이끌어가고있다.

단편소설 《신념》이나 《우리는 친형제로 자랐다》 등 작품들에 대하여서는 더 논의할 필요도 없다.

생활의 세부를 골라 이야기를 넣는다고 하여 거기서 반드시 예술적흥미가 생겨나는것은 아니다. 생활에 있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하나의 의의 있고 흥미있는 소설로 엮자면 작가의 기교가 발현되어야 한다. 이 측면에서 작가는 주로 생활을 대하는 작가자신과 등장인물의 심리정서적체험이 강렬한 주정의 토로, 서로 다른 성격들의 뚜렷한 대조, 과거 착취사회제도와 오늘의 행복한 사회주의제도의 대비, 소설에서의 이야기의 발전과 더불어 축적된 감정을 급전시키는 수법 등을 재치있게 구사함으로써 형상의 독창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소설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의 기교에 대하여 루루히 다 이야기할수는 없다. 평범한 생활이

야기를 해나가다가 일정한 계기점에 도달하면 이야기를 급전시킴으로써 소설에 사상을 박아넣는 수법은 작가의 독특한 솜씨라고 할수 있다.

지독한 갈증을 참으며 패주하는 적들을 추격하여 행군을 다그치던 인민군병사들은 한곳에 이르러 《**김일성**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박우물터》(단편소설 《거룩한 자욱》)라는 표식말의 글발을 본다. 여기로부터 갈증을 이겨내는 병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모없는 애들의 생활을 녀려하시고 그들을 키우기에 지성다하는 할머니의 소행을 평가하시어 보내주신 염소에 대한 이야기(단편소설 《우리는 친형제로 자랐다》) 나라없는 민족의 설움과 비참한 정상에 찢어지는 가슴을 부

여안고 거리에 나온 한주가 낮모를 청년에게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왜놈들을 무리로 족치셨다는 통쾌한 소식을 듣는 장면(단편소설 《새봄맞이 가자》), 고무신가게방주인로인에게서 미군장교놈과 《치안대장》놈이 빼앗아낸 회중시계로 하여 벌어지는 사건(단편소설 《신념》) 등은 다 평범한 생활에 큰 뜻을 심는데 작용한 전환적인 이야기들로 만드는 계기로 되었다. 이 이야기들은 인물들의 성격을 부각하고 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을 밝혀내는데 훌륭히 이바지하고있다.

일상생활에 담긴 깊은 뜻을 사람들이 새롭게 깨닫도록 소설을 쓰는데서 단편소설집 《모닥불》은 작가들에게 좋은 실천적경험을 준다.

천리마동상에 부치는 노래

항 영

모란봉 잔디밭에
철없이 덩굴 때
천리마여
내 마음은 자주 네우에 올랐다
옛말의 룡마같은 그 높은 하늘가에

살구꽃속에 봄이 웃는 날
천리마학급의 영예안고
너를 배경으로 기념사진 찍을 때도
천리마여
부럽기만 했더라
네우에 어른 될 꿈을 얹으며

세월은 흘러
사랑하는 처녀와
모란봉을 내리는 별많은 가을밤
설레는 젊은 두 가슴에
천리마휘장 빛날 때
쳐다보니 동상우에 두 모습 우리런듯
부풀던 마음이어

천리마의 선구자
나의 아버지 어머니시여
3대혁명의 기수로
내 어느덧 그때 그대들 나이
우리 아이들이 또다시
꿈을 실으며 바라보는 천리마

허나 그대들은 변함없어라

우리 수령님 보아주신 그날의 모습으로
달리는 천리마우에선
세기도 순간인듯
세월의 눈비도
빈터에서 떠난 머나먼 강행군길도
그대들의 모습을 다치지 못했구나

락원의 이 강산은 풍요해도
90년대의 하늘을 나는
천리마 네 발굽에선
첫 출발의 그날처럼
대고조의 열풍 세차고
속도전의 박차속에
년대를 앞당기며 너는 쉬임 모르누나

금방 재를 던 조국이어서
남이 열걸음 걸을 때
백걸음 천걸음 걸어야 할 조국이어서
천리마여
우리 수령님 그 조국을
너의 청동잔등에 태웠나니

남을 따르는것으로는
도무지 성치지 않아
언제나 남보다 앞서나감이
천리마여 너의 성미
오, 당의 해빛 찬란한
너의 청동앞가슴에
공산주의 테프 맨먼저 안기리라

장암산처녀

리철호

가을이다. 양털같은 흰 구름이 널려있는 푸른 하늘에는 솔개미 한마리가 유유히 떠돌고있다. 이따금 일문봉쪽에서 불어오는 한가닥 바람이 잣나무우듬지들을 조용히 흔들뿐 산속은 고요하다.

조금만 입김을 불어도 금방 불이 일어날상심은 빨간 찔방이가 다복다복 매달린 나무밑에 도보건 부국장 남학수가 퍼터버리고 앉아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회채화덥불이 푸른 갈기처럼 우뚝 일어섰는데 무시로 한들거리는 보라꽃우로 벌들이 봉봉군리며 날고있었다. 어디선가 한줄기의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러자 무릎위에 놓여있던 하얀 종이장이 그의 발밑에 날려 떨어졌다. 이곳 장암산으로 약초채취를 나온 현과장이 보내온 편지였다. 남학수는 종이장을 집어들고 또다시 글줄을 더듬기 시작했다.

《부국장동지, 정말이지 여기 장암산에서의 올해 약초채취계획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산에 약초가 얼마 되지도 않거니와 그나마도 이곳 사람들이 캐가지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동무들이 산으로 오르다가 여기 진료소의 간호원처녀가 길목을 막아서는바람에…》

(음…)

남학수는 처음 편지를 받았을 때의 울컥하던 화기운이 되살아올랐다.

약초를 못캐게 하다니 그것도 한집안 사람이 말이다. 설사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 해도 그 처녀야 약초채취의 중요성에 대해 도리어 하나하나 이야기 해줘야 할 립장이 아닌가. 그 욕심쟁이같은 《꼬쟁이》 소장이 자기 진료소의 약초채취계획때문에 선손을 쓰는가부다. 그건 그렇다치고라도 현과장은 또 얼마나 답답한가. 임무를 받고 들어갔으면 어떻게 하나 제힘으로 풀어보려고 노력할대신 약초가 있소 없소 하면서 흥정부터 하다니… 우리때에야 힘이 들어두 조건이 아무리 불리해두 타발이란것을 몰랐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란 참…

이렇게 편지 한통이 남학수의 가슴에서 욱을 덩으로 퍼냈었다. 정말이지 작년부터 미달되기 시작하는 약초계획때문에 남학수는 속이 달아 돌아쳤다.

수시로 제기되는 채포치사업, 야생약초발에 대한 현지확증, 크고작은 회의들…

그 바쁜속에서도 남학수는 장암산쪽으로 내보낸 현과장조에 기대를 걸면서 사업의 여유를 가지곤 했었다.

장암산은 남학수가 군병원 약국장으로 일할 때부

터 근 20년간 약초를 채취한 《단골》이다. 산골짜기마다에 그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곳이란 없었다. 그런데 믿는 도끼 발등찍는다고 이런 《신통》한 편지가 날아온것이다. 그래서 남학수는 서둘러 장암산으로 떠나왔던것이다. 부국장이 된 이후로 처음 내려와서인지 추억도 자별했다. 그래 그는 도중에 차를 세우고 산자락으로 접어든것이다. 남학수는 몇군데 있음직한곳을 찰러보다가 점차 실망에 잠기기 시작했다.

약초가 별반 눈에 띄우지 않았던것이다.

하수골에 가보자… 그래도 《절간목》 골짜기에는 좀 있겠지… 혹시 《벌바위》 근처에는?… 이렇게 산을 세개나 넘었었다…

푸른 하늘 저쪽에서 운모같은것이 반짝거린다. 솔개미였다. 그놈은 갑자기 나무사이로 마주 내다보이는 《벌바위》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예리하게 구부러든 주둥이며 목을 감싼 재빛털의 깃이 세차게 훑날리는것까지 똑똑히 보이는 거리쯤에서 멈춰섰다. 그러더니 두다리를 꼬당겨 황급히 허공을 차며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다.

앞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잡관목들이 흔들거리고 말소리처럼 들려오는 노래소리가 도란도란 끊어지더니 《벌바위》 옆으로 웬 처녀가 불쑥 내려섰다. 전이 넓은 흰 채양모를 둘러쓰고 배낭을 짊어졌는데 한손에는 기다란 나무회초리가 노래소리에 맞추어 흔들거리고있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바위 밑을 유심히 살피더니 갑자기 배낭을 벗어놓고 주변의 잣나무사이를 오가며 무엇인가 찾기 시작했다.

나지막한 싸리나무앞에서 그는 허리를 폈다. 그러더니 채양모를 뒤통수에 눌러붙이며 방긋 웃음을 지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은 그가 약초캐는 처녀 일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남학수는 자리에서 움쭉 몸을 일으켰다. 그를 만나서 무엇이든 묻고싶었던 것이다. 그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가던 남학수는 성냥가치를 긋는 소리에 피곳 눈길을 들었다. (산에 성냥을?!…)

순간 그는 아연해서 그자리에 우뚝 굳어지고말았다.

나무밑에 쭈그리고앉은 처녀가 담배를 피우고있었던것이다. 동그란 턱을 약간 쳐들사 하고 뽕죽하게 종그린 입으로 연신 하얀 연기를 내뿜는 처녀의 다리잡직한 얼굴엔 평온한 기색뿐이었다. 처녀는

성차지 않은듯 불이 패이도록 힘껏 연기를 빨아서는 앞에 서있는 짜리나무밑에 대고 후-후- 하고 내 불며 장난까지 했다.

남학수는 자기도 모르게 엉거주춤 몸을 움츠렸다. 심장이 후들거리고 숨이 턱 막히는듯싶었다.

처녀는 갑자기 어깨를 웅송그리더니 자지러지게 기침을 짓기 시작했다. 그는 련속되는 줄기침을 참으려고 애쓰면서 머리를 젖더니 조금후에는 꺾꺾거리며 제혼자 웃어대는것이였다.

(허허 참!)

남학수는 어이가 없어 허거픈 웃음을 지었다.

좀 진정이 되자 처녀는 주위를 휘돌러 보고는 다시금 담배를 빨기 시작했다. 어린 처녀가 담배를 피우다니 ...

남학수는 아무리 좋게 생각을 잇대보려고 하여도 의혹은 점점 더 커졌다.

그대로 공지에 나서자니 처녀가 너무도 놀랄것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몸을 궁싯거렸다.

그때였다.

짜리나무 무더기째에서 무엇인가 움썰 떨어지는듯싶더니 푸른 하늘로 연기발같은것이 흑 떠올랐다. 《아유나!》

처녀는 탄성인지 비명인지 모를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불시에 몸을 솟구쳤다. 새까맣게 떠오른것을 띠여보니 산뿔뿔였다. 처녀는 날아가는 뿔뿔를 불러 앉히려는듯 두손을 허공에 한껏 내뻗치고 허겁지겁 몇걸을 따라서다가 나무등결에 발이 걸채었는지 몸을 흠칫 떨더니 풀숲에 쓰러졌다.

(저런?!... 쯔쯔...)

남학수는 급히 공지로 나섰다. 그가 말을 건넌새도 없이 처녀는 뿔뿔 일어나 발을 저거디디며 뿔뿔를 쫓아 잡관목들사이로 사라져버렸다. 바람이 따라서며 공지의 풀대를 일매지게 눕히자 처녀가 넘어졌던 자리에 떨어진 채양모가 흰새처럼 날아갈듯 들썩거렸다.

(허, 뿔치는 처녀가 보군.)

남학수는 무거운 중량물을 내던진듯 뻗뻗해진 목을 손으로 문지르며 제풀에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나이든 사람들의 생각이란 의심깊은 처녀에라는 말이 옳은가보다. 괜한 처녀를 욕되게 생각하다니...

주위에서는 풀잎들에서 나는 씹쓰무레한 풀향기가 풍기고 산뿔의 울음소리가 산속의 정적을 깨뜨리며 여기저기서 구성지게 울려왔다.

남학수는 채양모를 집어들고 배낭이 놓여있는 《벌바위》 쪽으로 다가갔다. 벌려진 아구리사이로 얼굴을 내민 하얀오지단지 뚜껑이 눈길을 끌어 뚜껑을 열어보니 노란꽃이 찰랑찰랑 차있었다.

오지단지 뚜껑에 꿀을 묻혀 썩임으로 비질을 하면 세간벌을 쉽게 잡을수 있겠는데 처녀는 무엇때

문에 담배연기로 잡을 생각을 했을까?

아무리 궁냥을 해보아도 남학수는 통 가늠이 가지 않았다.

남학수는 한옆에서 처녀가 태우다 버린듯싶은 커다란 담배꽂초를 집어들었다.

썩임을 뜯어 종이 반지에 서둘게 만 《담배》는 남학수의 마음을 이상하게 건드렸다.

한동안 기다려도 처녀는 종시 나타나지 않았다.

얼마후에 자리를 털고 일어난 남학수는 처녀가 사라진쪽을 향해 산길을 내렸다. 그렇게 한동안 걸어 내려왔는데 문득 활엽수들이 서있는 숲속에서 다루는듯한 거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저절로 걸음발이 빨라졌다.

처녀는 파란줄이 엷비슴이 건너간 샤쓰를 입은 웬 청년과 마주서있었다.

무슨 말인지 열성적으로 하고있는 처녀앞에서 청년은 지루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처럼 이쪽 저쪽을 살피며 서성거리고있었다. 그러다가 이편으로 피긔 얼굴을 돌렸다. 그때야 남학수는 뿔스레 낮익어보이는듯싶었던 《줄무늬샤쓰》가 현과장조의 약초 채취성원이라는것을 대뜸 알아보았다. 반가웠다. 그들쪽으로 다가가려는데 처녀의 새된 목소리가 그의 발목을 붙들었다.

《동무, 말좀 하라요! 왜 말을 못해요?》

《잘못했다지 않소.》

마지못해 내뿔는 청년의 짜증섞인 목소리가 울려왔다.

《정말 이해할수 없어요... 동문, 약제사가 아니에요. 어제도 잘못했대, 오늘도 잘못했대...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오늘 또 1년생 도라지를 켜었으니...》

《허, 참!》

청년은 쓰거운듯 한마디 하고는 입맛을 다셨다.

《웁소... 동무 말대로 우린 모두 소경이요. 그래서 큰것 작은것도 못가려보지요. 그러나 이 도라지가 무엇에 필요한지는 알고있소! 그러지 말고 어서 길이나 비켜주시오...》

《못비키겠어요!... 그리고 똑바로 알아두라요. 난 아무리 아파두 동무가 뜯어간 약초로 만든 약은 먹지 않을테야요!》

《이 동무가 정말? ... 아무말이나 탕탕!》

청년은 열이 올랐다.

《아무말이 아니에요. 동무는 아무리 귀한 손님이 제집에 왔기로서니 갓 까나온 병아리를 잡아서 상에 올려놓지는 않을테지요?》

처녀는 두손을 가슴우에 모두어친채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동무눈엔 그래 1년생 도라지가 병아리처럼 안보인단 말이에요? 이 산에는 병아리밖에 없단말이에요! 그러니 엄지닭을 잡겠거든 가까운 산에서

만 맴돌지 말고 저 일문봉쪽에 가보세요. 그저 마을
가까운데서만 맴돈다니까 술개미같이…》

처녀는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더니 하얀 몸통이가
절반이나 드러나보이는 도라지뿌리에 흙을 덮기
시작했다. 그것을 민망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던
《줄무늬샤쓰》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되돌아서
쫓기우듯 달아났다.

남학수는 자기 자신이 그 어떤 모욕이라도 받은
듯한 불쾌감을 느꼈다. 마치 제집자식이 나쁜짓을
하다 붙들린것을 목격한 부모의 심정이었다.

처녀가 그가 서있는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불쑥 나타난 남학수를 의아한 표정으로 마
주보았다.

(그러니 이 처녀가 현과장이 편지에서 이야기하
던 장암진료소 간호원이란 말이지…)

한 스물뒤살쯤 돼보인다.

첫눈에 인상깊게 안겨오는것은 갈숨한 얼굴에
이슬에 젖은 머루알처럼 새까만 두눈이었다.

《아바인 어디서 오셨는데 이렇게 산길루?…》

《길 좀 묻자고…》

남학수는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을지 몰라 어정
쩍하게 떠듬거렸다.

《길이요? 아, 그러니까 아바인 룡양을 오셨어
요?》

남학수는 얼결에 머리만 끄덕였다.

《그럼 저하고 함께 내려가시면 돼요. 여기서 좀
기다려주세요. 인출 짐을 가지고 오겠어요.》

처녀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남학수는 방금전에 그들이 서있던곳으로 다가
갔다. 생흙이 드러난 땅에 연약한 대 한끝을 휘우
듬히 땅에 드리우고 시들이 서있는 도라지가 눈길
을 끌었다. 포기밑에는 갓 다져놓은 처녀의 손자
옥이 또렷이 찍혀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히 잎새를 어루쓸었다.

(허참! 이것이 병아리란 말이지…)

그러자 술개미같이 마을 주변에서만 맴돈다고
질책하던 처녀의 목소리가 귀전을 쳤다.

불현듯 그의 생각은 아득히 멀어진 추억의 공간
으로 날아갔다. …

그해는 남학수가 책임지고 나온 장암산약초채
취조가 도적으로 약초계획을 제일 많이 수행한 해
여선지 기억도 자별했다.

제후에 들떠 코노래를 흥얼거리며 김이 서려나
는 가마안에서 찢 약초들을 퍼내던 남학수는 문득
토방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주인집 딸에게 눈길이
미쳐졌다. 그애의 품안에서는 노란 병아리가 대
가리를 내밀고 《삐웅-삐웅-》 소리를 지르고있
었다. 또 술개미가 뜬가보다.

언젠가 자기 어머니가 일하는 유치원 닭사의 병
아리를 술개미가 날아내리며 덮쳐가는것을 본 이
후로는 머리우에서 나무잎만 흔들거려도 기겁을
해서 하늘을 올려다보군한다는 애였다. 저쫓되면
유치원에도 안가고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술개
미가 없어질 때까지 병아리를 지킬 심산이었다.

남학수는 빙그레 웃으며 토방으로 다가갔다.

《하, 야단이군! 오늘은 저놈의 술개미를 꼭 잡
으려고 했는데… 누가 무서운지 내리지 못하는것
같구나.》

그러자 두무릎을 포개안고 줄곧 술개미를 지켜
보던 소녀가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아저씨, 그런데 저 술개미는 왜 저렇게 높이 떠
있나요?》

《먹을것이 어디에 많을가 하구 내려다보기 위해
서지.》

《그런데 아저씨가 술개미를 잡는다는건 거짓말
이지요?》

남학수는 처녀의 엉뚱한 물음에 당황하기도
하고 한편 우습기도 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거북
함을 당했을 때 어른들이 흔히 그러듯 소녀의 머
리만 쓸어주었다.

《네가 날 영 어리둥하게 만드는구나. 어른말이
야 들어야지. 어서 이 아저씨를 믿고 유치원엘 가
거라. 그렇게 하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술개는 눈치가 빠르대요.
그래서 어른들도 잡지 못한다고요. 정말이냐요?》

유치원에 떠밀려가면서도 금시 차거운 《가을
비》가 쏟아질것 같은 눈빛으로 애처롭게 떠는 병
아리를 바라보던 소녀의 눈빛이 지금도 선하다. …
바람이 불어오자 도라지 우듬지가 그의 손을 툭
툭 건드린다.

생각에 잠겼던 남학수는 눈앞에 처녀의 그림자가
비껴서야 천천히 일어섰다.

처녀는 남학수의 침침해진 얼굴에서 제나름의 글
을 읽은듯 나직이 말했다.

《도에서 약초채취를 나온 사람들이 그랬어요. 정
말 한심한 사람들이예요. 그 사람들은 크건작건 약
초라고 생긴것은 마구 뜯어가요. 도보건국 부국장
동지가 몹시 다긋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일요일에
도 쉬지 않고 모두 산으로 오른가봐요.》

넓은 공지에는 잎을 흔들며 지나가는 바람소리만
이 소연했다.

처녀가 나직이 내긋는 숨소리가 뜨거운 열풍처럼
남학수의 얼굴에 끼쳐졌다.

남학수는 한동안 감찰라서야 큰 숨을 내쉬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달아올랐다.

《부국장이… 그렇게도 무섭다요? 허허…》

《호호… 그렇게 말이에요.》

처녀의 입에서 또다시 엉뚱한 말이 튀어나올것만 같았다.

남학수는 황황히 몸을 일으켰다.

둘은 산길을 내리기 시작했다. 밋밋한 언덕에 올라 창하게 자란 나무들은 경사지에 뻗뻗하게 모다붙어 설자리와 한조각의 하늘을 놓고 서로 싱깅이질을 하는듯싶었다.

처녀는 등에 진 배낭을 조심스레 추스르면서 날렵하게 앞서 걸었다.

길아닌 길인데도 참나무, 고로쇠나무, 소나무잎 사귀들이 층으로 덮인 폭신한 땅을 능란하게 골라 걸었다.

처녀는 자기 이름을 유청림이라고 소개했다. 한 해전에 양성소를 나오고 리병원 간호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덧붙이는 처녀가 남학수에게는 별나게도 편인상깊은 모습이었다.

처녀는 스스럼없이 알고싶은것을 물었으나 상대방의 심리따위에는 영 무관심한듯 전혀 개의치 않았다.

《아바인 여기가 처음인가 보지요?》

《처음은 아니요.》

남학수는 건성으로 대꾸했다.

《그때도 료양을 오셨었어요?》

《그땐... 하늘을 날아서 왔댔소.》

《어마야! 비행기를 타구요?》

청림은 그 말을 몇번 곱씹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학수를 바라보았다.

하긴 짧은 혈기의 시절 약초를 찾아 산밭을 오르내리던 남학수에게 《야크》라는 비행기의 별호가 붙어있었는줄 이 처녀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는 흐느끼듯 숨을 툇으며 목덜미에 축축히 내뿜은 땀을 훔쳤다.

청림은 걸음을 멈추었다. 주위를 휘둘러보던 그가 급히 길옆에 무성하게 자라오른 풀덤불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조금후에 되돌아나왔는데 그의 두손에는 울감자 크기만한 파란 산열매가 들려져있었다. 청림은 익숙한 숨씨로 생닭알을 구멍내듯 찌리꼬챙이로 열매의 아래우를 따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남학수앞으로 내밀며 권했다.

《하마트면 지나칠뻔했어요. 우리 장암산의 특산인데 열음이라는 열매예요. 잡썰보세요.》

《요그르트》 것처럼 상그럽고 이가 시리도록 찬기운이 온몸에 스며들자 이제껏 답답하던 가슴이 켱 열리는것만 같았다.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체넨 여기서 산지 오래우?》

《예, 전 어릴적부터 여기서 잣나무열매를 따어요. 여기 장암산 나무들도 나보다 나이가 어리답니다.》

그들은 울창한 수림속에 들어섰다. 태양광선이 줄대마냥 내리드리워져있다.

청림은 자기앞에 펼쳐진 자연의 세계를 촌촌히 휘둘러보았다. 커다란 참나무 한대가 서있는쪽에서 축축하고 서늘한 바람이 풍겨나왔다. 싱싱하게 뻗어 거무칙칙이 뒤엉킨 나무아지들이 가을인데도 무성한 잎사귀를 자랑하며 주위를 어둑컴컴케 했다.

《아유, 고놈의 참나무가 애를 먹이네.》

청림은 입속말로 무엇인가 종알거리더니 등에 젖은 배낭을 조심스레 벗어놓았다.

《아무래두 올라가 봐야겠어요.》

《무슨 일이요?》

청림은 대답대신 생긋 웃음을 지어보이더니 참나무밑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운동화를 가볍게 벗어던지고 불쑥 몸을 솟구쳐 제일 아래컨 가지를 붙들었다.

남학수는 급히 나무밑으로 다가갔다.

그 나무우듬지에는 가는 나무가지로 열기설기 엮어진 커다란 새둥지가 있었다.

《?!...》

처녀의 통통하고 늘씬한 다리가 남학수의 눈우에서 어른거렸다.

《떨어지겠소!》

남학수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청림은 사내아이처럼 재치있게 몸을 일으키더니 어느새 두번째 웅이우에 올라섰다. 그리고는 팔을 뻗쳐 바람에 흔들거리는 뽕줄기 한끝을 한잡이나 신고해서야 붙들었다. 한발을 앞가지에 번겨닫고 잠시 주춤거리면 자리를 고르고는 뽕줄기를 힘껏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무성한 참나무가지가 한쪽으로 벌려지더니 남학수의 눈으로 태양광선이 직선으로 비쳐들었다.

《아바이, 좀 비켜주세요!》

처녀가 쟁쟁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남학수는 열결에 몇걸음 움직였다. 그리고 청림이가 나무우에서 주시하는 눈길을 따라 뒤쪽으로 몸을 돌이켰다.

아무것도 눈에 띄우는것이 없었다.

단지 이름모를 새 두마리가 풀덤불속에서 땅을 힘껏 차며 하늘로 날아올랐을뿐이다.

《이젠 됐어요.》

어느새 아래 웅이에 내려선 청림이가 땅밧을 살피며 잠시 머뭇거렸다.

《뛰어내려선 안되우!》

남학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전에 처녀는 불시에 몸을 까부리더니 아래컨 가지를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렸다.

경황없이 다가가던 남학수는 돌부리에 발이 걸채면서 나뉘었다.

앞쪽 풀덤불속에서도 처녀가 황급히 얼굴을 내밀었는데 그의 한쪽눈은 머리칼에 매달린 가랑잎에 가리워 보이지 않았다. 남학수는 허구픈 웃음을 짓고 말했다. 따라 웃는 처녀의 맑은소리가 푸른하늘로 간간이 피어올랐다.

청림은 옷을 털며 일어서서 신발을 찾아신고는 머리칼을 흔들며 아까 나무우에서 바라보던 소나무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땅밀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었다.

남학수도 그쪽을 기웃해보다가 급히 몸을 일으켰다. 처녀의 어깨너머로 드물게 자라난 풀숲에서 가냘프게 솟아오른 룡담 한뿌리를 찌여보았던 것이다.

(?!...)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며칠전 《장수산대학》에서 열렸던 학술토론회에서 룡담의 살이조건을 놓고 그 사멸의 원인에 대해 얼마나 이야기들이 분분했던가.

야생식물의 퇴화, 자연살이조건에 파괴, 두 주장이 다 일장일단이었다. 시병원무원장은 남쪽지대에 그 약초가 없는것으로 보아 이제는 《식물사전》에서 이름을 제명해야 한단데까지 토론이 이르러 큰 물의를 일으켰었다. 그러나 이곳 장암산에서는 룡담이 자라고있는 것이다.

청림은 쌍둥이처럼 맞붙어 올라간 가느다란 잎새를 손으로 어루만졌다.

《그들이 저서 제대로 자라지 못했어요... 요것들은 해빛을 좋아하면서도 하필 이런곳에 자리를 정했을가...》

그는 마지막 말을 혼자말처럼 내뱉고는 무엇이 못미더운지 불쑥 몸을 돌이키며 쪼프린 눈으로 참나무쪽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쭈줄기로 가지를 붙들며 힘껏 벌어지게 매여놓은 나무사이로 해빛이 쏟아져내렸다.

해빛, 해빛...

그다음 남학수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땅이 약간 흔들리는듯한 어지럼증을 느꼈을 뿐이다.

바람에 흔들거리던 룡담을 다시 찾아보려고 애썼으나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한생을 약초와 함께 살아가고 거기에 진해버렸던 남학수는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애뜻함이 전신에 흘러들어 한동안 참나무가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남학수는 그 순간 모든것을 잊은듯싶었다. 그 어떤 청신한 즙액이 땅밑에서부터 뿜어올라 마르고 지친 온몸에 술기운처럼 퍼져나가는것을 뿌듯이 느끼면서 나무가지사이로 쏟아지는 별속에 점도록 서 있었다.

그들이 걸어가는 산길에는 처녀의 입술모양과도 같은 파란 보라꽃들이 무시로 흔들거리고있었다.

높이 자라오른 민헛개나무밑에서 처녀는 걸음을 멈추었다.

《아마 술을 못끓였다는 남자에게 허풍쟁이라고 한다면 가만 안있겠지요?

진짜 술을 끓을 용단이 있다면... 이 나무가지를 한토막 잘라서 베고 자게 하면 하루밤사이애 알아보거든요.》

청림은 그 말을 해놓고는 무엇이 생각키우는지 허리를 들까불며 웃어댔다.

《그렇지만... 처녀들처럼 알콜맛도 모르는 남자도 사낸가요? 나부터라도 싫어요...》

《?!》

이 가지가 좋은 약재로 쓰인다는 말은 그자신도 알고있는 일이었지만 술을 끓게 한다는 소리는 처음듣는 말이어서 남학수는 자못 놀랐다.

청림은 주위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그저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

무서움을 모르고 사태가 진곳으로 마구 뻗어오른 회채화 덩불앞에 이르러서는 위태롭게 놓인 돌들을 바로잡아놓기도 하고 또 어떤곳에 이르러서는 골짜기를 적시며 흘러내리는 샘줄기를 찾아내여 굽을 내주기도 했다.

남학수는 처녀의 동화적인 《세계》에 꿈처럼 빠져들어가 천진한 아이처럼 큰소리로 웃고 떠들며 일손을 거들군했다.

《아바이, 그런데 이상하지요? 동의고전에는 사철쑥이 잎과 줄기를 쓰게 되어있는데 무슨 리유인지 옛날부터 꽃이삭과 씨앗만을 쓰니 말이예요.》

《잎과 줄기는 유독성물질이요.》

《이놈은 정말 <체통> 이 아까워 죽겠어요. 전 대학통신에 입학하면 <잎과 줄기에 의한 인진고생산> 을 졸업논문과제로 맡아볼 결심이에요...》

어디서 날아왔는지 까만 산별 한마리가 배낭주위를 안타깝게 맴돌며 성화를 내기 시작했다.

청림은 허리를 폈다. 그리고는 자기의 귀전을 간지럽히고 어디론가 공간에 녹아버린 산별이 다시 불쑥 나타나서 그 어떤 새로운 음향소리를 들려주기 바라는듯 한껏 웃음이 담긴 눈길로 주위를 황홀히 둘러보는 것이었다.

《진료소에서 치는 벌이요?》

《아니예요. 여기 벌들은 <장암산 전설> 을 낳은 그 옛벌들의 후손들이예요.》

《장암산 전설이라니?...》

의아해하는 남학수를 바라보며 청림은 잠시 생각을 더듬더니 천천히 걸음을 옮기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

멀고 먼 옛날 호랑이가 말을 했다는 그 시기에 있는 《벌바위》 전설이다.

황해도의 한 몽투룩 총각이 척박한 자기 고향산 천을 두고 가슴아파하면서 허리에 구름을 감고 이슬을 세어 밟으며 삼년석달 꽃씨를 뿌렸다고 한다.

장암산언덕에 마지막 꽃씨를 뿌리고 쓰러진 그 아침에 해빛이 찬연한 하늘밑에서는 때아닌 보슬비가 보슬보슬 내렸다고 한다.(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린것은 비가 아니라 총각의 땀방울이 흘러내렸다고도 한다.) 그래서 싹이 움트고 꽃이 피고 먼 북쪽땅에서만 살던 꿀벌들이 황해도의 벌방으로 날아왔고 돌로 굳어진 몽투룩 총각의 품에 안겨 집을 지은 그때로부터 장암산은 사시장철 꿀이 흘러내렸고 사람들은 그 꿀물을 마시고 장수가 되어 왜적을 쳐부셨다고 한다...

《죄다 거짓말일거예요. ...어떻게 꿀이 흘러내리는 산이 있을수 있겠나요. ...그런데 문제는요. ...저 〈벌바위〉가 한번은 살아서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매혹적인 까만눈을 반짝이며 그 무슨 요지경속을 들여다보듯 청림은 줄곧 제 이야기에만 열중했다.

《제가 한살때의 일이라요. 한밤중에 갑자기 장암산쪽에서 산이 무너져내리는듯한 이상한 굉음이 들려오드래요. 모두가 문을 열고 뛰어나가보니 글썽 주위가 흰한 장암산중턱에서 〈벌바위〉가 우뚝 일어서더니 천천히 걸어내려오드라잖아요.》

청림은 그 거인이 앞에 서있기라도 한듯 걸음을 멈추었다. (〈벌바위〉가 움직였다는것은 사실이었다. 그것은 21년전의 일이었는데 동해바다밑을 지나간 큰 지진의 영향이 서해의 해안연선지대에까지 미쳐왔던것이다. 그때 일어난 변천을 이곳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박한 념원과 결부시켜 전설로 발전시킨것이다.)

《다음날 산으로 오른 사람들은 벌바위가 있던 자리에서 땅이 꺼명도록 드러나보이는 백년묵은 산꿀을 80키로그램이나 떠냈대요. 우리 마을사람들은 밤을 새워 토론하여 자기들의 소박한 념원과 력사적기원이 깃들어있는 산꿀을 아버지수령님의 탄생일에 선물로 올렸대요.

그러나 수령님께서서는 그 꿀을 우리 장암마을 유치원아이들에게 모두 되돌려 보내주셨답니다.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과 백년묵은 산꿀을 되실고 장암산 하늘가에 높이 떠오른 직승기를 바라보며 우리 할머니랑 어머니랑... 모두 울었대요.》

청림은 더 말을 잊지 못했다. 행복한 웃음이 떠오르는 그의 두눈은 주위의 모든것에 방심한듯한 그런 웃음으로 굳어졌는데 눈물어린 눈의 광채속에는 행복한 표정만이 지어져있었다.

《매일이 장암전설 21돛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을 관습대로 〈벌바위〉에 올라가 꿀을 떼지요 뭐. 유치원 교양원을 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하시던 일인데 오늘은 휴식일이어서 제가 대신 올라왔어요. 그런데 근해에는 꿀이 잘 나지 못해요.》

청림은 호 하고 숨을 내그으며 말을 끊었다.

피곳 눈길을 돌려 남학수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왜 산들에 꽃이 없을까요?》 하고 안타깝게 묻는것만 같았다. 남학수는 물끄러미 처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를 동그랗게 파고든 띠넓은 배낭끈이 남학수의 눈길을 오래도록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아오른 잣나무 우듬지사이로 청림이의 맑은 눈빛처럼 한조각의 푸른하늘이 유심히 내려다보고있었다.

남학수는 그제야 불현듯 자기자신으로 되돌아왔다.

(무엇때문에 난 지금 여기에 와있는가. 현과장... 그래 현과장의 편지를 받고다. 그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하자고 했던가? 책임?... 추궁? 모르겠다!

단지 그 모든것의 원인이 계획때문일까? 그런데 저 처녀는 방금 무슨 말을 물었던가...)

남학수는 제나름의 생각에 사로잡혀 길을 걷고있었다.

《아바이 그쪽엔 내리막길이에요!》

청림이가 소리치는바람에 남학수는 편뜻 정신이 들어 멈춰섰다.

《허참, 이야기바람에 하마트면...》

처녀가 다가왔다.

《아바이 얼굴빛이... 료양을 하고계신다더니 혹시 몸이 불편한게 아니예요?》

《아니... 그런게 아니요.》

산릉선을 타고 비탈길을 내려선 그들은 다리섬을 하려고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내려갔다. 그리고는 평퍼짐한 너럭바위우에 자리를 잡았다.

한가닥 해빛이 나무가지 사이로 흘러들어 물위에 어롱어롱한 무늬를 새겼다.남학수는 생각깊은 눈길로 나무숲이 성기어진 개울굽을 더듬고있었다.

갑자기 처녀가 가볍게 소리를 지르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개울굽을 따라 급히 아래쪽으로 달려갔다. 남학수도 따라섰다.

청림은 시든 잎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나무밑에서 꺾어진 나무가지를 어루만지며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어느 약초채취자의 소행인듯싶은 낫날의 세례를 받은 두층나무가지에서 맑은 점액이 방울방울 솟구쳐 해빛에 반짝거리고있었다.

남학수는 말없이 청림이의 곁에 앉았다. 한껏 졸아든듯싶은 좁은 어깨며 해쓱해진 처녀의 모습은 마치 꼬꼬마한 아이같았다.

《어쩌면 이럴수가 있어요. 한창 자라는 어린 나무를… 제집의 과일나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가지채 찍어내려 열매를 걸어가고… 애기약초들은 뿌리채 뽑아가고…》

청림은 더 말을 잊지 못했다.

장암산 중턱에 걸려 낮추 떠있던 구름장에서 후두둑- 몇방울의 비꼬치가 떨어졌다. 그와 같은것이 처녀의 속눈썹에도 맺혀 바르르 떨어다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개울 건너편 나지막한 바위우에 《줄무늬사쓰》가 올라섰다. 약초배낭을 무겁게 걸머쥐고 앞섶에는 어디서 캐들었는지 커다란 황련 몇뿌리가 물기를 번득거리고있었다.

(저, 사람이 또…)

남학수의 가슴밑에서 돌이 떨어지는듯싶었다. 이제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이 청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당해야 할 일처럼 느껴진다.

남학수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처녀가 앞서 달려간쪽으로 걸음을 황급히 옮겼다. 청년에게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는 자격지심이 그자신을 떠밀었던것이다.

미끄러운 물돌에 아래도리를 휘청거리며 기슭으로 다가가던 그는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물가운데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남학수는 얼굴을 들었다.

웃음소리…

약초배낭을 풀어헤쳐놓고 기쁨에 넘쳐 들여다보는 두사람…

모든것이 물속을 통해 들여다보는것처럼 어롱거리며 안겨왔다.

《처녀동무, 아깐 정말 안됐소.》

사회하는 청년의 말소리가 물소리와 섞여 도란도란 들려왔다.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나요. 오히려 제가 안됐어요. 막 대들구… 호, 정말 제 성격이 거칠어진가봐요.》

《아니요. 난 동무가 가르쳐준대로 일문봉에 가서야 모든것을 알았고 또 리해도 했습니다. 거기엔 정말 약초가 많더군요. 포전입구에는 〈약초를 캐가세요!〉라고 쓴 빨간 패쪽이 걸려있구…》

《우리 장암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라붙어 휴식을 바쳐가며 가꾸었어요. 그래서지 모두가 제 살붙이처럼 상하지요 뭐. 정이란 사람에게만 드는것만도 아닌것 같어요. 그러니 이 약초들을 마구 뜯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솔개미〉라구

막 욱해요. 그건 우리 장암산이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앉아있는 모양처럼 생겨서 옛날부터 솔개미의 성화를 많이 받아온 까닭이래요.》

남학수는 머리를 뒤로 한껏 젖히고 푸른 하늘을 보았다.

그의 흰 머리칼이 해빛에 부서지면서 바람에 산산히 흩날린다. 그 하늘가에 여전히 솔개미 한마리가 떠돌고있었다.

구름한점 없는 맑은 하늘가에 티처럼 느껴지는 솔개미가 뾰족한 부리를 아래로 드리우고 산기슭을 굽어보며 돌맹이처럼 밑으로 떨어져내렸다가는 다시금 날개를 휘저으며 위로 올라 제자리날음을 하며 그 뭔가를 노린다. 그러자 왜서인지 남학수는 제몸의 한부분이 똑 떨어져나가며 솔개미로 환생되는듯싶은 환각에 사로잡혔다.

흘러온 자기의 발자취가 짙은 음영처럼 내려다보인다.

약초를 캐라고 보건일꾼들앞에서 쿵쿵 두드리던 연탁, 연방 울어대는 전화기,높이 쌓여지는 약초무지들…

높은 대리석층계로 웃음을 머금은 사람들이 《우승기》를 들고 쏟아져내린다.그것은 무수히 깨진 유리조각처럼 반짝이더니 불시에 해별을 굴리며 흘러가는 장개천으로 뒤바뀌었다. 아담하게 담을 두른 장암유치원 마당도 보인다. 그러나 그토록 찾고 찾는것은 보이지 않는다. 우중충한 산들만이 침울한 눈빛으로 무엇인가를 노려보고있다.

무척 낮익은 눈빛이다. …도대체 저게 누굴까? 누가 나를 그렇게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는것일까?…

《아니? 부국장동지가 아십니까?》

청년이 남학수를 알아보고 반색을 하며 달려왔다.

그는 남학수의 손을 마주잡고 반가와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

청림은 한자리에 박힌듯 서있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충격에서 오는 놀라움때문인지 한껏 파리해진 처녀의 눈빛은 물끄러미 남학수를 더듬고있다.

그다음 왜선지 머리를 가로챈다.

(부국장동지라구요? 아바인 료양을 오시지 않았나요!) 그 눈빛은 분명 이렇게 묻고있었다.

청림은 한마디의 말도 없다. 나무람도 원망도 없다. … 그 어떤 아픔이… 아픔만이 눈속에 깃들어있다. 금시 차거운 《가을비》가 쏟아질것 같은 저눈빛… 저런 눈빛을 어디서 보았던가!… 흰 채양모필

에서 물끄러미 내다보는 처녀의 눈빛을 더듬어 찾아보던 남학수는 그 어떤 예리한것이 가슴을 쿵 찌르는듯한 심한 아픔을 느꼈다. 그것은 어느해인가 술개미가 떠도는 하늘밑에 병아리를 놓아주고 유치원으로 떠밀려가던 잊을수 없는 아이의 그 눈빛이었다!

술개미를 잡아달라고 졸라대던 조그마한 소녀애의 모습이 삭막한 공간을 짝 채우며 점점 크게 확대되어 다가왔다.

남학수는 지그시 두눈을 감았다. 누군가 뒤멀미를 짝 움켜쥐고 온 육신을 《사슬》로 묶는듯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그는 소스라치며 눈을 번쩍 떴다.

청림은 《줄무늬샤쓰》와 함께 부러진 두충나무가지를 끈으로 동여매고있었다...

조금후에 처녀가 다가왔다.

그의 두손에는 한줌가량의 빨간 진흙이 들려져있었다. 그는 남학수를 피곳 치며보고는 불우물을 파며 방긋 웃더니 흙을 평평한 너럭바위우에 쏟았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배낭을 헤쳐 하얀오지단지를 꺼내들었다. 뚜껑을 열었다. 그안에는 금방 솟구치던 수증기같은 하얀 알갱이들이 순간에 정지된듯싶은 노란꽃이 가득차있었다.

청림은 단지를 조심스레 받쳐들고 흙우에 꿀을 쏟았다. 맑고 부드러운 점액이 흙우에 떨어지며 햇빛에 반짝거린다.

남학수는 순간적으로 눈앞이 뿌옇게 흐려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자기가 먹으며 자랐고 사랑의 전설로 불리운 그 장암꽃이 지금 장암산에 떨어지고있는것이다!

이제 청림은 저 꿀을 진흙과 이겨서 부러진 한그루의 두충나무가지에 발라줄것이다. 그러자 규칙적으로 비쳐드는 빛의 조화는 남학수의 눈앞에 완전한 화폭을 안겨주었다.

모든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게 보이는것은 한방울의 꿀이 것처럼 귀중해서 세간벌을 잡으려고 담배를 피워물었던 처녀의 모습이다. 편속 터지려는 즐거침을 참느라고 머리를 젖던 그 모습.

남학수는 지금 이 순간에 처녀가 무슨 말이든 그것이 설사 모욕이든 타매이든 단 한마디라도 하였으면 속이 후련할것만 같았다.

한대 피우고싶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담배대신 종이장이 손끝에 대인다. 현과장의 편지였다. 그러자 《의견》투성이의 구절구절들이 새롭게 되새겨지면서 미여지게 아프던 마음이 좀 진정되는듯

한감을 느꼈다.

×

셋은 나지막한 둔덕우에 올라섰다. 띠처럼 장암산을 돌아간 장개천이 해빛에 번쩍이며 눈앞에 드러났다. 그들의 앞쪽에서 날아오른 산비둘기떼가 일문봉 수림우로 떨어쳐내린다.

《저 앞에 보이는것이 장암산 일문봉이에요. 우린 래일부터 3일동안 집중적으로 포자번식을 하자고 토론했어요. 학생 어른 할것없이 모두가 펼쳐나서지요 뭐.》

지금껏 묵묵히 서서 처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있던 청년이 불쑥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부국장동지, 우리도 래일부터 이 마을사람들과 포자번식을 함께 합시다. 뜯어만 가는것이 아니라 가꿀줄도 아는것이 진정한 주인의 립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산은 아마 우리가 요구하는것보다 더 많은 약초를 우리에게 안겨줄겁니다.》

남학수는 지그시 두눈을 감았다. 가슴이 마치도록 들려오는 청년의 목소리는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적셔주는듯싶었다.

(나도 인민을 위한답시고 한생을 뛰어다닌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이었던가. 아니다. 자기자리, 자기책임만을 생각하면서 조국의 산과 들이 그처럼 허약해지는것도 모르고 한해한해의 약초채취계획을 인생의 총계처럼 밟고 올라오지 않았는가. 그러나 저 처녀는... 장암마을사람들은 조국의 산과 들에 향기가 없어지는것을 가슴아파하면서... 산을 가꾸고있다.

모두가 주인이라고 내세워주는 이 땅에서 저마다 주인행세를 부리면서...

산을 뜯어먹고 땅을 혹사하고 바다를 말리운다면 우리 조국땅에 아무리 억만금의 재부가 묻혀있다 한들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진정한 주인의 걱정은 오늘에 있는것이 아니라 래일을 걱정하는 그 마음에 있는것이다. 연약한 두팔을 벌리고 어린 약초 한뿌리를 지켜선 저 처녀야말로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닌가!...)

남학수는 청림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리는 강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있다. 그 어떤 마음의 흥분때문인지 두손을 모두어잡은 그의 작은 가슴이 조용히 오르내리고있었다.

노을빛에 대지가 붉게 물들었다.

출진이다 외 2 편

석광희

어둠속에 나지막이 울리는
중대장의 구령소리
-출발!

대오의 앞에서 맨뒤까지
마치도 뛰는 피 굵이쳐가듯
출발!
출발!

기다리던 시간은 왔다
출진이다
해는 지고 갈길 멀어도
기어이 가야 할
적후로의 길

어깨에 멘 총보다
더 무겁게 실려오는
병사의 의무와 조국의 명령
다시 한번 새기는 걸음걸음
불이라면 피하고
물이라면 에돌라

가슴에 통채로 품고싶도록
그처럼 고마운 모닥불이다
고향집 아궁이 생각나게 하는
그처럼 그리운 모닥불이다

누구는 시린손 쪼이며
생각에 잠기여 움직일줄 모르고
누구는 땀에 젖은 발싸개 말리우고
누구는 성에 불린 총신
덤덤히 문지르는 행군중휴식

어허 저 봐라
분대장의 떡판같은 잔등에 기대여
업어가도 모르게 굳잠이 든
중대의 꼬마
꿈결에 고향어머니라도 만났는가
어머니-
남먼저 대렬에 들어서는 동작

하늘가에 치닿은
힘한 령도 넘어야 하고
얼음과 눈에 덮인
바위벼랑도 뚫아야 하리
눈사태가 덮칠수도 있으리

최고사령관동지의 작전지도에 그어진
붉은 화살표의 그 한끝에
침략자 미체가 도사리고있거니
그놈들의 머리우에 벼락을 내리기전에는
결코 멈출수 없는 이 행군

밤은 깊어
바람은 일고
태질하는 눈보라 눈보라
차라리 좋다
필력여라 백포자락

세찬 필력임
이는 중대가 일으키는 폭풍
원썬들의 간담 서늘게 할 노호가 되리
더 높이자 행군속도

모닥불

애뜻이 웃는 중얼거림

여느때 같으면 떠들썩
악의없는 웃음 터뜨릴 병사들
꼬마가 깰세라 췌 췌
불달린 삭정이 불씨를 날리며
탁 탁 튀는 소리 민망스러워
조바심속의 모닥불가

이상하더라
휴식은 언제나 빠르게만 느껴지더라
다시금 울리는 출발구령
아쉽구나 아쉬워
꼬마의 잠

허나 꼬마는 벌떡 일어나
언제 졸았는듯 방긋 웃으며
어른스럽게 날래고 천연덕스러워

구대원들의 눈가에 어리는 미소
얼마나 따뜻하고 정다운것인가

사위여진 모닥불은 한줌 재를 남기고
행군을 이어가는 적후중대
저마다 가슴에 안고 간것

불의 온기뿐이더냐
아니여라 그것은 뜨거운 전우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원썩을 남김없이 처없애기전에는
이길로 다시 오지 않을 병사의 맹세

편지에 대한 이야기

정말이지 처음 한동안은
미처 몰랐다네 알수가 없었다네
중대에서 《아바이》로 통하는 전사
고향의 편지 받아든줄을

더더욱 알수가 없었다네
편지의 사연
몰랐다네 몰랐다네
어찌하여 《아바이》 전사
다물지 못하는 입가에 웃음이 뱅그는지

허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네
속이 깊은 《아바이》였건만
잠만 생기면 펼쳐드는 편지
눈치빠른 꼬마가 나꿔챘다네
소문은 날개 돋친듯
중대에 짹 퍼지고 말았다네

《아바이》네 얼룩소가 새끼를 낳았다누나
하하하
아 글썄 송아지를 낳았다누나
하하하
중대장이 찾아와서 한마디

- 《아바이》 축하합니다

아바이는 그저 싱글벙글
마라초를 말면서 꿈을 꾸는듯
북쪽의 하늘가를 바라봤다네

그 하늘아래 두고온 고향집외양간에서
어미소의 젖을 빨고있을
갓난 송아지를 그려보며

어린 딸애가 써보낸 편지
눈에 젖을세라
잃어버릴세라
언제나 소중히 가슴에 품고
적들을 죽치는 《아바이》 전사

그가 품고 다니는것
한낱 편지가 아니였네
승리의 날 고향에 돌아가
장군님 나누어주신 그 밭이랑을
깊숙이 깊숙이 갈아번질
한마리 금송아지가 함께 가고있었다네

우리 집 식탁

리재준

퇴근하여 집에 돌아온 나는 저녁상을 마주앉다가 눈이 둥그래졌다. 밥상이 새것이였다.

라크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커다란 밥상 한가운데는 두마리의 봉어가 원을 그리며 헤엄치는 그림까지 그려져있었다.

알고보니 리협동농장상점에서 주민세대들에 나누어준다는것이였다. 좋은 일이었다.

우리 집에서만도 끼니때마다 나날이 비좁아지는 식탁위에 찬그릇을 쟁겨놓느라고 늘 어머니가 마음을 써왔으나 식탁의 반경이 커지는것은 요새 가정들의 추세라고도 말할수 있었다.

식탁의 반경이 커진다!

인민의 식탁이 넓어진다!

참으로 가슴이 후터워진다. 본래 집에서 쓰던 밥상도 우리 다섯식구가 쓰기엔 작은것이 아니였다. 더구나 애들이 자라서 군대에도 가고 대학에도 갔으니 둘러앉아도 비좁은줄을 몰랐다.

새 밥상위에 저녁식사를 받아놓으며 어머니는 진정을 담아 이야기하신다.

《얼마나 고마운 세상이야? 그전에야 밥상이 좁아 걱정해본 일이 있었니?》

사실 그랬다. 밥상이 크다 작다 생각해볼새도 없이 살아온것이 나의 가정, 우리 인민의 지난날이였다.

지금도 나에겐 동요시절에 겪은 일이 어제런듯 생각된다.

…끼니때가 돌아오는것이 나에겐 제일 기뻐다. 저녁을 먹자는 어머니의 부름소리를 듣고 나는 선 참 달려오는것도 언제나 나였다.

《밥상 놀가?》

《밥상은 와서 뭘하겠니?》

어머니의 이 말은 또 소금을 친 멸건 죽그릇이 식구별로 하나씩 차례진다는것을 의미하였다. 그래서 자그마한 둥글상은 방구석에 세워둔채 부뚜막이며 부엌바닥 북데기위에 아무렇게나 앉아서 온 식구가 뜨겁지도 않은 죽을 후후 불며 끼니를 들어야 했다. 동생들이 태어나 식구가 늘어났지만 그때 우리 집에선 밥상이 좁아서 걱정해본적이 한번도 없었다.

설명절을 앞둔 어느해 겨울이였다. 우리들의 성화에 못견디어 할아버지는 짙신을 삼아 판 돈으로 장거리에서 조기반찬을 몇마리 사온 일이 있었다.

명절날 우리는 처음 조기반찬의 맛을 알게 되었다. 밥을 다 먹고난 우리들의 밥그릇을 들여보시던

할머니는 《반찬은 밥도적놈이라더니…》라고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그도 그럴것이 아침에 담은 아준 밥그릇에 절반 금그어 아침과 점심에 절반씩 먹게 되었던 나의 밥그릇이 그 절반선을 쏙 넘어 밥을 축냈던것이다. 다음날부터 조기반찬은 물론 입맛나는 찬거리는 아예 식탁위에 오르질 않았다. 그러니 어떻게 밥상을 채울수 있었으랴!…

새로 생긴 밥상모서리를 쓰다듬으며 추억을 더듬던 나의 생각은 더욱더 깊어만졌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은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지만 국가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주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인민의 식생활은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해지고있는가.

인민생활향상을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있는 우리 당은 오래전부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선차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이름없는 상점과 평범한 한 농가의 장독도 열어보시며 그 맛과 량을 헤아려주는 우리 당의 그 사랑, 그 혜택으로 우리 농장상점에서는 일년 삼백 예순다섯날 어느 하루도 건늬미 없이 간장, 된장, 기름을 비롯하여 갖가지 부식물들이 골고루 공급되고있다. 게다가 농장에는 농장대로 량곡가공반과 기름가공반이 운영되고 작업반마다 양어장과 온실들이 건설되어 사철 신선한 물고기와 싱싱한 남새를 떨구지 않고 공급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어찌 이뿐이라. 아담한 문화주택에 사는 매 가정들마다 트랙이 넘어나게 닭, 염소, 토끼, 돼지들이 자라고 갖가지 과일나무들이 자라고있으니 알과 고기, 우유, 과일 등 구색에 맞는 식생활을 누리며 사는것이 바로 우리 인민들이다.

나는 새 식탁위에 차려진 저녁상을 바라보았다. 눈처럼 하얀 기름기도는 쌀밥에 고기국, 보기만해도 구미를 돋구는 김치며 별거스레한 물고기반찬, 닭알튀기, 두부 등 내가 좋아하는 싸작들로 이채롭게 조화된 식탁은 그 얼마나 소담하고 풍만한가. 레사로운 농사일을 하는 우리 가정이 명절도 아닌 평범한 날에 받기엔 너무도 푸짐한 식탁이였다. 새로 만든 밥상이 또 비좁아졌다.

언젠가 나는 식탁위에 차려지는 모든것은 그 집 주부의 성의와 요리솜씨에 달려있다고 단정하면서

안해의 음식솜씨에 은근한 자부심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때이른 속단이었다.

...그전날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음식을 만들 줄 몰라서 그 작은 밥상 하나도 채우지 못하고 된장찌개나 깍두기김치종이를 덩그러니 올려놓았던 말인가. 나라없던 그 세월 누가 우리 한가정의 식탁, 우리 인민의 식탁우에 올려놓을 음식의 가지수에 대해 걱정해주고 책임져준 일이 있었던가. 인민의 식탁은 텅비더라도 지주, 자본가놈들은 저들의 식탁만 넘쳐나면 그만이었다. 그래서 그놈들의 낮짜에 개기름이 번질거리고 몸집에 비계층이 두꺼워갈 때 가난한 우리 부모들은 피골이 상접해지고 나이보다 일찍 등이 굽고 검은 머리에 서리가 많이 내렸었다. 허나 오늘 우리 생활은 얼마나 환희와 기쁨에 충만되어있는가.

새 등글밥상과 마주한 나는 언제나 인민을 먼저 생각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우리 당의 고마움, 내 사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다시금 온몸으로 감수하게 되었다.

나는 식탁에 둘러앉은 식구들을 정어린 눈길로 둘러보았다.

늙으신 어머니도 흐뭇한 안색으로 김오르는 국그릇에 양념장을 두며 식기전에 어서 들라신다. 손바

투 쑥갓그릇을 바꿔놓아주는 안해의 얼굴에도 밝은 웃음이 어려 10년은 젊어진듯싶다. 애들도 무엇이 그리 좋은지 그냥 웃으며 재잘거린다. 그렇다. 우리 집은 명절을 맞는 기분이다. 하기가 왜 우리 집뿐이겠는가. 앞집의 프락뜨르운전수인 전동무네며 뒤집의 황동무네, 옆집의 복남이네도 우리와 똑같은 저녁상을 받았을것이다. 그리고 온 가정이 우리 집처럼 이 행복을 끝없이 속삭이며 저녁을 들리라.

얼마나 좋은가.

평범한 날에도 명절날같은 식탁을 차려주는 고마운 나라, 가난의 눈물속에 밥상과 마주하지도 못하던 생활을 행복의 웃음속에 풍만한 밥상과 마주하는 생활로 이끌어올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참으로 온 나라 가정의 주부가 되어 매 가정의 음식가지수에 이르기까지 인민들의 식생활에 관심을 돌리는 이런 당,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으랴... 식탁의 반경이 커진다!

우리 인민의 식탁은 넓어만진다!
우리 인민의 식탁은 무거워만진다!

세상에 대고 자꾸만 소리치고싶은 마음을 억제하며 나는 식구들과 함께 수저를 들었다.

모습, 차림새와 관련된 속담

가꾼 서방님

용모가 잘 생긴 사람을 보고 이르던 말, 주로 남자를 두고 이른다.

건발에 부루대

키가 크게 쑥 자라고 곧은 모습을 비겨이르는 말.

대추나무방망이

단단하고 야무지게 생긴 사람을 비겨이르는 말.

살결이 희면 열허물 가린다

살결이 흰 사람이 대체로 아름다와보인다는것을 비겨이르던 말.

설쌈은 말대가리 같다

① 얼굴빛이 몹시 불그멧멧함을 비겨이르는 말, ② 격에 어울리지 않게 멋대가리가 없는 모양을 비겨이르는 말.

설익은 산살구 먹은 상

① 기분이 언짢아 얼굴을 몹시 쨍그린 모습을 비웃어이르는 말, ② 인정미가 없이 늘 쨍그린 얼굴을 비겨이르는 말.

장마진 하늘

늘 찌뿌둥해있는 얼굴모습을 비겨이르는 말.

저녁 굵은 시어미상

못마땅히 생각하여 잔뜩 찌프리고있는 얼굴모양을 형용하여 이르던 말.

키 작으면 앙큼하고 담대하다

키작은 사람이 이악하고 담이 크다는 뜻으로 작은 키를 축잡아서 놀림조로 이르는 말.

하늘(이)높은줄 알고 땅(이)넓은줄은 모른다

몸이 가늘고 키가 썩 큰 사람을 룡으로 이르는 말.

조국통일주제 단편소설의 풍격과 형상성문제

리동원

오늘 우리 민족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오로지 조국을 통일하려는 하나의 열망으로 가슴불태우고있으며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고야말겠다는 꺾을수 없는 의지와 신념에 넘쳐있다.

조국통일에 대한 기운이 그 어느때보다도 충천하고있는 가운데 조국통일주제의 작품창작은 더욱 왕성해지고 그 창작적성과 역시 눈에 띄이게 나타난다.

금년에 들어와서만도 이 주제의 작품창작은 문학예술의 전반영역에 걸쳐 활성화되어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 참신성과 함께 경험과 교훈을 준다. 특히 단편소설창작에서 문제성이 뚜렷하고 생활체험이 절절하며 성격창조에 모를 박고 형상을 집약화, 집중화한 소설다운 풍격과 체질을 가진 작품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있다.

물론 이런 성과와 함께 이 주제의 단편소설창작에서는 생활체험의 빈곤과 함께 형상화수준이 낮은 것으로 하여 단편소설다운 체질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일부 작품들도 있다. 작년에 창작발표된 단편소설 《열쇠》(류도희, 《조선문학》, 1990. 4호), 《쇠찌르러기》(림종상, 《조선문학》 1990. 3호), 《고향길》(림병순, 《문학신문》 1990. 6월 15일부), 《상승》(석유균, 《조선문학》 1990. 6호), 《아지랑이》(구정건, 《문학신문》 1990. 3월 30일부)만 놓고보아도 이 주제의 소설창작에서는 그 창작적성과를 널리 일반화하는것과 함께 경험과 교훈을 살려 단편소설의 왕성한 창작과 그 사상에술적풍격을 더욱 높여나갈것을 요구하고있는것이다.

단편소설에서 세부의 집중화와 성격창조

단편소설일수록 문제성이 뚜렷하면서도 이야기를 벌려놓지 않고 특징적인 세부들을 골라잡고 성격을 인상깊게 드러내보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본질적이며 특징적인 생활세부들을 골라잡고 깊이있게 그려내는데 형상을 간결하고 명백하게 창조하는 비결이 있으며 성격을 인상깊게 특징지으며 생활을 의의있게 보여주는 열쇠가 있다.》

형상을 간결하고 명백하게 창조하는 비결은 성격을 인상깊게 드러내보일수 있는 특징적인 생활세부들을 찾아내어 깊이있게 그려내며 그것을 형상창조에 일관하게 집중시키고 복중시켜나가는데 있다.

단편소설은 생활을 담은 그릇이 작은것만큼 형상을 간결하고 명백하게 창조하는 비결을 가지고있어야 하며 형상의 집약화, 집중화 정도를 높은 수준에서 체현하고있어야 한다. 여기에 다름아닌 단편소설의 전투적인 체질과 풍격, 박력도 있게 된다. 어떤 작품에서나 이야기를 벌려놓고 라렬하며 주인공의 성격창조에 화살을 돌려 형상을 집약화, 집중화하지 못한다면 성격형상을 통하여 인간문제에 예술적해답을 주지 못할뿐아니라 깊은 감명을 줄수 없는것이다.

하물며 단편소설은 용적이 작고 제한되어있는데다가 하나의 사건이나 생활세부, 극적계기를 통하여 주인공의 성격을 집중적으로 밝혀가는 성격창조의 문학인것으로 하여 더욱더 이야기를 벌려놓거나 라렬하며 지어는 이야기줄거리에 매달려 실화나 미담처럼 엮어주어도 안되는것이다.

단편소설일수록 재미있는 문학적이야기를 안고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설화문학과 구별되는 본질적 차이는 생활을 세부화하여 인상깊은 주인공의 성격창조에 복중시키며 특징적인 세부들을 골라잡고 그것을 깊이있게 그려내어 단편의 체질에 맞게 형상의 간결성과 명백성, 집약화, 집중화를 확고히 보장하는데 있는것이다. 말하자면 작은 그릇속에 깊은 뜻을 담으며 인상깊은 성격을 창조하는데 하나의 사건, 생활세부를 집중시켜 형상의 집약화, 집중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깊은 뜻을 되새기게 하는 개성적인 성격의 미를 작은 이야기, 생활세부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보여줄수 있게 형상구성을 잘해나간 소설만이 단편소설다운 체질과 풍격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단편소설 《열쇠》와 《쇠찌르러기》는 많은것을 시사해준다. 단편소설 《열쇠》에서 문학적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전쟁시기의 용군에 입대하면서 고향집 어머니로부터 넘겨받은 열쇠를 40여년간 고이 간직하고 일해온 4급기업소 지배인 박성규의 절절한 통일념원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는 고향을 떠나올 때 나무가까지 따라나서면서 승리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당부하시던 어머니가 피춤에서 꺼내주시던 고향집 삼작문열쇠를 40년세월 고스란히 간직하고 다닌다. 아들이 전

쟁에서 승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혹시 자기가 문을 잠그고 어딘가 나가있었다 해도 인츰 열고 들어올수 있게 가지고 가라고 신신당부하며 어머니가 꼭 쥐어주시던 그 열쇠였다. 그런데 고이 간직해온 그 열쇠로 고향집 삼작문자물쇠를 열고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어머님께 아뢰지 못하였을뿐아니라 헤어져 살아온 갈피갈피에 깃든 사연을 단 한장의 편지로도 알려드리지 못하였다.

하기에 박성규지배인이 40년세월 호주머니에 고이 간직하고 다니는 고향집열쇠에 깃든 사연은 그토록 심각하고 절절하며 문제의 참신성과 적극성, 조국통일의 민족적숙원의 절박성과 형상적으로 잇달아있는것이다.

소설은 이런 절박한 문제성을 안고있는 문학적이야기에서 전형적인 생활세부의 긴요한 마디들을 찾아내어 성격창조에 집중시켜나감으로써 통일에 대한 절절한 열망을 안고 40여년을 하루와 같이 고향집열쇠를 남몰래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은 걸음으로 공장길을 다그쳐가는 주인공 박성규의 인상깊은 성격을 창조해낼수 있었다.

소설은 이야기줄거리를 미끈하게 짜가는데만 매달리지 않고 열쇠와 관련된 특징적인 몇개의 세부를 성격창조를 위한데 일관하게 집중시켜나감으로써 작은 그릇을 가지고도 조국통일에 대한 심오한 인간문제를 주인공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깊이있게 풀어주고있는것이다.

이 소설이 감칠맛이 나고 단편소설다운 체질과 풍격을 갖추게 된 비결도 다름아닌 세부형상에 의한 성격창조, 형상의 간결성과 명백성, 집중화를 실현한데 있다. 실로 소설은 이야기줄거리를 평면적으로 아니면 길게 펼치지 않고서도 몇개의 특징적인 생활세부들을 걸어쥐고 성격창조에 력점이 찍히도록 집중시켜나감으로써 주인공 박성규의 형상을 인상깊으면서도, 생동한 개성적인 성격으로 살려낼수 있었다.

공장의 수많은 문돌쩌귀에서 쇠갈리는듯한 삐걱소리가 날 때마다 영남없이 경리부에 추궁을 들이대는 피뻘하다고 할만큼 신경을 쓰는 지배인 박성규, 그것은 40년전 고향집 삼작문을 나섰을 때 《삐-걱!》하고 돌쩌귀에서 소리나는것을 기쁨도 쳐주지 못하고 떠나온 안타까운 심정을 불려내기때문이었다.

소설에서는 또한 주인공이 남녘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딸을 시집보내게 된 사연과 자기 처가 딸 남희에게 오고싶으면 집이 비어도 언제든지 왔다가라고 집열쇠를 주어보내는 특징적인 세부형상에서 다시한번 주인공의 절절한 마음의 세계를 터쳐보이는것이다.

이외에도 소설에서는 한식날을 앞두고 분계선이 막혀 선산을 찾아가지 못하는 주인공의 가슴아픈 사연을 펼쳐보여주는 세부 등 실로 본질적이며 특징적인 생활세부들을 골라잡고 성격창조에 집중시켜나감으로써 형상을 간결하고 명백하게 하면서도 통일의 절절한 열망을 안고 40여년을 하루와 같이 통일의 지름길을 이어가는 인상깊은 박성규의 성격형상을 창조해낼수 있었다.

단편소설 《쇠찌르러기》도 이런 측면에서 단편소설다운 체질과 풍격을 갖춘 작품이라고 볼수 있다.

소설은 생활소재의 측면에서 보면 3대를 거쳐 조류학연구에 바쳐온 주인공 원홍길교수와 전쟁으로 하여 갈라져 살게 된 그의 아들 원병후 그리고 그의 손자 원창운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쇠찌르러기》에 대한 이야기이다. 소설은 이야기를 평면적으로 펼쳐간다면 장편이나 중편에 담을수 있는 거리를 안고있다. 하지만 단편소설에 담아야 할 요구로부터 필자는 편지체형식을 취하였으며 가장 인상깊은 《쇠찌르러기》와 관련된 생활세부들을 선택하여 성격창조에 집중시켜나감으로써 조류학을 연구하려고 하여도 북남이 갈라져 할수 없다는것, 그리고 통일된 그날 완성된 《조선조류지》를 3대가 울리는 통일축제의 기념으로 드리자는 절절한 통일열망에 대하여 감명깊게 형상할수 있었다.

소설은 주인공 원홍길교수가 산골농업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북방씨비리에서만 서식하던 《쇠찌르러기》가 조선반도 북반부에서도 서식한다는것을 발견하고 조선조류지를 새롭게 편성하게 되는 감격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쇠찌르러기》에 깃들어있는 가장 인상적인 사건과 생활단면들을 남쪽에 있는 그의 아들 원병후에게 알리는 편지로 씌여진 소설이다. 3대를 내려오면서 조류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의 가문에는 《쇠찌르러기》와 관련되는 수많은 이야기와 사건, 일화들이 있지만 소설에서는 그것을 평면적으로 라렬하거나 하나의 《정연한》 이야기줄거리에 몰아넣으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짧은 편지체형식에 담는다고 하여 인상적인 생활세부들만 골라서 전달하는 형식으로 기사화하지도 않았다.

소설은 주인공 원홍길교수의 통일념원에 대한 절절한 감정정서세계를 떨어겨사는 아들 원병후와의 관계속에서 《쇠찌르러기》를 중심으로 하여 인상깊은 성격으로 드러내보이기 위한 요구에서 세부를 선택하고 형상창조에 집중시키고있다.

따라서 소설에서는 혈육의 정으로 이어지는 인정을 타고 선택된 특징적인 세부들이 맞물려들어가게 되며 세부형상을 통하여 주인공의 내면세계, 성

격형상이 개발되게 된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인정선을 타고 흘러드는 《헌두루미예》와 관련된 세부, 《까만비둘기》와 관련된 세부, 아들이 남쪽에서 날려보낸 《쇠찌르러기》와 관련된 세부, 그리고 림종의 그 시각에 분단의 비극을 절통하게 체험하면서 조류학자 3대에 걸쳐 완성된 《조선조류지》를 통일축제에 내놓을 데 대한 유언 등 그 모두가 주인공의 성격을 뚜렷이 살리는데 력점이 찍혀져있으며 효과적으로 맞물려져있다.

소설은 비교적 길다고 하면 긴 문학적이야기를 세부형상론리를 타고 성격창조에 집중시켜나감으로써 단편소설다운 체질과 풍격을 가진 감칠맛이 나는 작품으로 창작되게 되었다.

단편소설창작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평면적으로 라렬하거나 설화적으로 엮어준다면 성격창조의 문학으로서의 체질과 풍격을 갖춘 작품을 얻어낼수 없게 된다. 문학적이야기에 깃들어있는 특징적인 세부들을 찾아내어 일관하게 성격창조에 집중시켜나갈 때 참말로 성격의 문학이며 전투적형식의 소설양식인 단편소설의 체질과 풍격을 완전히 갖추어나갈수 있는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레증된 단편소설의 창작적성과와 경험의 말하여주는 결론인것이다.

단편소설에서 이야기줄거리의 평면성과 집중성

단편소설은 하나의 사건, 간결한 이야기줄거리에 기초하여 문제성을 뚜렷이 세우고 주인공의 성격을 집중적으로 밝혀내는 전투적인 소설양식이다.

문학적이야기를 담는 그릇이 작은것만큼 단편소설에서 이야기줄거리전개방식과 형상구성의 기법은 작품마다 다양하고 참신하게 쓰이면서도 단편소설적인 집중화, 집약화를 요구하게 된다. 이것은 단편소설의 이야기줄거리조직에서 뚜렷이 표현된다.

모든 소설작품이 그러하듯이 단편소설도 문학적이야기를 하나의 문제성을 밝히는데 집중시켜 이야기줄거리를 세워나가며 성격을 뚜렷이 살려내는데 생활과 사건, 세부들을 복종시켜 형상의 집중화, 집약화를 실현해간다.

따라서 단편소설에서는 그것이 비록 간단하고 짧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이야기줄거리를 평면적으로 미끈하게만 짜나가서는 《미담》적인 감흥을 줄수 있을지 몰라도 성격은 볼수 없게 된다.

읽고나면 줄거리와 사건만 남고 인상깊은 성격을 통하여 문제성을 뚜렷이 밝혀내지 못하는 소설은

사실상 설화문학 《이야기》문학의 영역에서 벗어 나지 못한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최근년간 일부 단편소설들에는 이야기만 있고 성격이 보여지지 않으며 문제성도 명백치 못한 설화식소설, 여운을 주지 못하는 소설들도 있다는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특히 조국통일주제의 단편소설창작에서는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못한 남반부현실에서 생활소재를 선택하여 쓴 소설작품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있는 조건에서 일부 작품에서와 같이 이야기를 채치있게 꾸미는데만 정신을 팔면서 성격창조에 력점을 찍지 못하고 지어는 이야기를 《구수하게》 평면적으로 라렬해감으로써 성격을 이야기줄거리속에 과몰히게 하는 현상도 없지 않는것이다.

소설에서 이야기줄거리를 잘 짜가는것도 결국에는 성격을 모나고 특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것이며 사건과 세부들을 립체적으로 묶어세우는것도 성격을 개성적으로 살려내기 위한데 복종되게 된다.

따라서 이야기줄거리자체에 매달려 그것을 잘 짜가는데만 사색을 돌리거나 평면적으로 라렬하여서는 《재미》있는 이야기는 펼칠수 있을지 몰라라 성격은 살아날수 없는것이다. 이것은 《이야기》문학, 설화문학영역에 속하는 동화문학에서는 허용될수 있을지 몰라도 소설문학에서 있게 되는 생활과 성격의 론리, 성격창조에 생활세부를 집중시켜가는 형상론리로는 되지 못한다.

단편소설 《고향길》은 이런 점에서 교훈을 주는 작품의 하나라고 볼수 있다.

소설에서는 나라의 분단비극으로 하여 헤어져 해외에서 살다가 40년만에 정든 고향을 찾아와 아직 한번도 보지 못하였던 40대에 들어선 아들 선우와 안해를 만나게 된 감격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이야기를 꾸미고있다.

소설이 안고있는 이야기는 그자체로써는 매우 강력적이고 절절할뿐아니라 성격창조에 집중시켜 문제성을 뚜렷이 제기할수 있는 생활적바탕을 가지고 있다. 하기에 작가는 이런 심금을 울리는 문학적이야기로 단편소설을 얼마든지 쓸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줄거리를 평면적이기는 하나 나무랄데없이 인상적인 장면도 주면서 전후사연을 잘 맞물려 엮어주려고 하였다.

해방전 돈벌이하러 남쪽으로 나갔다가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하여 분계선이 막히는바람에 돌아오지 못하고 해외에서 떠돌며 살아오다가 40년만에 처음으로 고향방문길에 오른 주인공, 한가족으로 더는 떨어져 살수 없는 비통한 심정과 오고가는 뜨거운 혈육의 정, 특히는 40살 중년이 된 아들을 한번도 보지 못하였을뿐아니라 안아키워보지도 못한

기막힌 사연과 뜨거운 포옹, 고향에 와서 전혀 새롭게 보고 느끼게 되는 감격적인 사실과 추억들, 아들이 차린 70뿔상을 받아보게 되는 감회, 서울에서 만난적이 있는 어사공의 아들인 《통일호》 굴착기 운전수를 만나 아버지의 생사여부조차 알릴수 없었던 기막힌 사실, 작은너 어머니와 송아지동무인 수산사업소 고문지배인을 만나 회포를 나눈 이야기, 고향을 떠나기에 앞서 안해가 40년간 고이 간수해두었던 양복과 소지품 그리고 고향의 토산물을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리별의 서러움을 다시 삼키게 되는 감격적인 세부 등 이야기자체로써는 나무랄데 없이 전후사연이 맞물려 이어지면서 순탄하게 전개되고있으며 인상깊은 생활세부들도 적절하게 인입되어 하나의 줄거리속에 고스란히 묶여세워진다고 볼수 있다.

그렇지만 작가가 애써 문학적이야기를 엮어놓았다고 하는 이 소설을 읽고나면 이야기줄거리만 남고 주인공의 성격이 보이지 않을뿐아니라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문제성도 뚜렷이 안겨오지 않는다.

소설은 제목자체부터 문제성이 뚜렷하지 못하게 《고향길》이라고 범박하게 달아놓고 이야기줄거리도 고향에 왔다가 돌아갈 때까지의 생활로정에 따라 보고 느끼고 체험한 사실들을 순차적으로 평면적으로 펼쳐하고있다. 물론 체험의 깊이를 드러내 보이는 인상적인 대목과 장면들도 이야기줄거리에 맞물려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런 인상적인 생활세부들을 주인공의 성격을 살리는데 집중시킨것이 아니라 이야기줄거리를 미끈하게 짜가는데 돌림으로써 결국 이야기의 평면화를 면할수 없게 되었다.

40년만에 처음으로 오게 되는 그것도 한번도 보지 못한 중년나이를 헤아리는 아들과 안해를 만나게 되는 감격과 절통한 심정은 너무나도 크고 벅찬 것이였지만 소설에는 그것이 행동이나 느낌으로 표현되었을뿐 문제성을 안고있는 성격으로 환원되지 못하였다. 말하자면 감격적인 이야기나 느낌, 행동은 볼수 있으나 그것이 주인공의 성격을 살리는데 일관하게 복종되어있지 못할뿐아니라 력점이 찍혀져있지 못하다.

그 어떤 인상깊은 생활세부도 성격창조에 집중되지 못하고 성격을 살려내는데 력점을 두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갓 이야기줄거리에 매여있는 장면이나 잘 엮어놓은 대목에 불과할것이다. 인상깊은 장면이나 생활단면들에서 성격이 살아나고 성격창조에 력점이 찍혀질 때 그것이야말로 성격창조의 문학으로서의 소설문학의 형상방법이며 풍격이라고 할것이다. 아무리 세부를 인상깊게 그려낸다고 하여도

성격을 살리는데 복종되지 못하면 그것은 분석적인 묘사를 통한 성격창조의 방법으로는 되지 못한다.

따라서 단편소설창작에서는 이야기를 평면적으로 라렬하는 현상과 함께 대목대목들에서 형상을 돋구어주는 인상적인 세부들을 적당히 배합하여 이야기줄거리만 미끈하게 엮어주려고 하는 실화문학적인 꾸밈수를 없애야 한다. 소설에서 문학적이야기는 그것이 크건작건 모두가 성격창조에 복무하며 성격을 살려내기 위한 요구에서 전개되고 꾸며지게 된다.

그러므로 소설에서 문학적이야기는 평면적으로 라렬될수 없으며 줄거리 본위로 엮여져서도 안된다. 이야기를 평면적으로 끌고나가면서 성격창조에 력점을 두지 않고 장면이나 세부를 흥미있게 돋구어주는것만으로는 《이야기》문학의 테두리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소설다운 풍격을 갖추수 없다.

성격창조에 화살을 돌려 인상깊은 세부들을 집중시켜나가지 못한다면 이야기거리리는 있는것 같으면서도 주인공의 성격을 볼수 없으며 나가서는 문제성해명에서도 작가의 설명이나 주관을 강요할수밖에 없게 된다.

단편소설 《고향길》이 그것을 잘 말하여준다. 소설은 앞부분에서 문학적이야기, 생활세부들을 주인공의 성격을 살리는데 집중시키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감격적인 사실들을 고향길로정에 따라 평면적으로 엮어주다가 마지막대목에 와서는 엄청나게 발전한 주인공의 성격을 드러내보이게 한다. 말하자면 소설의 앞부분에는 주인공의 성격발전에 모를 박고 형상을 집요하게 추구해나가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대목에 와서 불쑥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내용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자기가 체험하는 가정적 비극은 결국 나라가 분열된 비극으로부터 오는것이라는것 따라서 이 아버지는 비록 늙은 몸이지만 이제라도 나라를 위해 분열된 장벽을 깨뜨리는 조약돌이 되겠다고 절통하게 다짐하는 가장 적극적인 경지에까지 성격발전을 끌어올리고있는것이다. 결국 소설은 성격을 창조해낸것이 아니라 문제성을 밝히기 위한 성격에 대한 가장 품위낮은 해설을 주었던것이다.

생활적타당성을 안받침하면서 주인공의 성격을 발전시켜오다가 그런 경지에 오른 성격을 제시해두면 몰라라 한번 고향길을 다녀온, 그것도 장사를 해온 해외교포를 성격에 대한 추궁도 없이 한마디의 말로 해설해버린다는것은 심히 생활론리와 성격론리에 어긋나는것이다.

물론 이 소설은 전반적인 수준에서 보면 형상수준이 그리 낮은것도 아니며 작가의 묘사기법이 저조해서 그렇게 된것도 아니다. 문제는 평면적인 이

야기줄거리를 타고 나가면서도 성격을 드러내게 하는데 력점을 찍고 세부들을 집중시키지 못한 결과 성격을 볼수 없게 만들어놓고 성격에 대한 주제사상적해설을 강요한데 있다.

최근에 창작된 조국통일주제의 일부 단편소설에서는 생활체험의 빈곤과 박약으로 해서 그러한지는 알수 없으나 성격창조는 고사하고 이야기를 생활론리에 맞게 그리고 간결하게 꾸며내는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소설작품도 없지 않다.

그것은 단편소설 《상승》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었다. 이 소설은 문학적이야기도 똑똑하게 안고 있지 못한데다가 인물을 사건에 얹매여놓고 사건도 변변하게 그리고 재미나게 끌고나가지 못한채 성격을 마지막 한 장면에서 급격히 상승시켜 주제에 대한 논리적선동을 들이대고있는것이다.

원래 소설이 안고있는 생활내용, 문학적이야기에 비하여보면 지지리 길게 그것도 4단락에 걸쳐 인상깊은 세부도 없이 인간관계를 잡다하게 교차시켜가면서 주인공의 학생운동에 대한 태도를 해설해주고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박진규이다. 그는 머리도 명석하고 지칠줄 모르는 정력을 가지고 과학탐구의 열매를 따보려고 꿈꾸는 글썽주다싶이한 대학생이다. 그는 대학을 빨리 졸업한 다음 과학탐구의 성과로써 촌에서 가난하게 살며 자기의 뒤받침을 근근히 해주는 어머니와 동생의 처지를 개변해보려는 《리상》을 안고있는 인물이다. 진규는 한때 정의감에 못이겨 학생운동에 참가하여 분주히 뛰어다녔지만 이렇다 할 결실도 보지 못한것을 후회하면서 학생운동을 될수록 멀리할뿐아니라 학생소요에 대하여 늘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산다.

지어 그는 자기 애인 수련이가 《국토종단대행진》발대식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구치소에서 고생하고 나온것을 동정하고 병문안도 하지만 될수록 수련이가 학생운동에 깊이 빠져들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어쨌든 소설에 처음으로 그것도 두번째 단락까지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학생운동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면서 과학탐구에 대한 자기의 《좌우명》을 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왔을뿐아니라 그것을 멀리하고 회피해나서는 그런 인물로 등장한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한때 자기와 하숙집에서 한가마밥을 먹으며 우정을 두터이 하였던 현호라고 하는 친구가 놈들에게 잡혀갔다가 변사체가 되어 한강에서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학생운동에 약간의 반응을 보이며 그 진상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학생운동가들과 접촉하게 된다. 그것은 수사관놈들이 현호의 죽음을 심장마비로 무마해버리려고 책동하는데 대하여 자기가 알고있는 허박사를 통하여 까

밝혀놓기 위해서였다.

소설의 주인공 박진규는 현호가 변사체로 된 사건을 기회로 하여 열풍이 불어오고 대학구내에는 대자보가 나붙으며 주위가 살벌해질수록 피로운나날을 보내며 고민을 털어버리려고 애쓴다.

그는 수련이가 다시한번 이 운동에 말려들어가면 큰 변을 칠것 같아서 그를 달래이며 요시찰인물로 점찍혀있으니 몸두 추세울겸 당분간 자리를 피하라고 말을 건네어본다. 수련이는 진규의 말이 너무도 역겨워 현호씨의 령혼이 우리를 지켜보고있다는것 그리고 학생운동에 그렇게도 외면하고있다가는 통일된 그날에 어떻게 머리를 들고 이 땅을 밟고다니겠는가고 쏘아준다.

소설의 세번째 단락까지의 진규의 성격발전은 이 정도에 머물고있다. 소설의 주인공 박진규는 처음으로 학생운동에 참가해보려고 모대기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참가했다가 자기의 속물적인 《좌우명》으로 하여 발길을 되돌려세우고 투쟁에서 몸을 빼돌린 사람이다. 하기에 다시 학생운동에 말려들어간다는것은 소설에서 자기 애인이라고 설정된 수련이가 쏘아붙이는 몇마디의 충고로써는 해결될수 없는 일이다. 말하자면 심히 타산적인 그의 《좌우명》을 완전히 흔들어놓을수 있는 충격적인 생활계기, 정황 등이 성격론리에 맞게 주어져야 하며 형상적으로 안받침되어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설의 마지막 네번째 단락에서는 이 형상과제가 너무도 쉽게 해결되고있다. 박진규는 수련이가 자기에게 가슴아프게 해준 그 말을 되새기며 고민끝에 환각까지 일으키며 환각속에 《현호》의 충고까지 받게 된다. 그제야 진규는 눈을 번쩍 뜨고 늦게나마 성전에 나서지 못한다면 량심이 자신을 용서치 않을것이라는 자각을 안고 성토대회장으로 뛰어가게 된다. 성토대회에 달려간 그는 연설대에 나선 리철을 해치려는 경찰놈들을 막아 영웅적으로 싸우게 되며 리철이를 피신시킨 다음에는 자기가 연설대앞에 나서서 투쟁으로 학우들을 불러내게 된다. 이리하여 소설은 마지막 단락에서 아주 쉽게 박진규의 개변과정을 처리하고 그를 일약 《상승》하는 학생운동의 《투사》로 발전시킨다.

물론 작가의 창작적의도에 비추어본다면 주인공 박진규는 응당 그와 같은 성격발전단계에 이르게 될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너무나도 성격론리에 맞게 생활론리가 주어져있지 못하며 생활의 세부화를 통한 형상창조가 실현되어있지 못하다.

설화문학이라고 하면 이야기줄거리라도 평면적이기는 하나 순탄하게 흐를수 있겠지만 그마저 뒤엎는데다가 석연치 못한 인간관계를 번잡하게 교차

시켜가면서 줄기와 굵을 분간할수 없게 하고있다.

특히 소설에서는 박진규 성격을 그토록 완고하고 보수적인것으로 두단락에 걸쳐 전개해놓고 충동적인 생활계기나 세부형상도 적절히 안받침해주지 못한채 급격한 전환을 가져오게 한다. 소설이 소설답게 되자면 성격형상에 력점이 찍혀져있어야 하며 생활론리에 맞게 성격론리가 주어져있어야 한다. 이것은 가장 초보적인 요구이며 세부형상을 통하여 인상깊은 성격을 창조해내는 소설문학의 가장 보편적인 형상론리이다. 하물며 단편소설의 경우에는 이 요구가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 그런데 이 소설을 놓고보면 박진규의 성격을 드러내보이는 인상깊은 생활세부를 거의 찾아볼수 없다.

소설에서는 성격을 비약시킬수 있는 생활적전제계기를 깔아준것도 진실치 못하는데다가 작가의 해설과 인간관계에 대한 설명이 많으며 그것도 간결성을 띠지 못하고 번잡하게 늘어져있다.

이 소설은 작가가 성격발전을 모색하면서도 세부형상을 옹케 다루어나가지 못한다면 결국 번잡한 이야기줄거리와 그에 대한 작가의 주관적인 해설만 남게 된다는것을 심각한 교훈으로 보여준다.

이 주제의 소설문학에서 형상의 빈곤과 비진실성은 단편소설 《아지랑이》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 소설은 이야기거리가 톱톡하지 못하는데다가 문제성도 석연하지 못하며 성격을 비진실하게 억지로 피이하게 꾸며낸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물론 생활자체를 남반부현실에 둔것만큼 체험의 빈곤에서 오는 후한이라고 짐작한다쳐도 생활론리에 맞게 성격론리가 주어지지 못하고있다.

어떻게 되어 피뢰군에 나가면서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악의없고 순진하게만 살아가자고 애인인 정아 앞에서 맹세까지 다진 태호가 광주대학살사건에서 《공로》까지 세워 대령감사를 받게 되며 그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일을 애인에게 편지까지 써서 《자랑》하게 되는가, 태호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승냥이같이 피를 즐기는 사람을 정아는 그렇게도 모르고 사랑을 언약하였으며 또 《아지랑이》처럼 살것을 맹세하였는가.

우선 정아와 태호와의 관계에서 작가가 설정한 이야기거리자체가 동통하고 모호한것이다. 또한 그 이야기자체를 가지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

는 문제성도 톱톡하지 못하다. 《아지랑이》처럼 악의 없고 순진하게 살자는것인가, 아니면 피를 즐기는 승냥이와 같은 태호, 광주학살참가자에게는 사랑을 줄수 없을뿐아니라 원썩로 증오의 대상으로 락인되어야 한다는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일단 언약한 사랑이라도 이런 사태앞에서는 가슴아프지만 단호해야 하며 결별해야 한다는것인가, 그외 또 다른것이 있는가.

소설은 문제설정이 《아지랑이》처럼 모호한데다가 성격형상도 전후사연이 없는 간단한 이야기줄거리속에 파묻혀 삽화처럼 안겨올뿐아니라 아리송한것이다. 편지를 받아쥐고 실망하며 대검을 빼들고 처녀의 가슴팍을 찔러대는 승냥이같은 태호를 환각속에 그려보다가 단호히 편지를 불태워버리고 사진을 동강내어 찢어버리는 서글프나 단호한 정아의 모습, 이 성격형상을 무엇이라고 말하여야 하겠는가, 인상적인데도 있지만 형상의 모호성, 비진실성이 강하게 안겨오는것이다. 특히 《군으로서의 용맹과 기개를 가진 진짜 국군의 모델》로 하여 《대령감사》까지 받았다고 써보낸 편지를 즐기는 승냥이로, 대검으로 처녀의 젖가슴을 찌르는 살인귀로 그려보는 그 환각자체가 진실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실지 그런 행동을 하였다쳐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는데 오히려 소설에서는 사랑하던 사람을 흉악한 살인귀로 몰아대고는 편지 한장의 사연을 알아보지도 않고 단호히 결별하게 만들어놓았다.

소설은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꾸미는 문학이지만 생활론리에 맞게 진실하게 꾸며야 한다.

생활이 진실해야 그런 생활속에 선 성격도 진실하게 안겨오게 된다.

이 소설은 이야기를 짜가는 간결성과 함께 형상기법을 가지고있는것 같이 보이나 이야기줄거리를 비진실하게 마구 꾸며대고 문제성을 뚜렷이 세워 세부형상을 집중시켜나가지 못함으로써 소설의 풍격을 낮추게 하였다.

우리는 이상의 창작실태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고 참말로 《이야기문학》이 아니라 사상에술적풍격에서 소설다운 체모와 체질을 가진 전투적형식의 단편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주체의 소설문학의 화원을 더욱 풍부화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창작적열정 드높다

초여름의 무더운 어느날 우리는 조선인민군문에 창작실을 찾았다.

푸르싱싱한 갖가지 나무들속에 둘러싸여있는 창작실은 몹시 조용하였다.

우리가 문에창작실 실장방에 들어서니 거거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525 군부대 장병들에게 보내신 친필서한이 한눈에 안겨왔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에 충실한 혁명무장력에 영광이 있으라!》

뜻깊은 친필서한이였다.

조선인민군 525군부대장병들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적들의 새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보위할 불타는 충성을 맹세하는 결의모임을 가지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삼가 충성의 맹세문을 올리였던것이다.

《지금 조선인민군 전체 장병들의 가슴가슴은 그 어떤 사나운 폭풍이 불어와도 오직 한마음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려는 불타는 각오로 끓어번지고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창작실 실장 윤두환동무의 표정은 근엄하였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한동안 말이 없던 그는 이어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지도자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억세게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며 적들의 복침야망은 서산락일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우리 창작실의 모든 창작가들은 혁명적무장력의 불굴의 투지와 영웅적기상에 대하여 작품들에 실감있게 담기 위하여 정력과 지혜를 다 바치고있습니다.》

궁지에 넘친 그의 힘있는 말이였다.

패기에 넘친 그의 말에서 우리는 창작실안의 모든 작가들의 드높은 창작적열정을 쉽게 알수 있었다.

이어 우리는 시인 김영길동무와 소설가 천용철동

무를 만났다.

창작적열정에 넘친 그들의 이야기는 매우 실감있었고 자신들이 거둔 창작성과와 새로운 이야기들로 하여 우리들에게 퍼그나 감동을 주었다.

《작품은 마땅히 영웅적현실을 열렬히 찬양하고 시대의 거세찬 맥박에 활력을 더해주는 강력한 불길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작품을 쓰자면 우리 작가들이 영웅적현실을 잘 알아야 하며 인민군군인들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김영길동무의 이야기였다.

군인들속에 늘 침투하여 현실체험을 하고있는 그에게는 좋은 글감도 많았고 할 이야기도 적지 않았다.

그의 현실체험은 매우 진지하였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와 전사의 임무를 그어느때보다도 가깝고 간직하고 있는 인민군병사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억세게 틀어쥔 혁명의 무기는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신 귀중한 말씀을 받아안고 한생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충신으로, 효자로 살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무장으로 튼튼히 옹호보위하는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될 불타는 각오에 충만되어있는것이다.

바로 병사들의 전투준비태세에 활력을 더해주는 좋은 작품을 창작하리라. 이것이 그의 확고한 결심이였다.

이 과정에 그는 서정서사시 《백두산의 눈보라》를 훌륭히 탈고할수 있었다.

북부철길건설에 동원된 인민군병사들의 영웅적투쟁을 형상한 중편소설 《첫해겨울》을 출판에 넘긴 소설가 천용철동무의 이야기는 우리를 몹시 감동시켰다.

《산새들도 날기 주저하고 산짐승도 발붙이기 두려워하는 북부내륙지방에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군인건설자들과 청년건설자들이 깃을 내렸지요.

바로 이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형상화할데 대한 과업이 우리들에게 지워졌습니다.》

천천히 말하는 그의 이야기는 흥분으로 떨렸다.

소설가와 생각은 더없이 깊어만갔다.

이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철길이 뻗어 있다. 하지만 우리의 북부철길건설처럼 힘겹고 간고한 투쟁을 한 레는 없을것이다. 이것은 내가 군인 건설자들과 함께 여기서 생활하면서 느낀것이다...

생각에서 깨어난 소설가는 우리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아무리 기교가 높고 숨씨가 있다 해도 똑똑한 사회적문제를 내세우지 못한다면 창작에서 실례를 면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소설을 쓰면서 느낀것이 이것입니다.

당정책의 진수속에 담겨있는 시대의 지향을 한가슴에 안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애써야만 군인들의 혁명교양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새롭고 본질적문제를 안고있는 종자를 발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문학이 내세우는 인간문제는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서만 사람들에게 새로운 감명을 줄수 있지요.》 우리는 천용칠동무의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였으며 긍정하였다.

《작품이 제기한 문제가 독창적으로 깊이있게 형상될수록 그의 감화력은 크고 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와 품격이 높아질것입니다.》

시인 김영길동무의 사색깊은 어조는 우리를 더욱 공감시켰다...

실로 조선인민군 문예창작실의 모든 창작가들은 불타는 창작적열정을 안고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작가 리상룡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군용사들이 발휘한 무비의 용감성과 혁명적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장편소설 《흰눈》의 추고를, 전창

철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장진호반에서 미제침략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준 인민군용사들의 투쟁을 예술적으로 형상한 장편소설 《장진호반》의 추고를, 박춘섭은 장편소설 《혁명가요려곡》(가제)의 추고를, 박운은 장편소설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가제)의 추고를 끝내었다.

그리고 시인들인 정렬과 신병강, 희곡작가 김하천, 작곡가 한희세를 비롯한 많은 창작가들이 사상에 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하였다.

김영길동무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주어 말하였다.

《오늘 우리 군인들이 살고있는 생활분야도 특색이 있고 작가가 제기하려는 의도도 새로운것만큼 군인들의 형상도 90년대의 성격답게 그려야 새로운 경지를 열어놓을수 있다고봅니다.》

확신에 넘친 그의 이야기는 우리를 더없이 기쁘게 하였다.

참으로 그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조선문학창작사 전체 창작가들에게 보내신 회답서한과 조선인민군 525군부대 장병들에게 보내신 친필서한을 받들고 창작활동에서 더 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충성으로 받드는 길에 영광이 있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는 한길에 승리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조선인민군 문예창작실 창작가들에게 큰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기쁜 마음을 안고 그 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광주의 5월

문성락

눈서리 모질게 맞고
뿌리채 얼었다가도
봄이면 봄아지랑이를 물고
파랗게 머리쳐드는 푸른잔디처럼
땅속깊이 묻힌 씨앗이
마침내 움트는 계절이 오면

꽃이면 다시 피라고
잎사귀면 다시 푸르라고
오는 계절이건만

해마다 이맘때면
우리 누리는 즐거움보다 먼저
원한의 광주 생각에 가슴 쓰리고
광주 그 이름 부르면
때없이 5월이라는 그 따스한 부름보다
서리찬 증오의 고드름이 가슴에 맺힌다

한창 봄맞아 피여날 청춘들이
땅속에 락엽처럼 묻힌 그 한때문이나
우리 맞고 보내는 날과 달속에
뜻깊은 사변도 많아
못잊는 기념일도 많건만

5월을 맞을 때면
광주부터 생각하는것은
거기 피에 젖은 모습들이
생생히 떠오르기때문이어라

사나운 비바람에도

씻기지 않고
세월의 흐름에도
지워지지 않는 피자욱

아직도
결산 못한 그 피값에
언제이고
기어이 성취하고말 삶의 요구에
웃으며 안고간 자주, 민주, 통일의 노래

지리지 불태우고
속속들이 뽑아던진다 해도
땅이 있고 공기 있고 물이 있는곳
얼었던 대지도 강물도
봄우뢰소리에 삶의 숨결 되찾듯이
가슴에도 분노의 봄우뢰가 운다

아 하늘에 해가 있으면
봄씩 어김없이 돌아나듯
진정한 자유의 봄 통일의 봄
아름다운 그 봄그려 불타는
광주의 5월

파쑸의 광풍에
아깝게도 진 꽃 그 향기
더 억세게 풍기라고
때아닌 눈비에 떨어진 봄꽃 그 잎새
새싹 불러 한껏 푸르름 펼치라고
너나없이 민족의 피속에 넋속에
분노의 계절로 자리잡은 5월이어

《자네야말로 인간이 아니라 예술의 신일세》

리문성

1608년 초가을 윌리엄 셰क्स피어는 고향에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다.

이즈음 셰क्स피어는 외모뿐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갑자기 늙어버린 사람처럼 달라져 60살이상은 실히 나보였다.

외동아들과 아버지의 사망에 뒤이어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가슴아픈 상처와 오래동안 곁쌍인 피로로 말미암아 셰क्स피어는 곧 새 작품 창작에 손을 대지 못하고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고말았다.

셰क्स피어는 이무렵 《베니스의 상인》과 《햄릿》과 같은 걸작들을 잇달아 써서 명실공히 영국 문단의 《왕》으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있었다.

그는 수입도 년 800파운드 이상이 되어 고향에 훌륭한 저택을 마련하여 가족들을 살게 하였다.

하지만 그는 런던에 온지 스물두해가 되는 그때까지도 친구의 집에서 하숙생활을 하고있었다.

셰क्स피어는 한 작품을 끝내면 실새없이 런던아 다른 작품을 쓰고 게다가 무대를 쫓아다니다니 가정의 재미를 즐길 시간이 전혀 없었다.

어느날 저녁 셰क्स피어는 주인내외와 식탁을 같이 하고 앉았다.

런던에서 대학을 마치고 교원이 된 주인 조지 프리스는 마을청년들과 함께 악귀같은 지주놈을 끌려주려고 그의 정원에서 사슴을 훔쳐내려다가 발각되어 런던으로 도망해온 의지가없는 셰क्स피어를 이날이때까지 자기 집에 하숙시켜주고있는 그의 일생에 둘도 없는 동향친구였으며 은인이었다.

《사람의 운명이란 정말 모르겠군. 아직 더 생존해계실줄 알았던 어머니가 덜컥 돌아가시고 고뿔에도 끄덕 않던 내가 이렇게 맥없이 드러눕게 되다니, 이러다간 언제 어머니의 뒤를 따를지 모르겠거든.》 셰क्स피어는 조지에게 자신을 잃은 침울한 소리로 말하였다.

《너무 무리해서 그런거야. 몸을 돌보라구. 무쇠로 육체가 빚어졌대도 자네처럼 일에 쫓겨서는 견디어내지 못하네. 그것도 하루이틀이지 사람이 지지 않고 어떻게 살겠나. 언제 봐도 자네 방엔 불이 꺼져있지 않으니...》

조지는 셰क्स피어의 폭 꺼진 눈확과 깎아내린듯 표나게 여윈 그의 두볼을 애처로운 눈길로 바라보며 진정으로 걱정되어 말하였다.

《조지, 걱정해주어 고맙네, 자네는 나에게 한두번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 셰क्स피어는 감격에

목메여 말하였다.

조지의 안해 에리옌트도 측은한듯 셰क्स피어의 머리를 쳐다보며 끼여들었다.

《윌리엄씨, 너무 무리하신것 같애요. 머리칼이 빠진걸 보니...》

이 말에 셰क्स피어는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머리를 만져보았다. 에리옌트의 말처럼 그의 머리는 번대수리마냥 앞이마가 민듯하게 벗겨져올라가있었다.

《그렇군요. 아 어느틈에 머리가 이렇게 되었을가, 아직 44살밖에 안된내가...》

《눈에 피발이 서고 입술에 덕지가 앉은걸 보라구. 윌리엄, 자네 신색이 정말 말이 아니네, 그러다가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고 저승의 사람이 되고말겠네.》

《이제 나아지겠지. 나는 워낙 쇠덩이처럼 단단한 사람이니까. 너무 걱정 말게나.》 조지의 말에 셰क्स피어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오소리처럼 일만 하지 말고 인젠 좀 쉬라구, 자네는 이승에서 할바를 다한 사람이 아닌가. 〈햄릿〉 하나만으로도 자네는 둘도 없는 천재로서 인류에게 귀중한 재부를 선사한셈이네.》

이 작품 하나만으로도 세상사람들은 자네를 세계적인 문호로서 현세뿐아니라 후세에 가셔도 떠받들 걸세 게다가 연거퍼 술한 력작들을 내놓았으니 이제 할 일이 또 무엇이 있겠나.》

《그렇가? 내가 할 일을 다했다구?》 셰क्स피어는 머리를 저으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윌리엄, 이번 기회에 가족을 아주 이리로 부르게. 언제까지 그렇게 글을 쓰고 무대에 나서고 극장 경영까지 하느라 쿵당쿵당 뛰여다니며 살겠나. 가정의 따뜻한 온기는 언제 느껴보고... 고향에 있는 처자들도 생각해야지.》

《헌데 나는 이곳 런던에서 살고싶은 생각은 꼬물도 없네. 시기와 질투로 가득찬 숨막히는 이 거리가 영 질색이거든.》

이렇게 대답하고난 셰क्स피어는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옛날의 그리운 정이 깃들어있는 숲과 내물가를 걸으며 외아들 햄네트의 새 무덤에 꽃을 꺾어다 놓을 때 있었던 일이 되살아났다.

그때 12살난 둘째딸 주디스는 《왜 우리를 런던으로 데리고 가주지 않으세요? 난 아버지 따라 런던에 가고싶어, 아버지와 떨어져살고싶지 않아.》

쥬디스는 아버지의 소매에 매달리면서 눈물이 가랑가랑 맺힌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럴때마다 셰크스피어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었지만 도회지의 공기는 나빠서 오래 살곳이 못된다. 거기서는 이고장에서처럼 숲속에서 우짖는 새 소리도, 돌돌 흐르는 내물소리도 들을수 없단다. 아버지는 말이야, 조금만 더 런던에서 일하고 고향에 돌아와 죽을 때까지 너희들과 같이 살터이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 엄마 말씀도 잘 듣고...》라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던 때가 어제같은데 벌써 12년 세월이 흘러갔다.

《그렇다면 고향에 내려가게. 고향에 번듯한 집도 사놓았겠다. 걱정할게 무엇이 있나. 에이번강가에서 한가하게 낚시줄이라도 드리우고 자연을 벗삼아 조용히 독서를 즐기면서 지내라구.》 조지는 절절하게 말하였다.

《나도 그럴 생각이 없지 않네, 정말 처자들과 함께 단란한 생활을 즐기고싶네. 이 이상 신경을 쓰면서 런던에서 시끄러운 생활을 하고싶지 않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아들의 무덤곁에서 해별이나 쪼이면서 조용히 지내고싶네만... 그런데 나는 이곳에서 아직 다하지 못한 일이 있네.》라고 셰크스피어는 창으로 비쳐드는 저녁의 옅은 해빛에 눈을 가늘게 뜨고 쓸쓸히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다.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자네 내 말을 듣지 않다가 제명을 다 못살고 지레 죽지 않나 보게. 자네야말로 인간으로 태어나 제 할 일을 다한 사람일세. 그건 세상이 인정하는거네. 자네 44년이 아니라 440년동안 할 일을 다한 사람이란 말일세. 그런데 또 무슨 할 일이 있다구 그러나.》

《아니야, 조지, 자네 아직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르고있네. 내 마음속 한구석에 공허한데가 있거든.》

《그게 뭔데?》 조지는 셰크스피어가 말도 잇기 바쁘게 다그쳐묻는것이였다.

《나는 아직 어릴적에 고향의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키웠던 그 푸른 꿈을 이루지 못했거든. 그래서 죄진 사람처럼 늘 마음이 피롭고 불안하단말일세.》

《자네가 뭘 말하는지 통 모르겠군.》

셰크스피어는 추억도 새로운듯 이렇게 말을 잇는 것이였다.

《조지, 자네도 기억날레지. 내가 15살때 다니기 실은 학교를 그만두고 가게방을 보는 부모들을 도우면서 독서를 즐기고있던 나를 찾아 자네가 우리 집에 왔던 일이 말일세.》

《아무렴 생각나구말구. 그때 자네는 고미다락방에서 책속에 파묻혀 책을 읽고있었지. 현대 그때 그

일은 왜 새삼스럽게 꺼내나?》 조지는 의아한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때 자네는 나에게 〈이렇게 많은 책을 읽고 무엇이 될려구 하니?〉 라고 물었지. 이 물음에 내가 〈시인이야, 시인이 될려구 그래.〉 이렇게 대답했던 생각이 나나?》

《그래서?》

《그때 자네는 나에게 말했지. 〈너는 시인이 될 재간을 가지고있다. 윌리암, 런던으로 가자. 너같은 천재가 시골에 파묻혀있기는 아깝다. 이런곳에서 아무리 훌륭한 시를 지었다 한들 발표할수도 알아줄 사람도 없다. 여기서 보석을 썩일수 없다.〉 라고 했지. 자네 그때 날더러 런던에 가서 꼭 대시인이 되라고 열기띤 말로 나를 추동했지.》

《그랬던가. 옳아. 그랬구말구. 분명히 그렇게 말했지.》

《그런데 나는 그때의 꿈, 자네가 바라던 그런 대시인이 되지 못했거든. 자네 내가 여기로 온 목적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나. 이 런던을 동경의 도시, 꿈의 도시, 야심의 도시로 그리며 여기 와서 대시인이 되겠다던 그 희망은 내 뇌리에서 한시도 떠난적 없네.》

이 도회지에 와서 각본을 써서 성공했는지는 모르겠네만 시인으로서의 셰크스피어는 아직 되지 못했거든.》

《윌리암, 자네 벌써 서사시를 써서 런던시민들을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속에 휩쓸어넣구 시인으로서의 명성을 날리지 않았나. 온 영국땅에 회리바람을 일으킨 그 시만으로도 자네는 공인된 영국의 대시인이 된셈일세.》

그는 이때로부터 18년전에 셰크스피어가 처음으로 쓴 서사시 《비너스와 아도니스》를 넘두에 두고 말하였다.

《하지만 그것으로써 대시인이라는 인정을 받기는 부끄럽네. 후날 사람들이 셰크스피어가 극작품과 함께 시도 좀 썼다는 정도로 알려질지는 몰라도... 여직껏 나는 극작품에 부대껴 시작품에 크게 손을 대지 못했어. 내 마음속에서 솟구쳐오르는 시상을 막을수 없단말일세. 대시인으로서의 셰크스피어를 아는 그런 시를 쓰고싶네. 이것이 내가 아직 여기서 할 일이네.》

《그러니 다시한번 세상을 감동의 파도속에 던져넣을 시를 쓰겠단말이지. 그전에는 붓을 놓을수 없단말이지. 좋네. 자네 결심이 그럴진대 나도 어쩔수 없네. 다만 자네 건강이 걱정돼서 그러는거네. 그럼 또 한바탕 세계를 뒤흔들 시를 써보라구.》 조지는 정색해서 이렇게 말하고는 룡조로 계속하였다.

《윌리암, 대시인이 된 다음에는 대소설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나?》

《자네야말로 정통을 찢었네. 솔직히 말해서 그럴 생각이 간절하네. 저 셰르반페스처럼...》

《예끼, 이사람아, 사나운 욕심쟁이 같으니. 말타면 경마잡히고싶다는것은 자네를 두고 한 말일세. 그래 장차 대소설가까지 될 심산이란말인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허지만 나에게는 소설까지 쓸 힘이 없네. 이 몸이 열개가 되든가 인생이 100년이라면 몰라도...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의 빛을 줄 그런 신은 없을까?》 셰스피어의 목서리는 가늘게 떨리었다.

《윌리암, 거듭 부탁이네만 마지막으로 시나 한편 쓰고 고향으로 내려가라구. 이렇게 객지에서 20여년 세월을 혼자서 살수 없지 않나. 홀로 있는 안해와 자식 생각도 해야 할게 아닌가, 처자들이 자네를 얼마나 기다리겠나.》

이때까지 두사람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만 있던 에리웃트가 《윌리암씨, 당신은 언젠가 소갈이 먹고 말갈이 달린다고 하셨지요. 게다가 무슨 음식이나 가리지 않는 대식가라고 하셨지요. 호호호, 자, 어서들 드시고...》 라고 웃음섞인 말로 음식을 권하였다.

《감사합니다. 모조리 다 하겠습니다. 나는 대식가 아니까요. 하하하.》

셰스피어는 병든 사람 같지 않게 소리내어 웃으며 자기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돼지고기훈제를 한 입 가득 넣고 씹어삼키는것이였다.

며칠후 셰스피어는 주인내외의 관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건강이 회복되자 시작품에 달라붙었다.

이때로부터 3년후에 당시 영국시단에서 많이 유행되고있던 14행시형식으로 된 쏘네트가 발표되였다.

그는 이 14행수축에다가 그야말로 셰스피어다운 재팔을 휘둘러댔다.

이 시가 나오자 온 런던시민들이 환희에 넘쳐 앞을 다투어 이 시를 읽었다.

이 시로 하여 셰스피어는 극작가로서뿐아니라 명망높은 세계적인 시인으로서의 명성을 당당히 떨칠수 있었다.

아름답고 화려한 이 시는 셰스피어의 시풍이라는 일파를 이룰 정도로 사람들의 커다란 인기를 끌었고 오늘날에 와서까지도 긴 생명력을 지니고 애송되고있다.

2부작으로 된 이 시는 남녀간의 뜨거운 애정에 대하여 쓴 보기드문 순수한 로맨스였다.

서사시를 썼을 때 그랬던것처럼 셰스피어는 이 시를 시잔프톤백작에게 바치려고 어느날 그의 저택으로 갔다.

이 백작이란 21년전 말지기로부터 배우가 된 셰스피어가 엘리자베스녀왕 어전에서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고난 뒤 녀왕에게 바치는 시를 읊었을 때 감격한 나머지 《배우는 판 사람이 할수 있지만 자네같은 시재를 타고난 시인을 대신할 사람은 없다. 배우를 그만두고 시를 쓰라.》 이렇게 왕이 있는 자리에서 말한 시에 깊은 조예를 가지고있는 귀족이였다.

그뒤에도 그는 셰스피어더러 《한번 번쩍 보여준 마음속의 시의 불꽃을 꼭 터쳐놓으라》 라고 하면서 그의 시창작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었다.

백작은 셰스피어가 가지고 쏘네트를 받아쥐고는 찬탄과 흥분을 금치 못해하였다.

《윌리암군, 자네의 비상한 시재의 깊이와 높이는 도저히 계량할수 없네. 자네야말로 인간이 아니라 예술의 신일세.》

《백작님, 그런 룡담은 삼가해주시시오. 예술의 신은 녀자이지만 저는 남자가 아닙니까. 만약 예술의 신이 남자라면 틀림없이 당신일것입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인가?》

《백작님, 저의 첫 서사시 〈비너스와 아도니스〉를 보고 누구보다도 기뻐한것도 당신이였고 그것을 출판해서 시인으로서의 두각을 나타나게 한것도 당신이 아닙니까.》

그뒤 여러모로 저의 시작품을 격려해주고 도와주었기때문에 제가 이런 시를 쓸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술의 신은 제가 아니라 당신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셰스피어는 겸손하게 대답하였다.

셰스피어는 이 시를 써서 시인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획득하자는데도 있었겠지만 이와 함께 각본으로서는 도저히 쓰고싶은것을 다 쓸수 없었기때문이다.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으나 셰스피어는 이 시를 마지막으로 런던에서의 문단생활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26년만에 그리운 처자들이 기다리고있는 고향 에이번강변의 스트레트포드로 돌아갔다.

여기는 아직도 겨울이다

류동호

나는 꽃을 안고왔다

한송이 꽃을 엮기에는
너무도 원한깊은 밤나무꼴에
꽃으로는 다할수 없는 마음인줄 알면서도
나는 꽃을 안고왔다

총칼에 찢기우고
수류탄에 갈가리 찢어지고
휘발유에 숯처럼 불타죽은
400어머니와 102어린이
꽃으로는 달래일수 없는 그 령혼앞에
나는 어이하여 꽃을 안고 왔던가

꽃을 안고 잠들기에는
너무도 참혹한 죽음
향기속에 눈감기에는
너무도 너무나도 엉이진 분노
가슴 아픈 세월에 칭칭 휘감겨

천만송이 꽃을 놓는대도

위로할길 없는 그 령혼앞에
이 세상 꽃향기 다 모아놓는대도
조금도 가실길 없는 피의 수난앞에
꽃이여 말해다오
그 어떤 복수자가 서있는가를

원한의 봉분앞에 없는것은
아름다운 꽃이 아니다
소용돌이치는 분노와
끝안에 가득찬 증오에
피땀을 뿌리는 꽃
불이 되어 타오르는 꽃
아, 타끓는 이 심장의 맹세를 없노라

나는 꽃을 안고왔다
천백배 복수하기전에는
절대로 가실길 없는 피의 수난앞에
지구상에서 철천지원췌 미제를 요정낼
복수자의 맹세를 안고 왔다

아이들이 울고있다

엄마-
어머니를 찾는 그 애절한 부름마저
휘발유로 태우고
수류탄으로 짓밟은 화약창고에서
아이들이 울고있다

불길, 뜨거운 불을 헤집고
달아오른 콘크리트 바닥을 마구 허비던
피흐르는 그 두손으로
이 가슴 찢으며
아이들이 울고있다

한모금 젖마저 물려못주고
애타게 아, 애타게 아이들을 찾으며
눈감지 못하고 간 어머니를 부르며
아이들이 울고있다

오, 밤나무꼴

원한의 화약창고를 찾는 사람
그대가 남녀로소 그 누구이든 다
어머니로, 어머니로 불러세우며
아이들이 울고있다

따뜻한 사랑만으로 달랠수 없고
단젖을 물린다고 그치지 않을 저 울음
누구나의 타끓는 가슴에
복수의 피를 끓여주며
아이들이 울고있다

그 사라지지 않는 메아리
증오의 가슴마다 채워안은 격노
하늘땅을 진감하는 퇴성으로 터치며
복수하기전에는 복수하기전에는
절대로 끝치지 않으리라
아이들이 울고있다
아, 아이들이 울고있다

우리의 동갑들아

먼 소꿉시절부터
이름아닌 수자가 이름처럼 새겨져
다정한 벗이 된 102명의 어린이
서로 나이는 달라도
매이르게 동심의 피를 끓이며
철없던 그 시절부터
왜서인지 우리는 동갑나이로 세였다
이슬젖은 선생님의 눈빛앞에
우리는 그대들의 자리를 남겨두었다
술푸른 야영지의 모래불에는
내 작은 발자국만이 찍혔던가
연락을 두드리던 복수모임에서는
내 목소리만이 울렸던가
어깨동무 나란히 우리 학창시절은 흘렀다
아, 꽃나이 그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심장속에 살아 숨쉬며
사랑과 증오로 호흡한 그 시절
그때 우리는 벌써 학창의 벗만이 아닌
세대의 의무를 자각한 복수자의 대오에
함께 있었다

×

청춘시절의 어깨우에 총을 메고
언 땅을 가슴으로 녹이던 초소의 밤
천리행군길에 목이 타던 수호의 길이어
노을처럼 불타는 붉은기폭아래서
향토를 꾸리고 조국을 가꾸며
피땀으로 새겨안은 사랑과 증오의 나이여
조국앞에 선서한 그날부터
우리의 나이는 무엇으로 세야 했던가
50년대로부터 90년대에도
증오는 복수의 세월만을 안고 왔다!
이제 더는 나이를 먹을수 없는
복수의 세대가 우리 아닌가
분노의 눈물을 씹으며 지낸 낮과 밤
또다시 이어가기에는
너무도 너무나도 모질지 않느냐
남알을 가꾸며 집을 지어도
가슴속 복수의 도가니에 그 용암이 끓지 않느냐
나의 동갑들아
이제 우리가 결산할것은
복수의 피값뿐이다

피라는 부름소리

차마 못떠나는
이 심장을 부여안은 밤나무골
어머니와 아이들의
피젖은 속삭임소리
아, 간절히 속삭이는 소리

너무도 가슴 아픈 원한을 안고
너무나도 먼 세월을 앞서간 령혼들이
무엇인들 묻고싶지 않으랴
하고싶은 말인들 얼마나 많으랴

저기 있다고
휘발유를 물이라 먹이고 불지르고
하맑은 두눈알을 집게로 뽑고
산 사람의 가족을 칼로 벗긴 미제
인간백정들이 아직도 칼을 갈고있다고
서리찬 증오에 피를 토하는 소리

란도질 당하고
생매장 당하고
화장 당하고...
아, 눈감지 못한 그 원한의 령혼앞에서
원썹들이 아직도 승냥이 이빨을 갈며

이 땅의 행복을 호시탐탐 노리고있다고
안타까이 안타까이 이 가슴 두드리는 소리
분노한 세월의 피라는 부름소리여

안다!
살아 숨쉬는 신천의 원혼들이여
이 가슴속에 고패치는 부름앞에서
내 심장이 어떻게 불타야 하는지
내 총검이 어떻게 번쩍이고
원썹를 찾아 내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

가슴 끓이고
시대를 끓이는 그 부름앞에서
천만 복수자들이 대렬을 맞추노라
달아오른 가슴에 불을 다는
복수의 웨침소리
백병전의 함성소리

아, 무거운 고요가 깃든
밤나무골에 울리는 피라는 부름소리
멸적의 병사들을 부르는
돌격의 구령소리처럼
복수자들의 대오를 정렬시킨다

여기는 아직도 겨울이다

생각하기조차 숨가쁜
서리찬 증오에
눈물마저 타는 화약창고에서
그날에 자신을 세워보는
1950년의 겨울이여

도망치는 승냥이무리 악에 받쳐
우리 어머니와 아이들을
무참히 학살한 피의 겨울
천만심장의 일력우에 또렷이 새겨주며
복수의 세월이 여기서 흐름 멈추었다

하늘땅도 분노에 치며는가
피약벌도 서리에 찼다
록음길은 이 계절 가슴속에 일어번지는
한여름의 눈보라

수류탄에 맞아죽고
휘발유에 타죽은
꽃같은 그 녀들이 길이 살아
활활 타는 가슴에 몰아오는 눈보라
뜨거운 이 여름에도
밤나무결은 겨울이다

저기 저 푸르른 잔디
그 흰눈우에 찍혀져있다
한 철사에 껴여 끌려오던
어머니와 아이들의 그 맨발자국
함께 있는것은 너무도 행복하다고
갈라놓고 피태우다 불태워죽인 그 흔적

아직도 눈길우에 또렷하다
휘발유통이 굴러온 자리
불을 지르고 수류탄을 던지고

힐끔힐끔 뒤돌아보며 뺑소니친
터럭손 승냥이무리들의 검은 발자욱
원쑤를 쫓아 내 갈길을 부르고있다

오, 세월의 눈길우에 찍혀져있다
그저는 정녕 그냥은 못죽어
살아 생을 더듬던 그 작은 두발자국에
보폭을 맞춘 천만 복수자들의 발자욱 발자욱...

눈보라는 가슴을 친다
울부짖는다
원한의 그 나날을 안고
가슴에 고패치는 세월의 호곡이여

이 땅의 그 누가
봄날의 꽃만을 안고 살수 있다더냐
원한의 세월이 흐름을 멈추고
복수의 그날을 부르는 이 겨울
아, 밤나무결의 이 겨울을 그냥 두고

가슴속에 이 서리가 녹지 않게 하라
심장속에 이 눈보라 찾지 않게 하라
그대 사랑에 젖어
꽃향기 넘치는 그 어느 봄날에 살건
귀여운 어린것들을 품에 안고
그 어느 행복의 순간에 서있건
심장을 얼कु는 이 겨울을 잊지 말라

오, 눈보라는 일어번진다
천만심장을 복수전으로 부르며
이 땅의 영원한 봄을 부르며
눈보라 눈보라는 폭풍친다
아, 원한의 밤나무결
여기는 아직도 겨울이다